

단원

학습목표

3학년 문집

우리반 최고!

시간표

영어A

수학

사회

점심시간

미술

체육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선생님 사랑해요♡



차 례

* 3학년 1반 작품

* 3학년 2반 작품

* 3학년 3반 작품

* 3학년 4반 작품

* 3학년 5반 작품

* 3학년 6반 작품

* 3학년 7반 작품

* 3학년 8반 작품



3학년 1반 글솜씨 자랑

- [견학 보고서] 송암 미술관을 다녀온 후 • 강희민
- [견학 보고서] 인천 검단 선사 박물관 • 황서은
- [견학 보고서] 국립 경주 박물관 • 김민준
- [독서 감상문]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읽고 • 김유진
- [독서 감상문] 염소가 낳은 송아지 • 김현준
- [독서 편지] 만만한 수학 • 나민우
- [독서 감상문] 이황 • 최재운
- [독서 감상문] 책이 사라진 날 • 강민하
- [동시] 바다 • 유승연
- [동시] 달걀찜 • 윤시아
- [동시] 좋은 날 • 이한비
- [동시] 구름이 • 임아령
- [동시] 바다 • 김은호
- [동시] 이심전심 • 김준희
- [동시] 사슴벌레 • 신하성
- [동시] 무지개 • 진시윤
- [동시] 야구 • 이하준
- [일기] 시흥 웨이브파크 • 강민서
- [일기] 백운 계곡 • 이예린
- [일기] 탁구장 • 임태린
- [일기] 애기봉 전망대 • 박태준
- [일기] 호캉스 한 날 • 오유민
- [일기] 하이원 워터파크 • 지정무
- [일기] 바다 • 강다울
- [일기] 워터파크 • 방지호
- [일기] 강릉 계곡, 바다 • 사랑
- [일기] 또 가고 싶다! • 조민재
- [일기] 친구들과 여행 • 김권율

[견학 보고서]

송암 미술관을 다녀온 후

강희민

여름 방학 선택 과제로 나는 미술관 관람 후 감상문을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빠와 송암 미술관을 다녀왔다. 가기 전에 기대가 있었고 그 미술관에 가면 어떤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송암 미술관에 가서 보니 1층에는 토기에 대한 것과 다양한 도자기류가 전시되어 있었고 열두 띠 중에 용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도 있었다.

2층에 올라가니 수많은 그림 중에 <호랑이와 까치>라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문화해설사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을 서민이 그린 민화라고 소개해 주셨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인 데 반해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까치 두 마리도 있었다. 문화해설사 선생님께선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말씀하셨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옛 선조들은 그림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 같다. 옛날 선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견학 보고서]

인천 검단 선사 박물관
- 오늘은 내가 고고학자 -

황서은

- ❖ 견학 날짜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 견학 장소 : 인천 검단 선사 박물관
- ❖ 견학 동기 : 발굴 체험을 하기 위해
- ❖ 견학 내용 : 유물 발굴과 복원

◆ 알게된 점

고고학자 체험을 통해 고고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고고학자는 땅속에서 유물을 찾아 발굴하고 깨진 유물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만드는 복원 작업을 한다. 빗살무늬 토기를 발굴하고 복원했는데 옛날 신석기 시대의 예쁜 그릇이 만들어졌다.

◆ 느낀 점

옛날부터 발굴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렵기도 했지만 고고학자가 된 것 같아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발굴은 재미있었지만 진짜 고고학자가 되면 힘들 것 같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고고학자님들께 '화이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그릇이 있는 게 신기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견학 보고서]

국립 경주 박물관

김민준

나는 8월 15일에 가족들이랑 경주 박물관에 갔다. 박물관에는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주먹 도끼와 돌날 도구들이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 청동거울 등 다양한 도구가 있었다.

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금으로 된 왕관, 황금보검, 토우 장식 향아리를 보았다.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도 보았다. 나와 가족들은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담긴 국보들을 많이 보았다. 국립 경주 경주 박물관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독서 감상문]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읽고

김유진

제가 이 책을 읽은 까닭은 아는 언니가 추천해 주어서입니다. 이 책은 짧지만 조언이 가득하고 좋은 말이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좋은 기억은 붙잡고,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고’라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저 같았기 때문입니다.

[독서 감상문]

염소가 낳은 송아지

김현준

제가 읽은 책은 ‘염소가 낳은 송아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칼은 암소를 잡고, 표범은 염소를 잡았는데, 표범이 아무도 없는 자칼의 집에서 암소의 송아지를 데려가고선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고 우겨서 영양과 하이에나에게 찾아가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게 가능한지 물어요. 영양과 하이에나는 표범이 무서워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긴꼬리원숭이를 찾아가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게 가능한지 물어요. 그런데 긴꼬리원숭이는 돌이 악기라면서 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웃을 때 긴꼬리원숭이가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돌에서 소리가 나는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말하자 표범은 바로 춤을 추며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러자 자칼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춤까지 추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하자 표범은 자신이 송아지를 훔쳤단 걸 인정하고 송아지를 돌려줬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받은 교훈은 ‘거짓말을 해도 언젠간 들킨다.’입니다. 표범의 ‘내 염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 거짓말이 긴꼬리원숭이의 ‘염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돌에서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는 한마디에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독서 편지]

만만한 수학

나민우

To. 우리 반 친구들

안녕? 나 민우야

갑작스럽지만 내가 수학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

이 수학책은 우리 형이 읽던 것인데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 이 책은 만만한 수학이라고 한 권이 아니야.

1권은 점이 뭐야?

2권은 2주세요.

3권은 원은 괴물이야

4권은 분수가 뭐야?

5권은 그래프가 쪽쪽!이야

그 뒤에도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읽었어.

어려운 수학이지만 정말 재미있고 읽기 쉽게 나온 책이어서 나도 여러 번 읽었어.

내가 소개하는 건 여기까지고 한 권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From 민우

[독서 감상문]

이황

최재윤

이황은 어릴 적부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벼슬까지 갔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황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독서 감상문]

책이 사라진 날

강민하

이 책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를 정복하는 이야기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이 지식을 얻을 수 없게 책을 빼앗았지만, 외계인들은 책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책의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구인들과 화해하여 외계인들이 글도 배우고 도서관도 지구인들과 같이 이용했다.

나도 책을 대충 읽을 때가 있어서 ‘책에 있는 지식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야 해’라는 민지 말이 기억에 남았다.

[동시]

바다

유승연

건드리지 마라

바람아

푸른 바다

감기 걸리면

물고기들도 아파하니

건드리지 마라

바람아

모래에 푸른 바닷물이

덮혀

모래가 아파하니

바다도

마음 아프다



[동시]

달갈빚

윤시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갈빚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더 먹고 싶은 달갈빚

오늘도 먹은 달갈빚

엄마의 엄마가 만들어 주시면
엄마는 맛있대
아빠의 엄마가 만들어 주시면
아빠는 맛있대

하지만 난 그 맛이 안 나
엄마가 해줘야
제맛인 달갈빚

내가 엄마 딸이라서 더 맛있나?

[동시]

좋은 날

이한비

언니랑 안 싸우면

좋은 날

엄마가 안 아프면

좋은 날

아빠가 기분 좋으면

좋은 날

[동시]

구름이

임아령

우리 강아지 구름이
참쌀떡같이 생겼다.
참쌀떡처럼 말랑하다.

우리 강아지 구름이
귀여운 여우같이 생겼다.
여우처럼 털이 부드럽다.

우리 강아지 구름이
언제나 나한테 멍멍 짖는다.
그래도 나는 구름이가 좋다.

[동시]

바다

김은호

수영을 하면서
놀 수 있는
바다를 좋아해

더울 때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는 시원해

우리 가족
모두 다 즐거워
바다가 최고야

[동시]

이심전심

김준희

오늘 친구랑 싸웠다.

말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쩌라고'라고 했다.

친구도 할 말이 없었는지
'저쩌라고'로 받아쳤다.

역시 우리는
싸울 때도 이심전심
우리는 단짝 친구

[동시]

사슴벌레

신하성

매일 밤에는
사슴벌레들이
결투를 하네

톱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가
결투를 하네

이긴 사슴벌레는
암컷과 짝짓기를 하네

밤이 되었네
사슴벌레가
결투를 할 시간이네

톱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가
결투를 하네

넓적 사슴벌레가
이겼다.

[동시]

무지개

진시윤

비가 그치고 난 후
무지개가 떴다

빨주노초파남보
예쁜 무지개

온 색깔 다 품은
반짝반짝 무지개

먹 색깔 구름 뒤에 오는
알쏭달쏭 무지개

[동시]

야구

이하준

잡는 것도 하고 치는 것도 하고
내가 잘하는 야구
너와 함께 연습을 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기분이 안 좋아도 짜증나도
너를 하면 화나지 않아
너를 하면 짜증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공부를 하라고 할까?

[일기]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날씨 : 약간 흐림

시흥 웨이브 파크

강민서

나는 오늘 내 친구와 함께 시흥 웨이브 파크를 갔다. 거기에서 키즈풀에 들어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거북이 안에 들어가면 있는 에어바운스에 갔다. 너무 힘들고 재밌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짚라인도 탔다. 너무 떨렸다. 왜냐하면 손잡이를 놓칠까 봐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잘 잡고 내려갔다. 그리고 옆에 있는 7m 슬라이드를 탔다. 아래에서 볼 때는 안 무서워 보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 못 할 것 같았는데 용기를 내서 했다. 정말 소리 지를 틈이 없었다. 그 짧은 순간에 짜릿함을 느꼈다. 재밌는데 무서웠다. 그래도 슬라이드를 6번 탔다. 이제 파도풀에서 파도를 타고 간식도 먹고 씻은 다음에 바비큐 광장에 가서 고기도 먹고 4층에 가서 놀고 헤어졌다. 정말 행복했다.

[일기]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날씨 : 맑음

백운 계곡

이예린

오늘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운 계곡에 갔다. 우리 가족과 고모할머니 가족과 갔다. 계곡 옆에 있는 어울림 산정에 가서 닭백숙과 밥을 먹고 라면도 먹었다. 그리고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다. 물이 시~~원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조랑말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넣고 프레스포 카페에 가서 이모들이랑 놀았다. 어른들 드시고 이모들이랑 헤어져야 했다.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πππππ 엄마가 말씀하셨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나 결국에 편의점에 들렸다. 거기서 진라면을 먹었다^^ 집에 가는 거리가 멀다.

근데 집이 밖보다 10배는 더~~ 좋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집이 편하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일기]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날씨 : 반짝반짝 밤

탁구장

임태린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탁구장에 갔다.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오빠와 아빠가 하는 걸 봤다. 그리고 아빠와 나랑 팀을 하고 엄마와 오빠가 팀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서브를 했더니 엄마가 잘했다고 해 주셔서 뿌듯했다. 오빠는 내가 친 공을 못 받아쳐서 내가 1점을 얻어서 신났다. 그라자 오빠가 급잘진을 해서 1점을 얻었다. 나는 동점이 되었지만 속상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공을 쳤다. 오빠가 그 공을 받아서 강스파이크를 쳤다. 아빠가 받았는데 네트에 걸려서 오빠가 또 1점을 얻었다. 난 아빠한테 화가 났다. 그리고 나서 내 서브 차례가 왔다. 오빠가 또 못 받았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21대 19로 우리 팀이 이겼다. 기분이 엄청 좋았다.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기로 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일기]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애기봉 전망대

박태준

처음으로 김포에 가서 애기봉이라는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로 갔다 왔는데 5층 아파트가 보였다. 선생님께서 북한 사람 300명이 이사를 왔다고 하셨다. 신기했다. 원래는 한국에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 유도라는 섬이 있는데 UN군이 지키고 있던 어느 날 북한에서 소 한 마리가 한 다리를 절뚝절뚝하며 떠나려와 한국이 UN군이 오케이하고 UN군이 북한에게 말했더니 북한도 오케이 해서 구출했는데 새끼 소가 7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정말 재미있었다. 기회가 또 된다면 또 보고 싶다^^

[일기]

호캉스 한 날

오유민

아빠랑 호텔에 갔다. 처음 가서 신기했다. 숙소에 들어가는 카드키를 주었다. 우리는 603호였다. 숙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좁았다. 침대가 2개 있고 티비가 있었다. 아빠는 여기서 1박 2일을 할 거라고 했다. 나는 라면을 먹고 게임을 했다. 그런데 아빠가 나가서 폭죽을 터트리자고 했다. 우리는 분수랑 스파크 지팡이를 했다.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일기]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날씨 : 맑음

하이원 워터파크

지정무

오늘은 하이원 워터파크를 가는 날이다. 너무 신났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갔는데 아침 8시에 도착해서 갔다. 가자마자 3m인 파도풀부터 갔다. 그리고 유수풀을 갔다. 그리고 VR로 바다 거북, 고래랑 헤엄쳤다. 아침은 라면, 김밥을 먹고, 점심은 짜장면 돈까스를 먹었다. 그리고 부메랑고라는 재밌는 것도 탔다. 형아는 무서워서 울었다.

다음 날 숙소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알파인 코스터를 탔다. 너무 재밌어서 또 가고 싶다.

[일기]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날씨 : 맑음

바다

강다울

오늘은 상은이 이모랑 엄마와 같이 바다가 있는 예쁜 카페를 찾아서 갔다. 바다에 아름다운 조개, 소라가 있었다. 날씨가 정말로 더워서 나가지 못할 정도였지만 예쁜 조개와 소라를 주우러 가려고 더위를 참고 갔다. 그런데 바닥에 멀쩡한 과자가 덩그러니 있었다. 그 과자를 주워 상은이 이모와 함께 던져 주었다. 갈매기가 파닥파닥 거려서 무서웠지만 이모와 함께하니 재미있고 신나고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래가 너무 미끄러워 뛰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 이모는 힘들게 들어왔다. 들어오니 안에는 천국이었다.

[일기]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날씨 : 맑음

워터파크

방지호

나는 오늘 워터파크에 갔다. 파도풀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 근데 (대반전) 형아가 튜브를 뒤집었다. 코에 물이 들어왔다. 코가 찌릿찌릿 거렸다. 형한테 짜증 났다. 형에게 따졌다. 근데 형이 또 그랬다. 진짜 짜증 났다. 엄마에게 일렸다. 형이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물놀이를 안 한다고 했다. 형 몰래 이 층에 올라갔다. 거긴 천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옥이 됐다. 형이 엄마에게 지호 어디 갔냐고 했다. 엄마가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엄마 : 지호 이 층 올라가던데?

형아 : 응, 알겠어ㅋㅋㅋ

형이 올라왔다. 난 물놀이를 그냥 안 한다고 했다. 라면을 먹었다. 가장 최고의 하루였다! 끝! 까아악!

강릉 계곡, 바다

사랑

강릉으로 여행 떠나기 하루 전 우리는 준비를 했다. 그곳에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설렜다.

다 도착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다. 수박과 사과도 먹었다. 그 다음날에는 바다를 갔다. 너무 신났다. 날씨도 좋고 다 너무 좋았다.

[일기]

또 가고 싶다!

조민재

오늘은 '워터파크' 가는 날이다~!

동생이랑 나는 소리쳤다. 나는 가족, 친척과 워터파크에 온 나는 재빨리 파도풀에 왔다. 무지무지하게 컷다. 파도풀을 탄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미끄럼틀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무섭지 않다! 점심시간에 되었다. 10원빵을 배부르게 먹고 떡볶이도 먹었다. 맛있었다! 더 놀고 6시가 지났다. 이제 가야된다.ㅠㅠ 호텔에서 친척과 삼겹살을 먹었다. 벌써 10시가 되었다. 잠을 자고 이제 집에 가야 한다.ㅠㅠ

'또 가고 싶은데!'

[일기]

친구들과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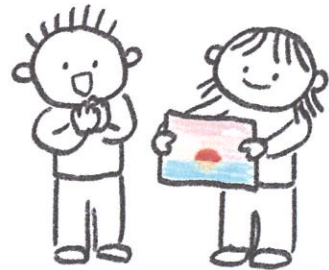
김권율



제 목	친구들과	여행
오늘은	풋살장에	왔다.
경기를	할 때	내가
공을	넣어서	기분이
좋았다.	풋살장	외로
서는	매우	재미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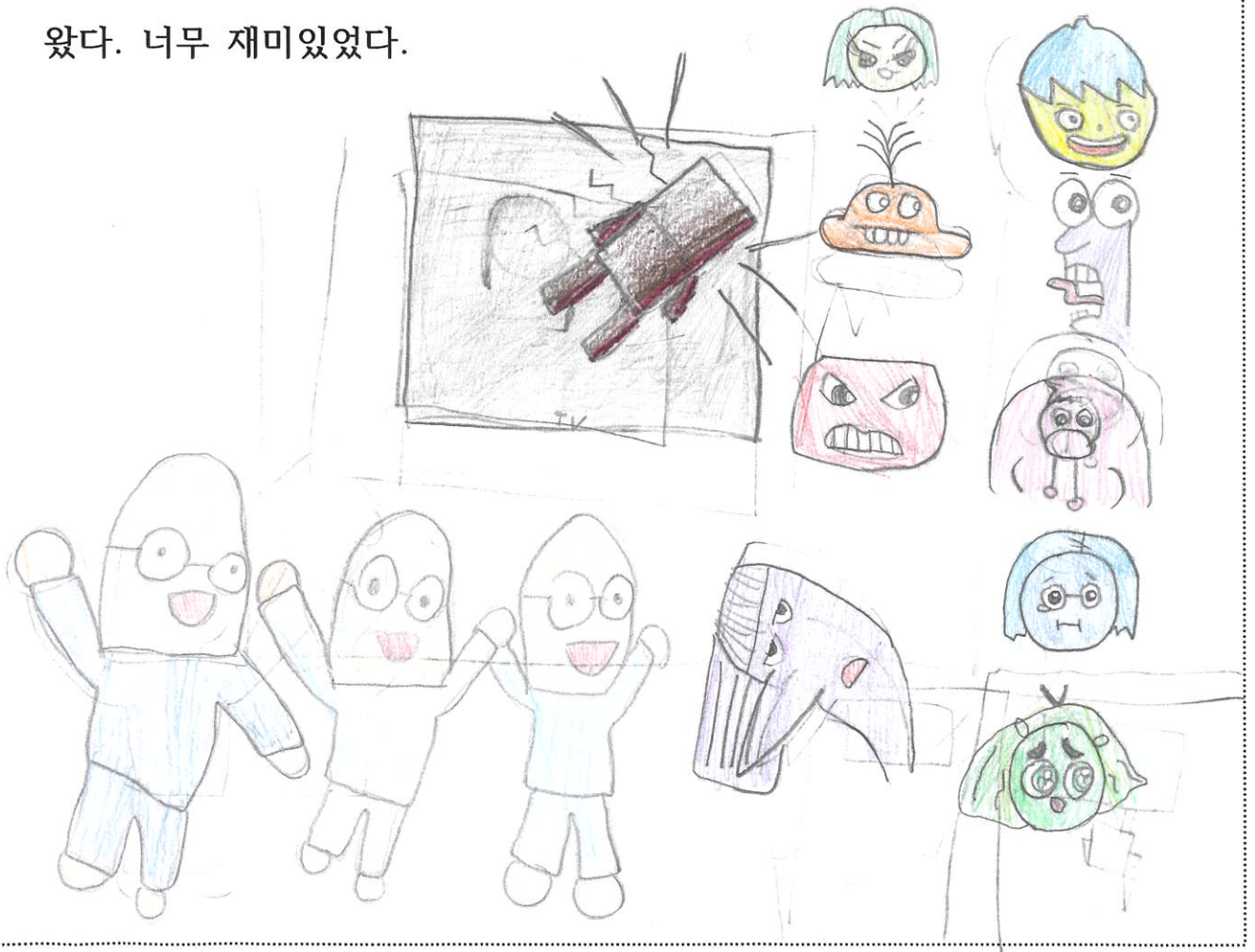
3학년 2반



‘인사이드 아웃2’를 보고

3학년 2반 권지율

인사이드 아웃에서 등장인물은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불안, 당황, 따분, 라일리, 추억 할머니 등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2에서 하키를 하기 위해 팀을 정하는데 친구들과, 하키 잘하는 언니들로 팀이 갈렸는데, 라일리가 하키 잘하는 언니들 팀으로 간 내용과 불안이 사람들에게 종이에 불안한 생각을 그려서 내라고 하고 사람들이 불안한 생각을 쓰던즈음 기쁨, 버럭, 까칠, 소심이가 불안한 기억 쓰는 곳으로 와서 쉬러 간 사람의 자리로 가서 좋은 기억을 쓰고 점점 다른 사람도 하나둘씩 좋은 기억을 쓰고 한 사람이 의자로 TV를 부수고 다같이 난장판을 만들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감동 받았던 내용은 모든 감정들이 좋은 자아를 안아 주는 부분에 눈물이 나왔다. 너무 재미있었다.



도아 가심 등 댘니

3학년 2반
박설아

할머니

보고싶은 할머니

얼굴도 못 보고

하늘 나라로 간

할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할머니



베트남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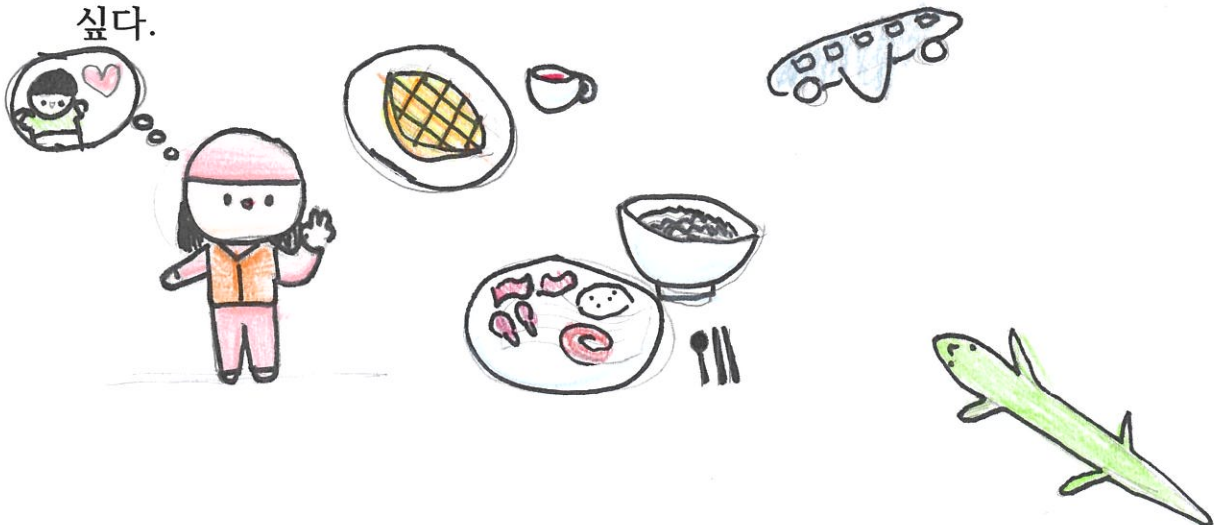
3학년 2반 심유하

이모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의 나트랑에 갔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장 물은 파랗고 시원했다. 수영장 밑에 모래가 있어 발에 다 묻고 물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모네와 같이 놀아서 즐거웠다.

음식점에는 사람이 많아서 시끌벅적했다. 처음 보는 음식이 많았다. 가장 눈에 띄는 음식은 여러 가지 색깔이고 가시처럼 생겼다. 그리고 베트남 전통음식인 쌀국수 보다는 베이컨을 더 많이 먹었다. 물놀이 후 낮잠을 자는 오빠들을 빼고 이모, 이모부, 엄마와 망고를 먹었다. 망고는 평소에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노랗고 컸다. 망고가 맛있어서 일하시느라 함께 베트남에 가지 못한 아빠가 더 생각났다. 아빠하고 먹으면 더 맛있었을텐데 아쉬웠다. 티타임이라서 음식점에 사람이 적어 아침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밤이 왔을 때 오빠들과 도마뱀을 잡았다. 게코도마뱀은 작고 귀여웠다. 한 마리는 종이컵에 눌러 죽어서 속상했다.

맛있는게 많아서 아빠하고도 오고 싶다. 피곤했지만 다른 데도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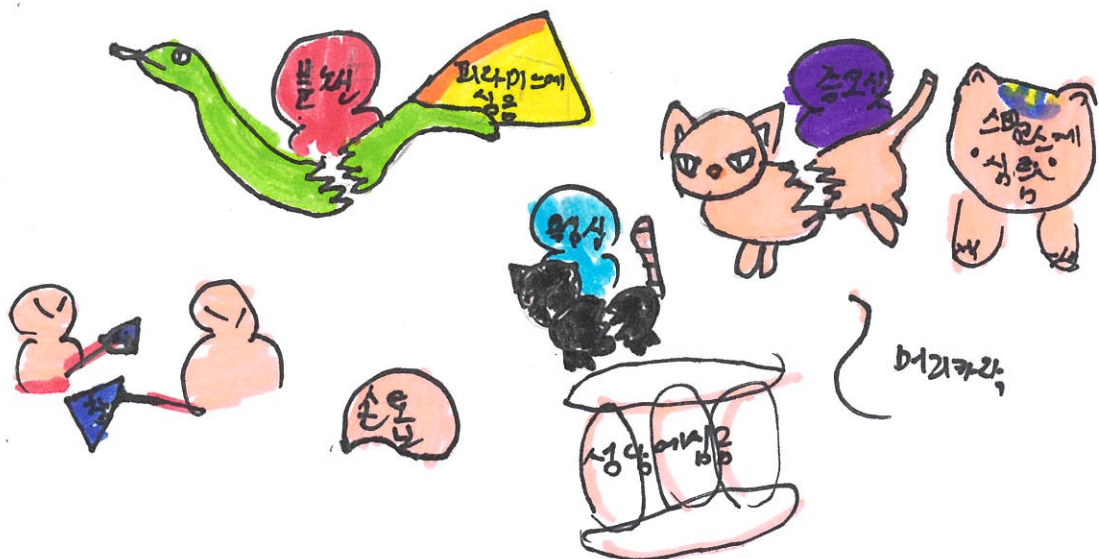


인간이 증오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3학년 2반 이규현

아주 멀고 먼 옛날 창조신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땐 순수, 사랑, 행복, 슬픔, 웃음을 넣었대요. 창조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분노신이 들어 왔어요. 분노신은 창조신이 자신을 빼고 재미있는 걸 하여서 분노를 했죠. 분노신은 화가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살짝 넣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분노가 생겼대요. 그 다음날 창조신이 왔어요.

창조신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었어요 그다음 쥐를 다루는 증오신은 쥐를 시켜 몰래 자신의 손톱을 넣었어요. 그 이후 창조신은 인간 둘을 만들었어요 두 명의 인간은 사소한 걸로도 싸웠어요 그래서 창조신은 두 인간을 다시 불러 들였어요 그런 뒤 새로운 아기를 만들었어요 창조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분노 욕심 증오신이 모여서 아기에게 분노 욕심 증오의 감정을 넣었어요. 아기에게 그 감정이 생기는지 보고싶어서 였죠. 아기는 커가면서 분노 욕심 증오가 생겨서 커졌어요 창조신이 인간을 만들면 남은 세 신이 감정을 넣다 보니 어느새부터가 신바람이 났었대요. 창조신은 무언가 이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 명의 신이 킁킁 웃었거든요. 창조신은 이제서야 세 명의 신이 자신의 인간들에게 분노 욕심 증오를 심었다는걸요. 창조신은 화가 나서 세 명의 신들이 키우는 뱀 쥐 고양이를 반으로 찢어 지구에 심었대요. 어때요? 인간이 분노와 증오와 욕심을 갖고 있는 이유!!재미있었나요?





3학년 2반
이루나

여름이 가시질 않네
여름이 되지 3달이 되어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네

여름이 가시질 않네
선선한 가을이 도기는 커녕
여름이 더 더워지네

여름이 가시질 않네
선선한 가을이 도기는 커녕
가을은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되겠네

여름은 왜 가실 생각을
안 하시지?
혹시 잠을 자나?



수락산 계곡

3학년 2반 이은솔

수락산 계곡에 갔는데 물이 엄청 맑았다. 팔을 다치고 갔는데 그래도 재밌었다. 노는 중에 고기 냄새가 나서 고기가 먹고 싶었다. 우리 가족은 조금 있다가 라면을 먹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물고기가 한 마리 밖에 안 잡혔다. 다음에는 물고기도 많이 잡고 팔도 다치지 않고 가서 더 재밌게 놀고 싶다.



3학년 2반 이은솔

여름방학 하기 전에 키크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다. 유비스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인하대병원에 가서 뼈를 맞췄다. 그러다가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인하대병원에 갔는데 뼈가 더 부러지고 휘어져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술을 받으면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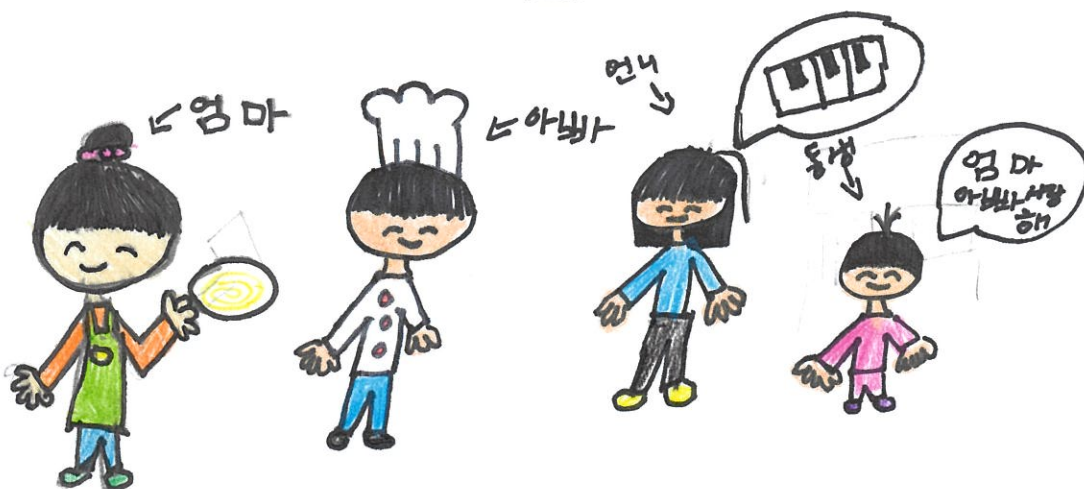
우리 가족 칭찬하기 ^{3학년 2학기 1번} 정서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우리 엄마는 계란말이를 잘
해요. 우리 엄마는 계란말이에 치즈, 햄, 파를 넣어서 더
맛있어요.

우리 아빠는 예전에 뷔페 요리사였어서 요리를 잘해요.
특히 손님이 오실 때는 더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언니는 피아노를 아주 아주 잘 쳐요. 근데 콩쿨은 안 나
가요. 그래도 피아노는 아주 아주 잘 쳐요. 다음 건도를 나
가면 바로 알아서 척척 잘 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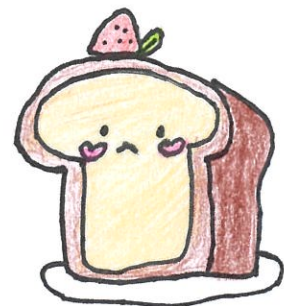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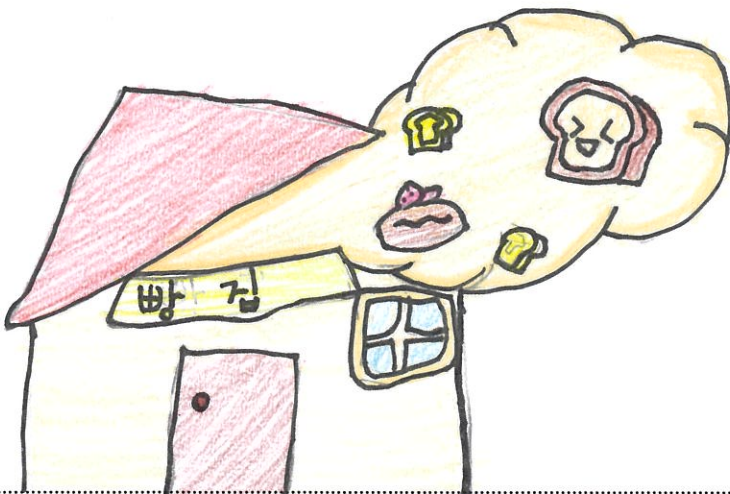
우리 동생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맨날 저와 언니한테
말 데꾸만 해요. 그래도 나살 인테 말은 또래 보다
잘해요. 그래서 기뻐요.



빵 터지는 빵집

3학년 2반 황서희

한 마을에 빵집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덩치 큰 손님이 찾아왔어요. "빵집 아저씨! 내일까지 빵 50개만 만들어주세요!" 손님의 말을 들은 빵집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휴... 빵 50개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 개 만드는 건 귀찮은데..." 그때 아저씨가 갑자기 뭔가 알아냈다는듯이 무릎을 탁 치면 말했어요 "옳지! 빵을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 큰빵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 아저씨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아저씨는 빵을 구우려고 했지요. 빵을 다굽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빵집을 삼키려고 했어요. 그때 빵 50개를 만들어 달라고했던 덩치 큰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저씨! 부탁한 빵 50개 주세요!" 손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빵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덩치 큰 손님이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저씨! 빵을 먹으면 부풀어오른 빵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아저씨와 손님은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뒤 빵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빵 50개를 못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손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빵이라면 이미 많이 먹었는걸요~" 그러자 손님이랑 빵집아저씨가 동시에 웃었어요.



무서움을 물리치는 나만의 비법

3학년 2반 김민재

어두울 때, 혼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등 무서울 때는 저는 다른 생각이나 책 읽기 게임이나 영상 보면서 시선돌리기 등을 합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에 집중을 하다보면 어스새 무서운 마음은 사라지고 책 생각이 많이 나서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책은 나비를 잡는 아버지, 월화수목금토일요일 그리고 별요일!을 주로 읽습니다. 책 내용도 재미있고 신기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

3학년 2반 김민재

바다.

바다. 파도가 찰랑찰랑
큰 파도가 첩첩첩첩
큰 파도에 사람들도 조금씩 쓸려간다.
파도 맞기 싫어 물장구치고 있으니 서핑하는
사람이 보인다.
파도 위로 보드를 타고 점프하고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니 심심하던 마음도 사라졌다.

시험

3학년 2반 김찬

틀릴까봐
조마조마
'이게 뭐였지?'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내가 15문제를 풀면
친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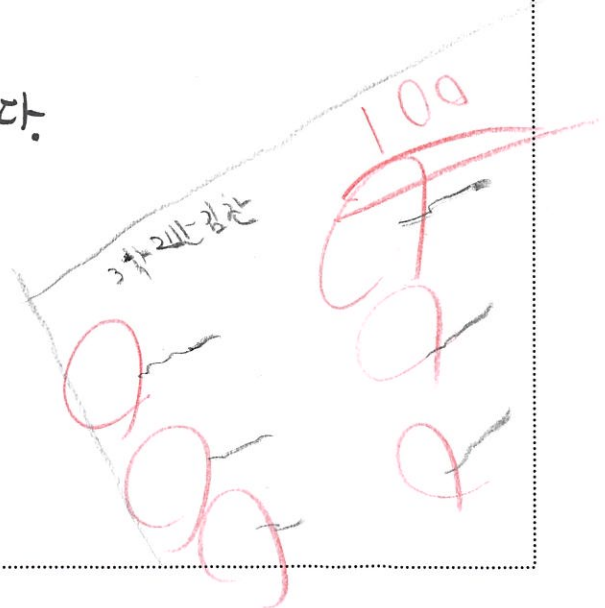
시험지를 낸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내심장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뻐근뻐근

결과는 과연

100점이었다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슈퍼베드4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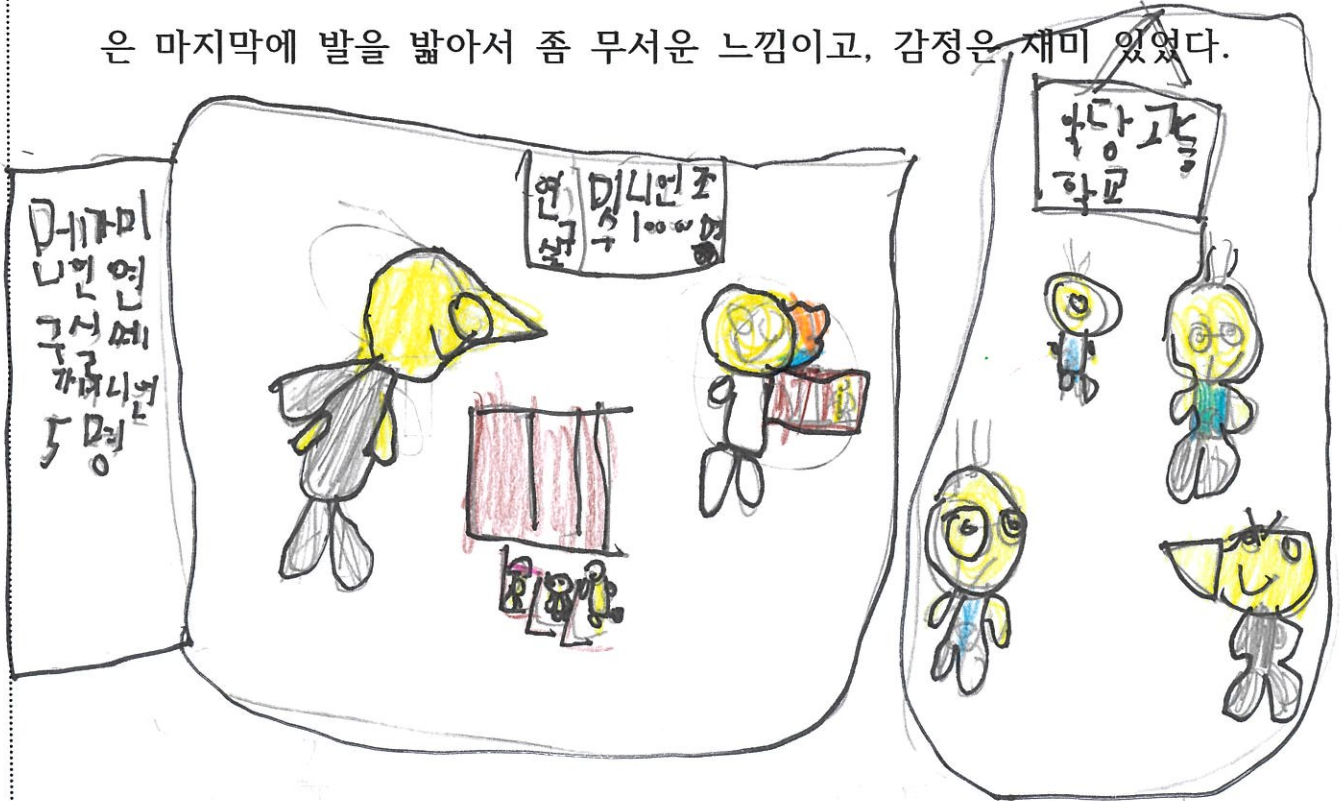
3학년 2반 박주안

등장인물은 그루, 멧싹, 알레티나, 주니어, 미니언, 딸 셋, 루시, 교장 선생님, 친절한 아저씨, 바피, 관지자, 옆집사람, 기생충이다.

처음에는 그루가 악당고등학교를 열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을 받았다. 상은 악당 황금 트로피였다.

그리고 집에 왔다. 루시가 우유를 사오라고 했었다. 우유가 많이 있다고 했다.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변비용우유도 있고 더 많다.

그리고 그루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라고 했다. 그리고 루시가 어 깜빡했네 라고 했다. 바로 아가다. 그루가 예쁘다 했는데, 아기는 그루가 싫었다. 그리고 맛있는 주스를 마셨는데 그루가 토했다. 느낌과 감정은 마지막에 발을 밟아서 좀 무서운 느낌이고, 감정은 재미 있었다.



주제: 오늘 먹은 음식

제목: 마라탕

이름: 성예진

나는 마라탕을 좋아한다 오해하면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당면, 뉴진면, 분모자 등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마라탕
 의 칼칼함이 맛있다 그리고 모양새도 좋다
 예를 들면 꽃 분모자는 꽃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지는 1단지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짭바로우 때문이다



마라탕



꽃분모자



꽃분모자



완도 여행을 다녀와서

3학년 2반 신태민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전라남도 완도에 갔다. 전라남도 완도는 우리 아빠가 태어난 고향이고 고모가 살고계신다.

완도에는 낚시하는 곳이 많은데 물고기가 잘 잡힌다.

나는 우럭이랑 참돔을 잡았고 아빠도 우럭이랑 참돔을 잡았다.

낚시를 해보니 물고기가 진짜 잘 잡혀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잡은 물고기로 가족과함께 회도 먹고 생선구이도 먹었다.

바다옆에는 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바다 앞에 모래사장에서도 게를 잡을수 있다.

게도 많이 잡고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니 좋았다.

완도 시내에는 큰 장난감 할인마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학용품, 공 등이 있다.

나와 동생들이 장난감 1개씩을 골라 고모가 사주셨다.

물건들이 진짜 많고 싸고 많은 장난감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인상 깊었다. 전라남도 완도는 자동차로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여행이었다.



계곡 물

3학년 2반 11번
윤승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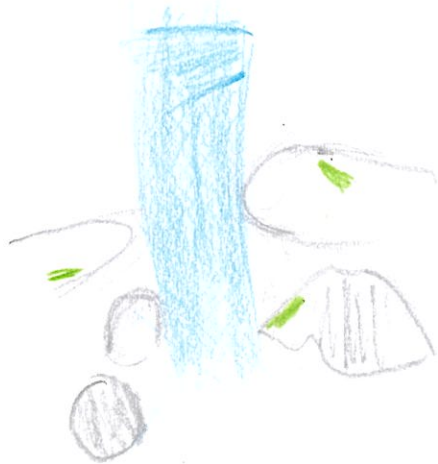
뜨거운 여름

산속의 계곡

처음엔 차가워서

물이 온드온드

실장은 쿵쿵 쿵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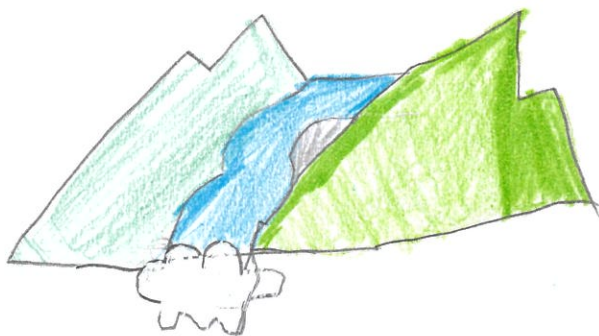


물장구와 물총 놀이에

즐거워 가득

신나게 놀다보니

아이 찾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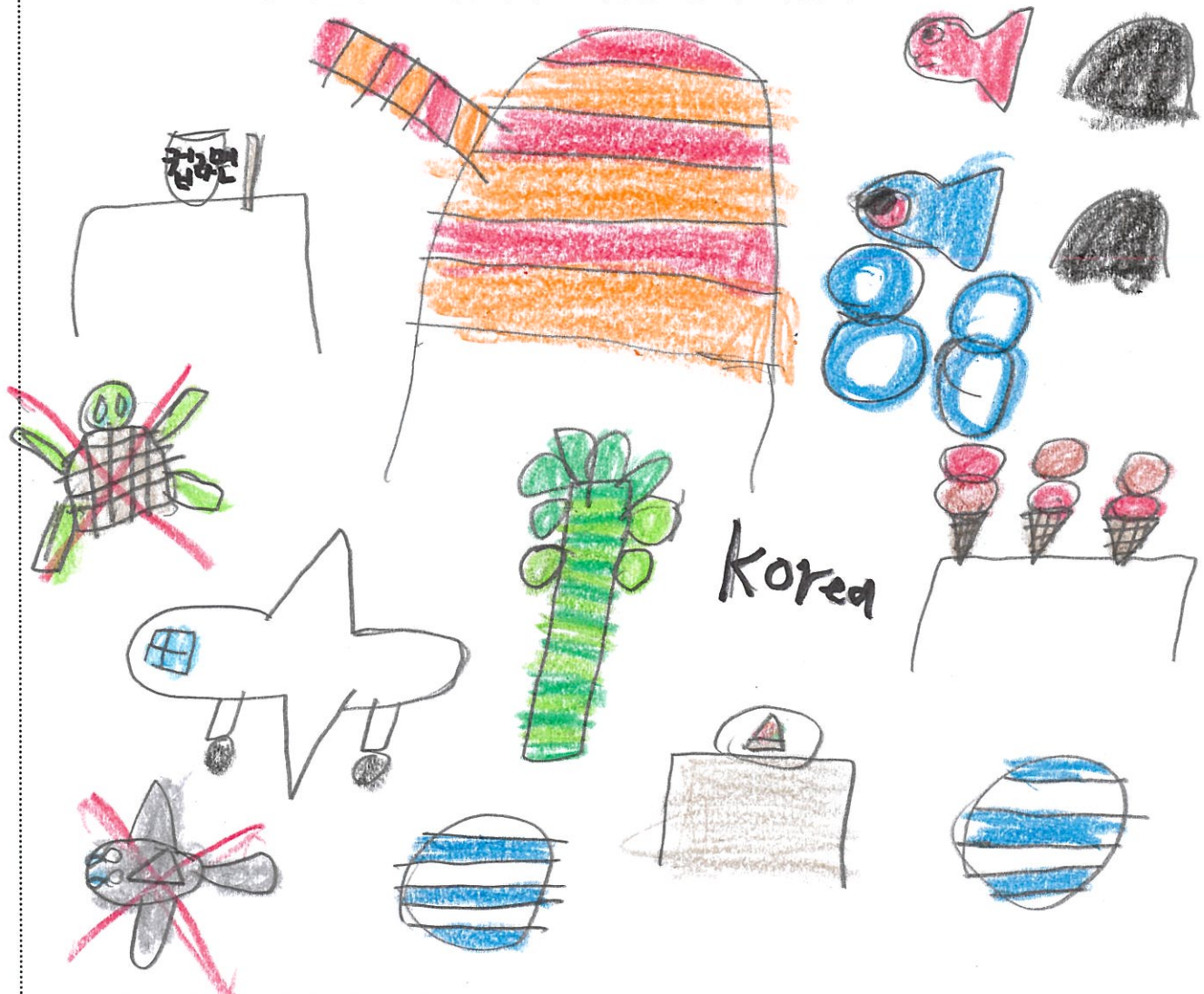


더운 여름 한뼘~~

가족과 함께 간 사이판

3학년 2반 이로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피하려고 가족과 사이판에 갔다.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밤에 도착했다. 뷔페에서 아침밥을 먹고 물놀이를 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물놀이도 하니 좋았다. 배를 타고 마나가하섬에 갔는데 라면도 먹고 스노쿨링도 했다. 거북이와 아기상어는 못봤지만 라면은 맛있었다. 한국에서는 무려 2시간이나 줄서야 탈수있는 튜브미끄럼틀을 탔다. 아주 큰 미끄럼틀인데 사이판에서는 오분밖에 안걸렸다. 튜브가 무겁고 계단이 많아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아빠랑 같이 타서 엄청 재밌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좋았고 사이판이 이렇게 예쁘고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라반에서 보낸 하루

3학년 2반 이준서

체험학습을 내고 평일에 큰엄마,엄마와 사촌형,사촌동생이랑 카라반 여행을 갔다. 6월의 조금 뜨거운 햇살이 내리던 아침, 너무 설레서 밤잠을 설치고 들뜬 마음으로 마트에서 맛있는 고기, 간식을 사서 엄마차에 탔을 때, 진짜 놀러간다는 실감이 났다.

사촌형과 동생도 큰엄마와 함께 카라반에 도착하니 너무 너무 행복하고 기뻐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닌텐도를 하며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도 마음껏 먹고, 물총놀이를 하며 뛰어노니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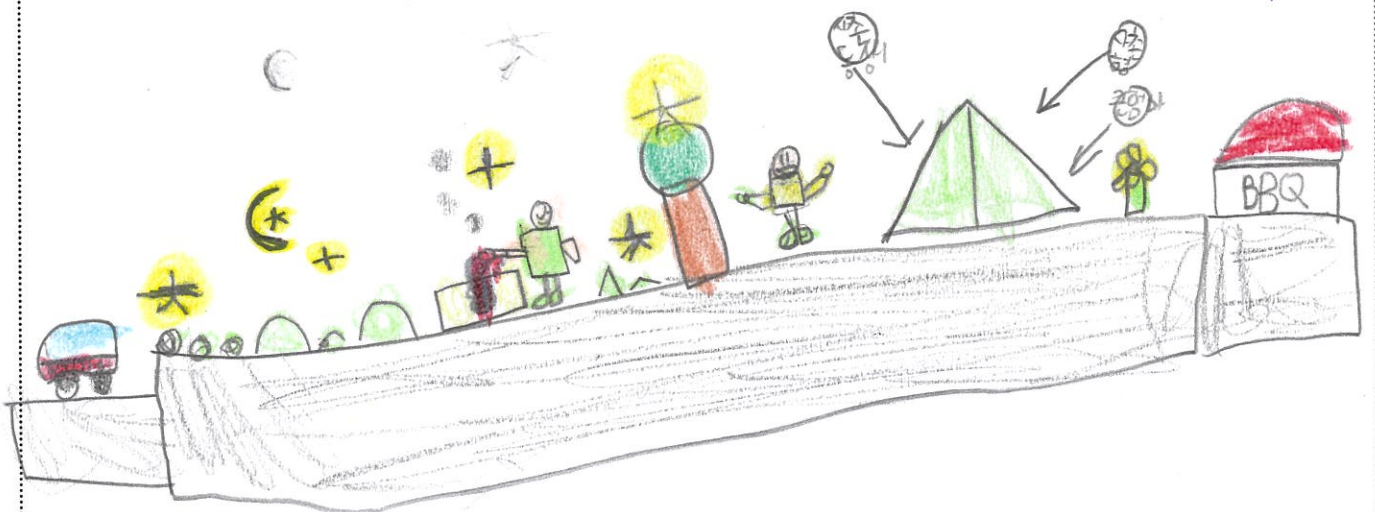
날이 조금 어두워지니 큰엄마랑 엄마께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주셨다. 여행 와서 먹는 삼겹살은 왜 더 맛있을까? 숯불에 구워지는 냄새는 언제 말아도 너무 좋다. 나는 바베큐 때문에 펜션이나 캠핑, 카라반, 글램핑을 좋아한다.

맛있게 먹고 형아랑 동생이랑 게임도 하고 뛰어놀았다. 유일하게 빨리 안 자고 떠들어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날이 여행이다.

형아랑 동생이랑 실컷 놀다 나도 모르게 잠들고 일어나니, 역시 놀러 온 다음날의 아침은 라면이지! 라면도 여행 와서 먹으면 왜 더 맛있을까? 여행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걸까?

그러나 특별하고 행복한 여행의 시간은 역시 너무 짧다. 아쉽다고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며 하루 더 있자고 졸라봐도 소용이 없다. 그대신 가을에는 꼭 두 밤 잔다고 약속했다.

그 부푼 기대를 안고 나는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3학년2반 한서진

제목: 비

찰랑찰랑 비소리
우산 쓰고 나가보니
우산에 비가 똑똑
장화 신고
푹썩푹썩
동생과 같이
놀고 있다.



갯벌의 먹보, 불가사리

3학년 2반 이가온

불가사리, 갯벌의 먹보.

조개를 다 잡아먹네.

불가사리아, 조개를 잡아먹지마.

조개가 불쌍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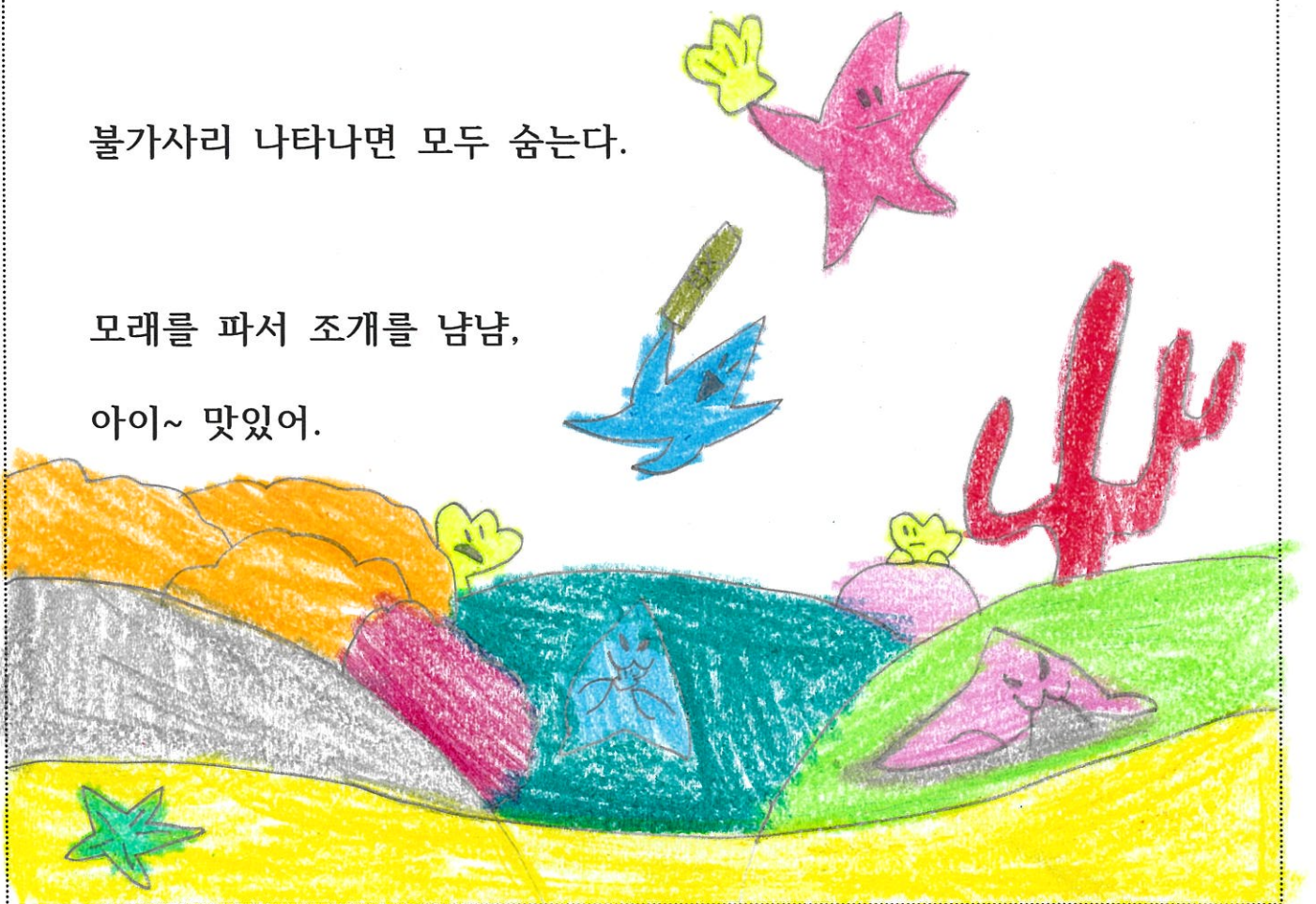
불가사리아, 산호를 괴롭히지마.

산호가 병들잖아.

불가사리 나타나면 모두 숨는다.

모래를 파서 조개를 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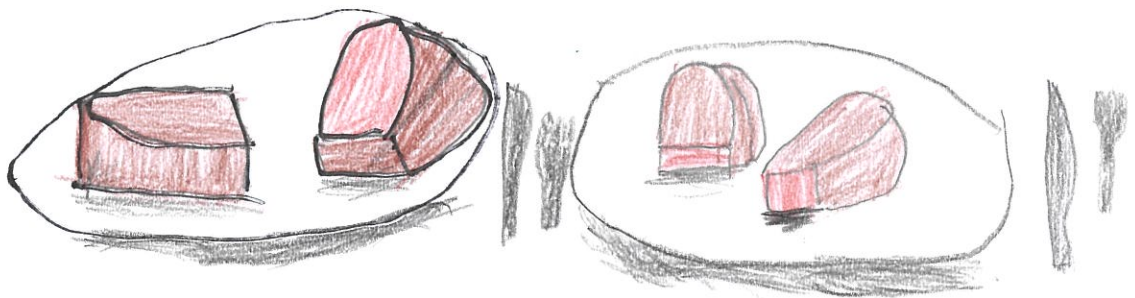
아이~ 맛있어.



오늘 뭐 먹지 3학년 2반 진정현

나는 소고기를 좋아한다 오빠도 아냐
면 바발리 익고 바발리 익어서 고기
의 기름이 얇은 끼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좋아하는 이유 나는 또 김치
랑 구워 찜해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서 다 나는 기름을 못 먹는데
소고기는 기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좋다
까지 또 살치살은 입에서 사르르
녹아서 좋다 아바가 알려준 방법
은 안개가 바발 같고 겉이 잘 익어야
맛있다고 하셨다 소고기는 뜨거울 때 제맛
이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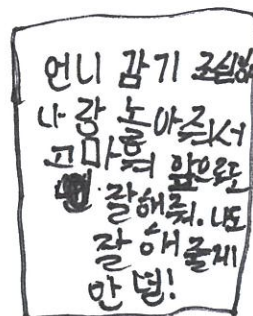
내가 가장 아끼는 것

3학년 2반 정지우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동생이 저한테 처음으로 써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감기가 유행이었는데 언니, 감기 조심해. 등 따뜻한 말들을 적어 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써준 편지 인데도 감동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말을 써준게 고맙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정말 기억속에서도 안 지워질것 같고, 마음속에서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선기전에 그 편지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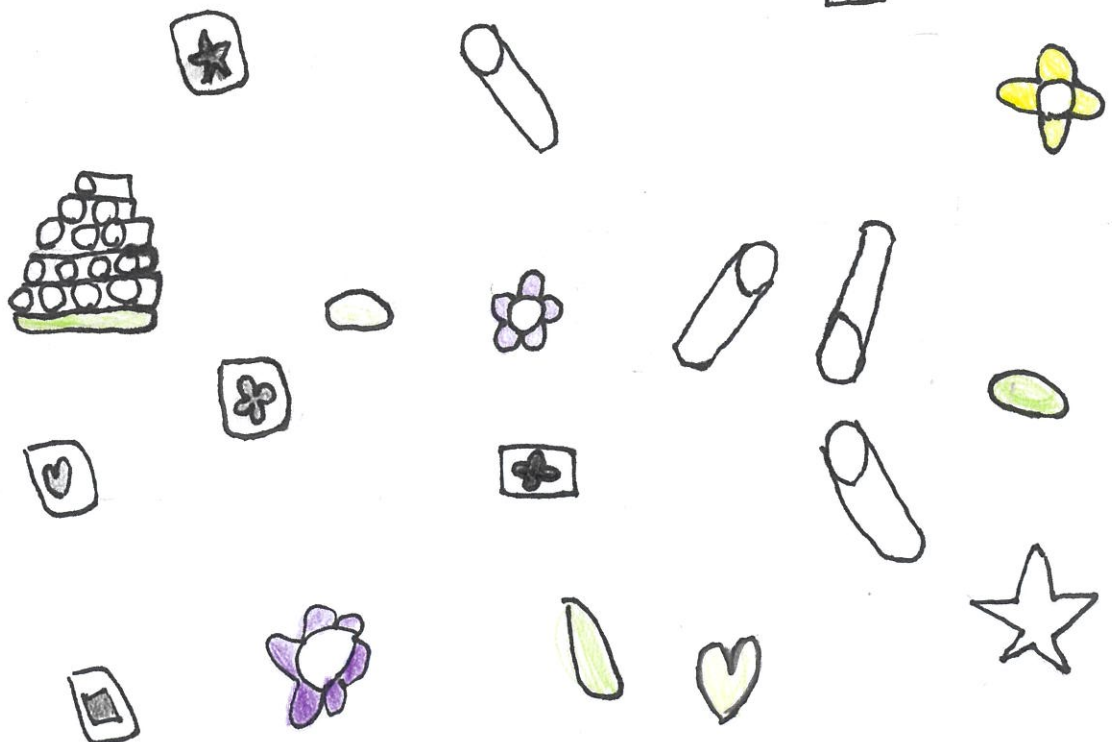


그 당시 편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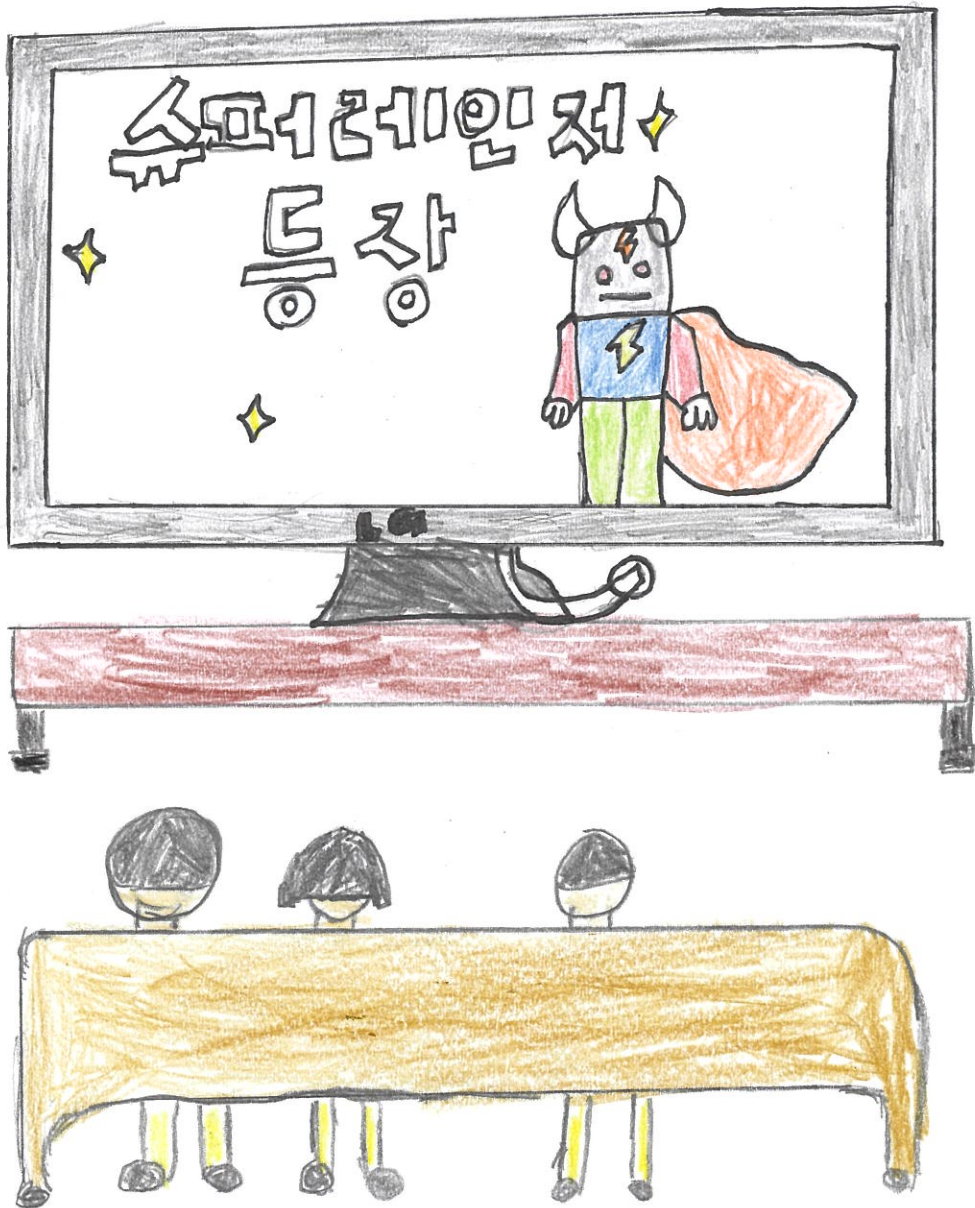


제목: 양순이네 떡집 3학년 2반 안광찬

양순이는 무슨말을 하려고하면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토요일이 양순이의 생일인데 목요일까지 초대장을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양순이가 학교에 가는데 처음보는 떡집이 있었어요. 판판에는 양순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양순이는 떡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사람은 없고 떡 하나만 놓여있었어요. 떡의이름을 말이술술 나오는 떡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격은 검은한숨 길게한번이였어요. 양순이는가려내고 떡을입에넣었어요.그순간 말이하고싶어서 입이간질거렸어요. 양순이는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나눠 주지 못했었어요. 그리고가족들과 공연을연습해서 최고로즐거울생일파티를했어요.제가채미있었던부분은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제목 : 내가 가장 아끼는 것) 3학년 2반 25번 이룸 안공씨
 TV이다 왜냐하면 나는 TV를 주말에만 시청이 가능하고
 나에게 주말마다 즐거움을 주는 물건이고 재미있고 그걸 볼 때
 항상 즐겁기 때문이어서 그리고 텔레비전은 휴대폰보다
 화면이 넓다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채널으로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츠 차 등등 앱으로도 시청
 이 가능하고 편리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충전
 하지만 텔레비전은 콘센트를 꼽아서 이용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하늘에 해가 둘이었대요

3학년 2반 서다운

옛날에는 해가 둘이었대요.

해가 두 개라서 낮에는 너무 밝고 밤이 엄청 깜깜하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여름은 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춥지 않은 겨울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더워서 그런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음식은 금방 다 썩었어요. 썩은 음식을 사먹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썩은 음식을 주면 어떡해요! 환불 해주세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결심했어요.

"그래, 해를 하나 없애보자!"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마침내 방법을 찾았어요. 해를 하나 없애자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 후로 좀 추워지긴 했지만 음식이 썩지않아 장사도 잘되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를 하나 없애 주어서 지금처럼 해가 한 개만 떠 있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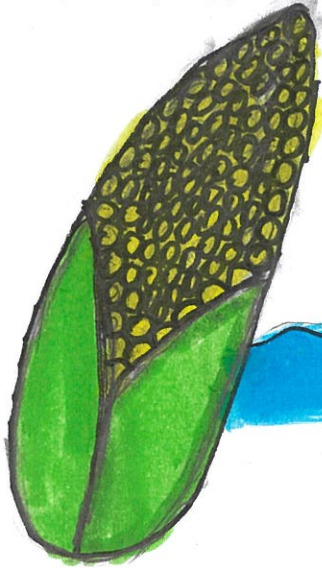




강릉 여행

3학년 2반 예카테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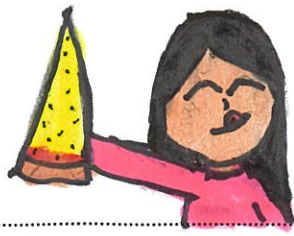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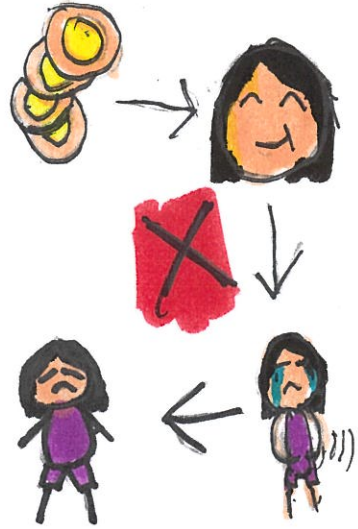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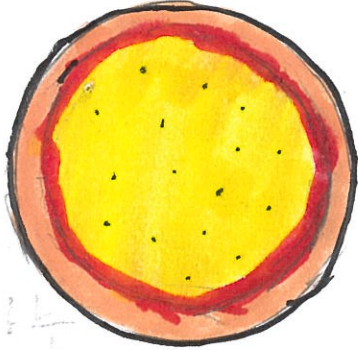
강릉에 가족과 여행했어요. 거기서 수영하고 산책했어요. 바다가 추웠어요. (지금 더 추워요). 그리고 옥수수를 먹었어요. 제 친구도 바다에 왔어요. 로블렉스로 함께 놀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다음 여름을 기다릴 거예요.



오늘 뭐 먹지?

3학년 2반 예카테리나

치즈피자 먹고 싶어요. 맛이 있어서 피자가 좋아요. 색깔이 노랑, 빨강과 갈색이 있어요. 거기 치즈하고 케첩이 있어요. 그런데 피자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피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좀 더 똥똥해져요. 그리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치즈피자 너무 좋아해요.



항상 웃음이 가득한 3학년 3반 글솜씨 자랑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3반

[동시] 탕후루 • 김라희

[동시] 양파 • 김하이

[동시] 킥보드 • 손지우

[동시] 무지개 • 윤설하

[동시] 봄꽃출석 • 이새봄

[동시] 오이 김치 • 이지원

[동시] 보름달 • 이지유

[동시] 여름방학 • 권라온

[동시] 비 • 김수호

[동시] 노란고무줄 • 문우람

[동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 박종환

[동시] 구름 • 서우진

[동시] 언니가 아픈 날 • 윤세아

[동시] 비 • 강세연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미래의 나에게 • 신수아

[미래 30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30년 뒤의 나에게 • 정예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 조현서

[독서감상문] 책이 사라진 날을 읽고 • 김주찬

[뒷 이야기 꾸미기] "오동통 귀여운 동글이 빵"의 뒷이야기 • 송준혁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 이서준

[주제 일기 쓰기] 물텀병

[편지 글쓰기] 어머니께 • 채현태

[30년 후 나에게 편지쓰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을 나에게 • 조현성

[편지 글쓰기] 어머니께 • 이지수

[동시]

탕후루

3학년 3반 김라희

새콤하고 맛있는 탕후루
달콤하고 맛있는 탕후루
아삭아삭 맛있는 탕후루

그 중에서
달콤한 딸기가
난 제일 좋아!

[동시]

양파

3학년 3반 김하이

양파가 옷벗기 싫은가보다

옷벗기 싫어서 나한테 화를
버럭버럭

양파가 화를 내어 내 눈이
따끔따끔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주룩주룩

[동시]

키편보드

3학년 3반 손지우

부릉부릉~
키편보다가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키편보드를 타면 기분이 좋아!

살랑 살랑
바람이 시원해

쌩쌩 달리면
더 시원해♡

[동시]

무지개

3학년 3반 윤설하

피아노학원 끝나고 나오는 길
바닥에 비친 무지개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생긴 무지개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닥에도 있네

참 예쁘다
무지개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동시]

봄꽃 출석

3학년 3반 이새봄

새 학기가 된 봄꽃들에게

나무가 출석을 부른다

"벚꽃"

"네"

"진달래"

"네"

"민들레"

"네"

"개나리"

"네"

다 출석했다

[동시]

오이 김치

3학년 3반 이지원

아삭아삭 오이 김치

어머니께서 해 주신

오이 김치

음 맛있어!

역시

어머니께서 해주신

오이 김치는 맛도 좋지만

소리까지도 맛있다

[동시]

보름달

3학년 3반 이지유

노랗고 동그란 보름달
노른자 같은 보름달

맛있어 보이는 보름달
한입 먹어보고 싶은 보름달

너무 멀리있는 보름달
우주에 있는 보름달

보름달을 먹을 수 있다면...

[동시]

여름방학

3학년 3반 권라운

여름방학에는 물놀이도 하고
여름방학에는 매미도 잡고
여름방학에는 여행도 가고
여름방학에는 시원한 빙수도 먹고
참, 좋다 여름방학!

[동시]

비

3학년 3반 김수호

하늘에서 똑똑오는 비
비구름이 오자
하늘에서 오는 비
귀찮게 우산 써야하는 비
아기가 우는것 같은 비
식물에게 물주는 비

[동시]

노란 고무줄

3학년 3반 문우람

고무고무 고무줄
잘 늘어나고 잘 안 끊어지는
고무줄
무엇을 묶을때 쓰는
고무줄
총을 만들면 잘 날아가는
고무줄
다양한 모양을 만들수 있는
고무줄
신기하고 재미있는
노란 고무줄

[동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3학년 3반 박종환

3월은 봄이다
봄은 따뜻하다
6월은 여름이다
여름은 덥고 벌레가 많다
9월은 가을이다
가을은 시원하다
그리고 12월은 겨울이다
춥고 눈사람도 만들수 있다
나는 겨울이 좋다

[동시]

구름

3학년 3반 서우진

하늘에서 피어나는 구름
큰 구름, 작은 구름

회색 구름, 흰색 구름
여러가지 색과 모양
다양한 구름
모두 모여 구름 모습을 비슷한 모양과 비교해보자

[동시]

언니가 아픈 날

3학년 3반 윤세아

오늘은 언니가
아파 슬프다...

내가 언니를 간호하니
마음이 많이 놓인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동시]

비

3학년 3반 강세연

먹구름이 거뭇거뭇 하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알록달록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우산을 쓰고
웅덩이를 첨병첨병

빗물을 튀며
밟고 지나간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미래의 나에게

3학년 3반 신수아

안녕? 난 수아야. 미래에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
난 나의 꿈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의 꿈은 요리사거든!
요리사는 맛도 알아야 되고 간도 잘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
이렇게 많은 걸 해야 한다고 쉽게 포기하는건 안돼.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전까지 왔는데 포기하는 거는 안되기 때문이야.
포기라는 말이 다들 쉬운줄 알고있지. 아니 정 반대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따라가보고 노력하면서 꿈을 이루어 보자! 그럼 안녕👋

[미래 30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

30년 뒤의 나에게

3학년 3반 정예하

안녕??? 미래의 예하야~ 난 10살의 예하야~ 지금의 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뤘니?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전시회도 열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니?
건강은 어때? 엄마 아빠는 아픈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30년을 즐겁게
보냈을 거야~ 앞으로도 엄마 아빠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40살의 예하야, 안녕!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3학년 3반 조현서

안녕 현서야? 난 방학 숙제를 하면서 느꼈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뭘질 생각했어. 생각해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화가, 내가 좋아하는건 놀기, 게임하기! 난 왜 화가가 되고 싶은지
알아? 난 처음에 화가가 하고싶었어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했지 그러다
보니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어. 그제서야 알았어. 내가하고 싶은
장래희망을 위해 노력과 꾸준히 연습해야하는것을!
만약 미래에 화가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 같아.

[독서감상문]

책이 사라진 날을 읽고

3학년 3반 김주찬

안녕하세요 김주찬입니다. 이번에 독서감상문으로 작성한 책의 제
목은 '책이 사라진 날'입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은 어느 날, 꿈속
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있는 장면이 나오고 깨어나보니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깨고 나니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했는데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항복한다는 선언문을 TV에 나와서 방송 했습니
다. 외계인들의 포고령은 '1.지구 인들은 허락없이 자신이 살고있
는곳을 떠날수 없다. 2.지구인들은 더이상 책과지식 정보를 모을수
없다. 3.지구인들은 자신이버는 반을 돈으로 바쳐야 한다. 라는 포

고령이 내려졌는데 책을 좋아 하던 상진이와 민지는 청천벽력 같
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우진이는 좋다고
펼쩍펼쩍 뛰었습니다. 곧, 동네마다 책이 산처럼 쌓였고 TV에서 책
을 가까이 하면 미생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
계인이 '상진 선생님아 나는 이제 결혼해서 애기 다섯개 낳았다 선
생님은 아직 민지 선생님과 결혼 안 했냐? 애기는 몇개 낳았냐?
사진 찍은거 있으면 보내라 그럼 안녕!'이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뒷 이야기 꾸미기]

"오동통 귀여운 동글이 빵"의 뒷이야기

3학년 3반 송준혁

여우에게 잡아먹혀 버린 동글이 빵은 입속의 침 폭포 덕분에 안전
하게 식도를 지나 위로 왔어요.

그때 간이 말했어요.

"너의 설탕을 없애서 소화해버리겠다!"

그때 동글이 빵이 말했어요.

"대신 나의 멋진 노래를 들을래?"

그때 간이 말했어요.

"그래, 좋아!"

"나는 야 오동통 귀여운 동글이 빵~

똑똑하고 재미 장난꾸러기~

굴러보자 데굴! 이리저리 데굴!

구르고 달려서 구르고 달려서~

이제는 네 곁도 떠나가야지~

도르르 도르르, 데구루루 데구루루!"

동글이 빵은 어딘가로 굴러갔어요.

동글이 빵은 소장을 지나 대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동글이 빵이 대장균을 만났어요.

대장균이 말했어요.

"너를 세균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동글이 빵은 또 노래를 부르며 도망갔어요.

또다시 동글이 빵은 어딘가로 데굴데굴 굴러서 똥구멍으로 나왔어요.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3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3학년 3반 이서준

안녕? 나는 30년 전에 너야!

지금 나는 방학숙제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넌 나중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거야.

엄마보고 누나보고 아빠보고 그러면서 효도해야 해.

아~참, 아프지 말고 미래에는 돈 많이 벌어서 무슨 건물까지 있는지 알려줘.

30년 전의 서준이가 미래의 서준이에게

[주제 일기 쓰기]

물텀벙

3학년 3반 이하준

낮에 나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 물텀벙을 갔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소나기가 왔다.

나는 아구찜이 매워서 볶음밥을 먹었다.

다 먹고 나중에 또 배가 고파서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좋은 하루였다~

[편지 글쓰기]

어머니께

3학년 3반 채현태

엄마~~저현태예요.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고싶은것도 할수있게 해주시고

저 건강하게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엄마 말잘듣는 현태가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게임도좋이구요.

엄마 사랑해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현태올림

[30년 후 나에게 편지쓰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을 나에게

3학년 3반 조현성

안녕! 나야!

내 장래희망은 축구선수인데, 지금 너는 무슨 일을 할지 정말 궁금해. 20년전에 군대갔다왔을때 힘들었지?

힘들었을거야.

엄마아빠도 잘 살아계시면 좋은 것만 해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볼게!

잘지내고있어!

[편지 글쓰기]

어머니께

3학년 3반 이지수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수예요.

저랑 많이 싸우긴 하지만, 전 언제나 엄마를 사랑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하고, 고마워요.

엄마 사랑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토요일

이지수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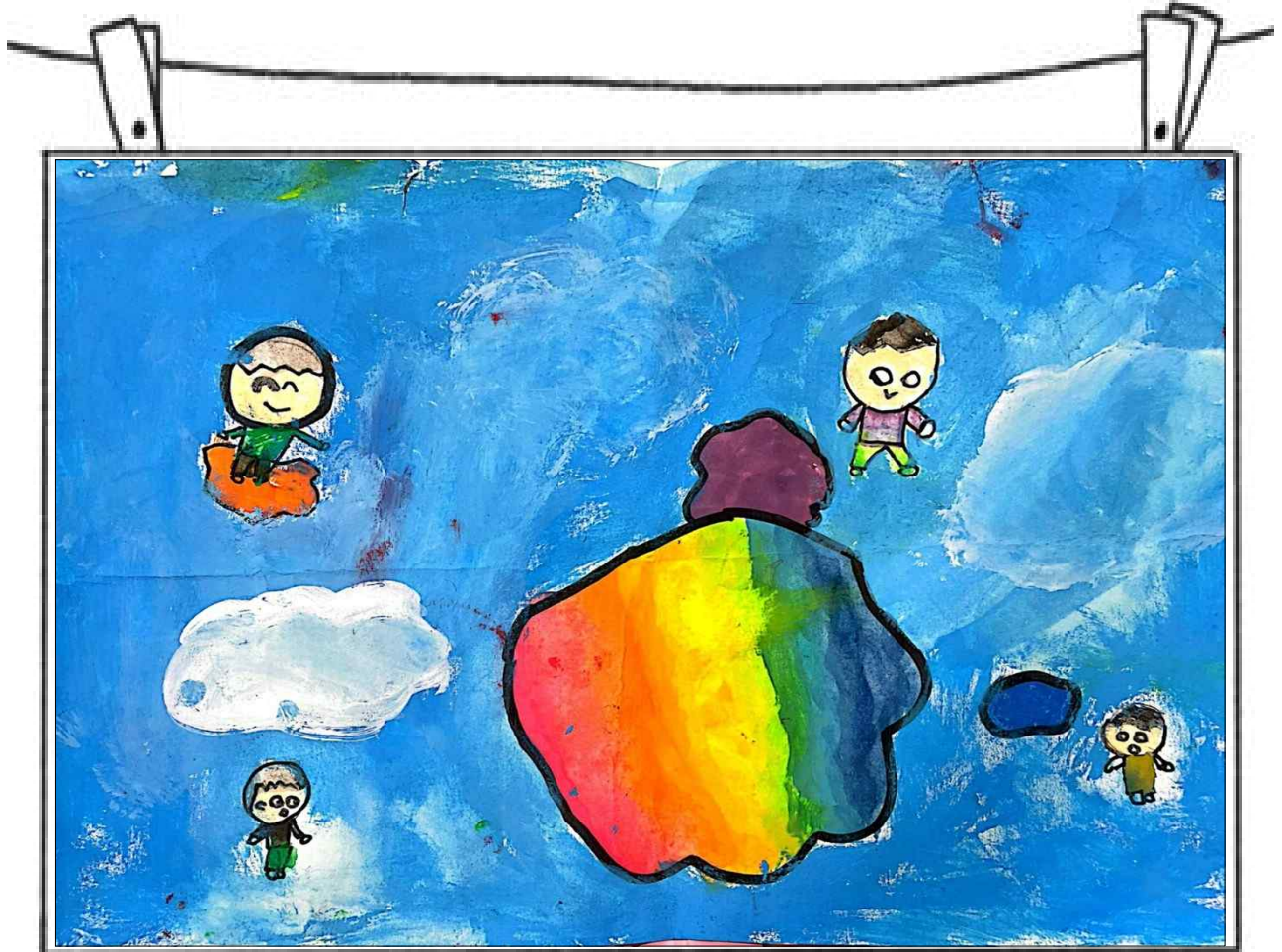
해처럼 밝고 별처럼 빛나는 3학년 4반 글솜씨 자랑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4반

- [상상하여 그리기] 구름 세상 • 윤시후
[상상하여 그리기] 12신단의 회의 • 이승찬
[상상하여 그리기] 고래와 하늘여행 • 양서아
[상상하여 그리기] 상상꽃 캠핑장 • 전연우
[상상하여 그리기] 외계인 마을 • 조예린
[상상하여 그리기] 수박화채 수영장 • 황보선우
[감상문] 송암미술관을 다녀와서 • 서가은
[동시] 이게 무슨 소리지? • 정마야
[동시] 매미 • 박수현
[동시] 여름 • 이하운
[독서감상문]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 김설희
[일기] 계곡에 놀러간 날 [동시] 라면 • 윤태현
[감상문] 거제도 포로수용소, 인천상륙작전 박물관을 다녀와서 • 백강민
[감상문] 국립생물자원관에 다녀와서 • 홍은준
[동시] 신나는 여름방학 • 전시현
[책 소개하기] 민들레의 여행 • 정루아
[책 소개하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 이유성
[동시] 부침개 • 이건오
[동시] 구름 • 이라운
[일기] 고양이 카페 • 박해론
[동시] 연필 • 김하랑
[편지] 사랑하는 아빠에게 • 박시은
[일기] 광명동굴에 간 날 • 김도현
[독후활동] 만복이네 떡집을 읽고 • 김희찬
[일기] 아빠와 라면먹은 날 • 김태운
[독후활동] 고래를 삼킨 바다쓰레기에 나오는 고래에게 • 박건우

구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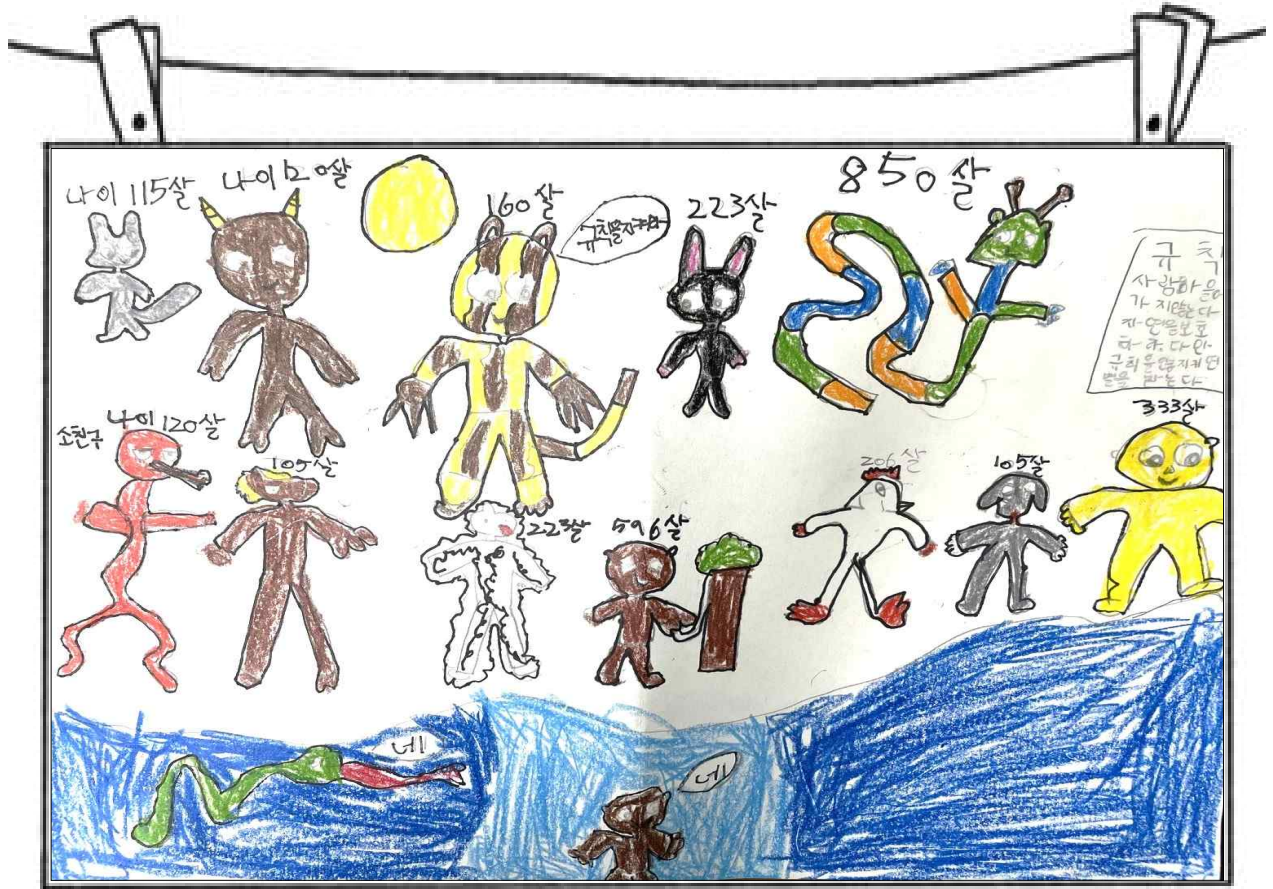
3학년 4반 윤시후



어느 곳에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신기한 생각을 해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에 색깔이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부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방법을 발견했어요. 구름에 물감을 색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실험을 뽐내보기로 했어요. 남자가 구름에 실험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구름은 사람들 사이로 내려오더니 사람들은 구름을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구름을 만지자 구름과 같이 동실 떠 올랐어요. 사람들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 날은 그곳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날이 되었답니다.

12신단의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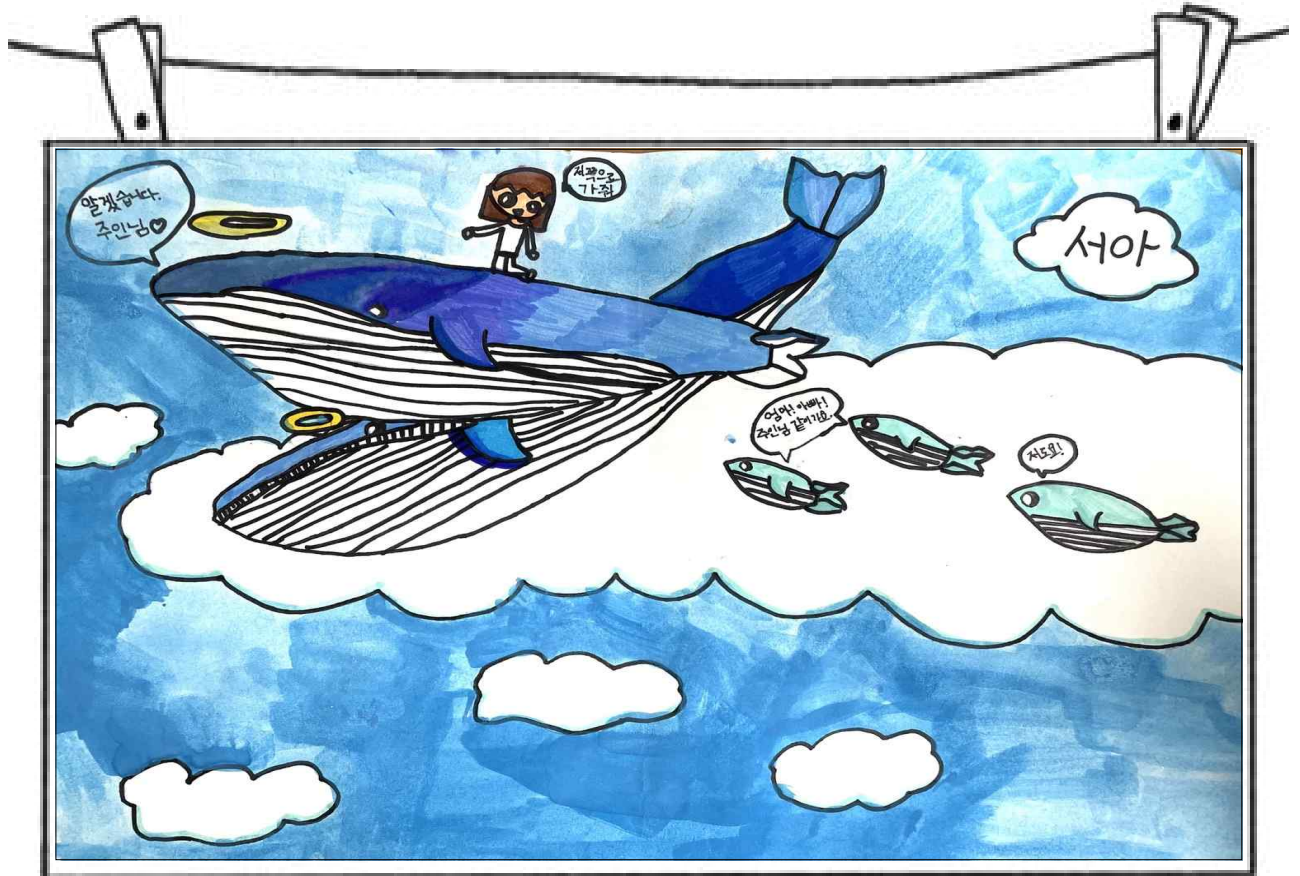
3학년 4반 이승찬



2000년 전 12신단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쥐는 영리하고 장난기가 많았고, 소는 힘이 세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힘이 세고, 토끼는 빠르고 용은 길고 나이가 제일 많았지요. 뱀은 길고 독이 강하고, 말은 빠르고 물 위를 뛰어갈 수 있었어요. 양은 복슬복슬해서 동물을 치료해주고, 원숭이는 피가 많아 높은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눈사태가 났을 경우 나무에 올라 친구들을 구해낼 수도 있었어요. 닭은 달걀을 낳아 동물을 치료하고, 개는 가장 인기가 많고 힘이 셨어요. 돼지는 많이 먹었지만 참을성이 많았지요. 그리고 어느날 밤 12신단이 동물들을 불러모아 말했어요. 규칙은 '사람들 마을에 가지 않는다. 자연을 보호한다. 사람들이 동물들 마을에 쳐들어오면 우리를 불러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였어요. 100년 후 사람들이 동물 마을을 정복했어요. 그러자 12신단이 동물들을 없애면 너희는 식량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과 동물들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들을 괴롭힌다면 12신단이 언제 또 내려와 경고를 할지 몰라요.

고래와 하늘 여행

3학년 4반 양서아



6월 4일에 고래와 고래의 주인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 멀어 고래를 타고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고래들은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서 뒤로 뒤쳐집니다. 어미고래와 아빠고래는 구름 사이로 뽕뽕 지나가며 주인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아기고래들은 영차 영차 힘껏 하늘 위를 헤엄치며 날아갑니다. 날씨가 맑은 날. 하늘 위를 보세요. 구름 사이로 고래들이 떠다니는 모습을 운이 좋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상꽃 캠핑장

3학년 4반 전연우



만약 꽃이 커진다면?

냄새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꽃이 침대처럼 커져서 꽃 위로 사람들은 올라가서 잘 수도 있어요. 상상꽃으로 만든 캠핑장이 생겨날거예요. 그곳에서는 한 꽃침대에 5명까지 잘 수 있어요. 하루 숙박당 10000원을 내면 되고, 잠을 자지 않고 놀다가 갈 수도 있답니다. 상상꽃 캠핑장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그것은 꽃들의 거름이 되요. 꽃은 더 튼튼하게 자라요. 향기로운 꽃냄새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 보아요. 일어나면 어느새 몰려온 곤충과 동물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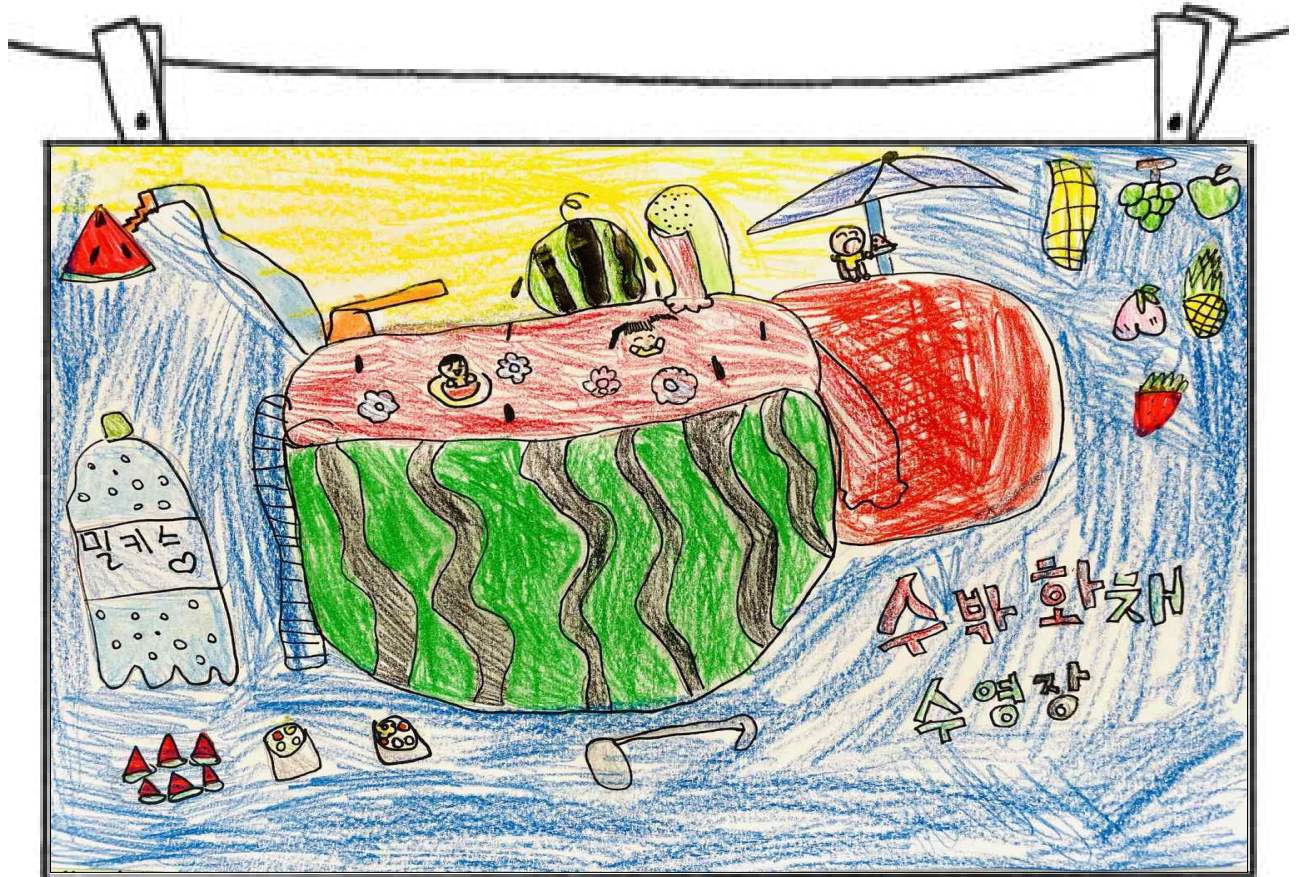
3학년 4반 조예린



외계인같이 귀가 뽕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피그 아저씨와 뽕족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뽕족이와 피그아저씨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그것은 과일을 먹으면 먹은 과일 색깔로 피부색이 변하는 재주였지요. 하루는 과일가게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뽕족이는 초록색 사과를 먹고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피그아저씨는 수박을 껍질 채 먹어서 빨강, 검정, 초록 피부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뽕족이와 피그아저씨를 신기하게 구경했지요. 사실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뽕족이와 피그아저씨는 포도를 한아름 사서 돌아갔어요. 집에 간 뽕족이와 아저씨는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겠군요.

수박화채 수영장

3학년 4반 황보선우



어느 날, 사람들이 수박을 꺼내 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수박은 좀 특별했지요. 사람들이 수박 안으로 들어갈만큼 거대했어요. 빨간 수박 속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수박 물이 차올라 수영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신이 나서 수박 안에서 수영도 하고 과일도 먹었지요. 그렇지만 곧 사람들은 심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수박 화채 수영장 안에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박으로 음료수, 딸기, 복숭아, 포도, 사과, 파인애플, 국자, 파라솔 등을 만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수박 화채 수영장에 많이 놀러오겠지요?

[감상문]

송암미술관을 다녀와서

3학년 4반 서가은

여름방학에 친구와 송암 미술관을 관람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활동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았고, '신중도' 특별전시실에서는 휴대폰으로 증강현실 속 '신중도'라는 AR 미션 문제도 풀어보았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우리 학교에도 VR체험실이 있는데 꼭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션 문제를 열심히 잘 풀었다고 미술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필통을 선물로 주셨다.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미술관이 있다니!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동시]

이게 무슨 소리지?

3학년 4반 정마야

부릉 부릉 부아앙!
이게 무슨 소리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북극곰 보금자리 없애는 소리

푸슈슁!!
이게 무슨 소리지?
에어컨에서 나온 프레온 가스가
오존 잡아먹는 소리

위잉위잉~
이게 무슨 소리지?
공장에서 나온 매연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소리

음메~ 음메~
이게 무슨 소리지?
가축들이 만든 메탄 가스가
사막에 홍수 만드는 소리

내가 싫어하는
네 가지 소리

[동시]

매미

3학년 4반 박수현

아침에 눈을 떠보니
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엠~~ 엠~!!

소리 따라 가보니
매미 세상

손을 뺐은 순간
달아난 매미

하지만
내 뒤에도 매미
그 위에도 매미
그 옆에도 매미

여기는
매미 세상

[동시]

할머니 집

3학년 4반 이하운

여름에 놀러간
할머니 집에는
수박도, 옥수수도 한가득

밖에 나가면 매미가 맴맴
강아지가 멍멍

또 가고 싶은 할머니 집

[독서감상문]

으악 도깨비다!를 읽고

3학년 4반 김설희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3학년 국어책에 나온 이야기가 책으로 있어서 골라서 읽었다. 책 내용은 장승들이 낮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밤이 되면 움직여 장승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을 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장승들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움직이지 못한다. 어느날 또 밤새도록 장승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아침이 밝아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때 멧쟁이가 없었다. 장승들이 멧쟁이를 한참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멧쟁이는 좋은 나무를 구하려는 도둑들에게 잡혀가 트럭에 실려 끌려가고 있었다. 장승들이 모두 힘을 모아 멧쟁이를 구했다. 장승들은 평소에 못살게 군 멧쟁이에게 사과를 했고, 멧쟁이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다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장승들이 다시 모두 친해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친구를 구한 장승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나도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기]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날씨: 맑음

계곡에 놀러간 날

3학년 4반 윤태현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출발했다. 너무 피곤했지만 설렘이었다. 일단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아빠가 텐트를 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었다.

얇은 계곡에 들어가 고동 6마리도 잡았다. 자연 워터슬라이드도 탔다. 워터슬라이드는 정말 최고였다.

계곡에서 캠핑을 하다가 옆에 온 어떤 형과 친해졌는데 함께 물놀이도 신나게 했다. 그리고 놀다가 뱀도 발견하게 되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신기했다. 올해 마지막 물놀이가 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

[동시]

라면

3학년 4반 윤태현

상상만 해도 군침이 나는 너
날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너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너

후루룩 짹짹 난 너가 너무 맛있어



[감상문]

거제도 포로수용소, 인천상륙작전 박물관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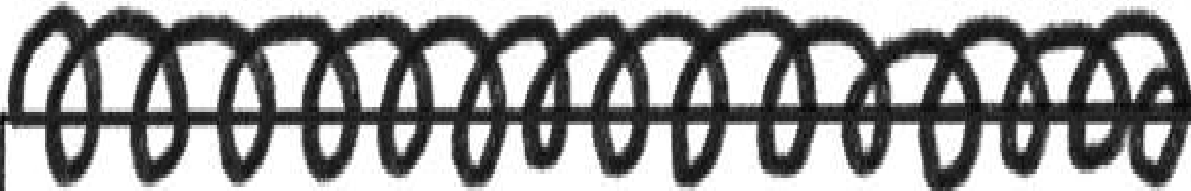
3학년 4반 백강민

나는 방학동안 6.25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 두곳을 다녀왔다. 먼저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에서는 전쟁 때 잡힌 포로들의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갇혀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불쌍했다. 그리고 '가족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며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을 것 같다.

인천상륙작전박물관에서는 전쟁 때 사용한 무기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당시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어서 더 생생하게 전쟁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6.25 전쟁 때 참전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훈장도 받아서 지금은 현충원에 계신다. 그 끔찍한 전쟁에서 목숨바쳐 싸워주신 군인 아저씨들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감상문]

국립생물자원관에 다녀와서

3학년 4반 홍은준

오늘은 국립생물자원관에 갔다.

이곳에서 본 작품은 동물, 원생동물, 고균, 세균, 균, 식물, 유색조식물 등을 봤다. 동물 중에는 왜문어, 까막 딱따구리, 반달가슴곰 등을 보았고, 원생동물로는 녹색 짙은 벌레 등을 봤다. 또 고균과 세균 중에는 맥타노 콕쿠스 얀나스키와 대장균, 균 중에서 테두리 방귀 버섯, 송이 등을 봤다. 버섯 이름이 너무 재미있었다. 버섯과 곰팡이가 균에 속한다는 것도 알았다. 식물 중에서는 주목, 소나무, 쇠뜨기 등을 관찰했고, 유색조 식물은 미역, 크립토모나스오바타, 아이소크라이시스 갈바나 등을 봤다.

동물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척삭동물, 극피동물, 절지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전시된 동물들을 보다 가 백색증에 걸린 까치도 보았다. 백색증은 몸이 다 하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다. 그래서 까치의 색이 다 하얀색이었다. 이렇게 놀라운 변이 생물체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웠다. 변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모양과 색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동시]

신나는 여름방학

3학년 4반 전시현

여름방학이 와요.
엄마와 함께
바다에 여행가는 상상을 해요.

공부시간에도
엄마와 모래놀이 상상을 해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책 소개하기]

『민들레의 여행』

3학년 4반 정루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4반 정루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민들레의 여행'입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민들레가 여행하는 장면이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은 장면은 민들레 씨앗이 지하 주차장에도 가고, 무더운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바람이 부는 날에도 훨훨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흙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생명의 소중함과 민들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꼭 추천합니다.

[책 소개하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3학년 4반 이유성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4반 이유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바다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되어있어요. 바다에서 살아남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이유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웃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한 가족이 바다에 놀러가서 보트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보트가 고장나 폭발하는 바람에 큰 구조텐트에서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살아남는 장면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시]

부침개

3학년 4반 이견오

맛있는 냄새 나서 가보니
부엌에서 부침개가 지글지글

야채전, 감자전, 김치전
내가 좋아하는 부침개가 한가득

빨리 먹어야지

[동시]

구름

3학년 4반 이라운

구름이 똥똥 떠가요.

구름을 만져보면 보들보들

구름은 마치 안개처럼 하얗고 뽀얗요.

보송보송한 구름을 만지면
어떤 기분일까?

구름 이불을 덮고 자면
무슨 기분일까?

[일기]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날씨: 맑음

고양이 카페

3학년 4반 박해론

오늘은 교회가 끝나고 고양이 카페에 갔다. 거기에서 음료수와 츄르를 샀다. 2층에 올라가니 거기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3층에 올라가니 거기에 드디어 고양이 10마리가 넘게 있었다. 고양이들에게 츄르를 줬더니 엄청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옆 건물로 갔는데 거기에는 엄청 뚱뚱한 라쿤이 있었다. 그 라쿤은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빠 머리를 때렸다. 나와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

또 그곳에서 기니피그와 앵무새도 보았다. 앵무새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고 시끄러웠다. 4층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많았다.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있었는데 몇 살이나 되었을지 궁금했다.

오늘 하루는 동물들과 함께 한 날이다.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고싶다.

[동시]

연필

3학년 4반 김하랑

연필은 걸어가
자리잡고
또박또박 글씨, 예쁜 글씨
엉망진창 글씨, 미운 글씨
하루종일 일하고
필통으로 쭉
잠자리 들어가네



[편지]

3학년 4반 박시은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빠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매일 그 날이 어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는 미국에서 우리 가족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빠가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와 같이 미국에서처럼 놀이공원도 가고, 놀이터에서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고,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정원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아빠만 혼자 미국에 계셔서 슬펐어요. 그래도 대신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 많이 해주셔서 괜찮아요.

아빠가 빨리 한국에 오실 날만을 기다려요.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신나게 놀아요. 아빠한테 우리 반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딸 시은 올림

[일기]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날씨: 맑고 더움

광명동굴에 간 날

3학년 4반 김도현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함께 동굴에 갔다.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동굴에 들어가니 엄청나게 시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도 동굴을 구경하려고 많이 오는가 보다. 우리가 간 날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우리는 동굴에서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전시물과 깜깜한 동굴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들도 구경했다.

한참 동굴 안에 있다 보니 너무 추워져서 잠바를 입었다. 내 동생은 계단이 무섭다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계단 손잡이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동생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다. 겨우 다녀온 후 동생은 계단이 무섭다며 다음부터는 가지 말자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다. 동굴 탐험이 꽤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또 와보고 싶다.



[독후활동]

만복이네 떡집을 읽고
- '내가 만들고 싶은 떡은?' -

3학년 4반 김희찬

떡 이름	떡 모양(그림 그리기)	떡을 먹으면 생기는 능력	가격
소떡, 소떡		입이 시원하다	애들 웃음 1개
떡볶이		당분량이 적다	애들 웃음 5개
백설기		마음이 행복해진다	애들 웃음 10개
차차떡		다리가 잘 다	애들 웃음 60개
시루떡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애들 웃음 100개



[일기] 2024년 9월 8일 일요일 날씨: 맑음

아빠와 라면먹은 날

3학년 4반 김태운

아빠와 차를 타고 송도에 있는 롱비치 파크에 가서 한강에서 파는 한강 라면도 먹고 인천대교도 보았다. 밖에 나와서 라면을 먹으니 꿀맛이었다. 롱비치 파크에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아서 송도에서 영종도까지 다 보였다.

롱비치 파크에서 산책을 마치고 아빠 회사로 갔다. 아빠는 영종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신다. 아빠 회사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다. 내가 가면 배를 뒤집고 누워서 애교를 부린다. 아빠 회사에서 나와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자동차 게임도 하고 TV도 보았다.

남자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엄마와 누나는 영화관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 엄마가 안계셔서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다.

아빠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또 아빠와 재밌는 주말을 보내면 좋겠다.



[독후활동]

‘고래를 삼킨 바다쓰레기’에 나오는 고래에게

3학년 4반 박건우

고래야 안녕?
너는 쓰레기를 삼켜
안타깝게 죽었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꼭 쓰레기도 삼키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 고래야.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은 삶을 살길 바라.

그리고 너는 참
좋은 고래였단다.

그럼 안녕~

나는 널 응원해
다시 태어나면 오래오래 살아



사랑을 키우는 3학년 5반 글솜씨 자랑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5반

- [상상하여 그리기] 행복이의 하루 • 정기문
- [상상하여 그리기] 바나나 놀이터 • 이효주
- [상상하여 그리기] 원상 복구되는 과일 • 박예린
- [상상하여 그리기] 빼약이 형제 • 송단비
- [상상하여 그리기] 파인애플 놀이터 • 전가울
- [상상하여 그리기] 수박 워터파크 • 윤서영
- [상상하여 그리기] 인어공주와 무지개 • 최재연
- [상상 이야기] 동그란 괴물들의 세계 • 박서진
- [동시] 아쿠아맨 • 김승빈
- [동시] 뭐든 잘하는 내 동생 • 박세은
- [동시] 비 오는 날 • 최지안
- [동시] 빗길은 • 임다운
- [동시] 여름 • 남연서
- [동시] 앵두 • 이희윤
- [동시] 우산 비 • 김소윤
- [동시] 가을 느낌 • 김지유
- [동시] 우리집 도마뱀 • 안세연
- [동시] 있는 그대로의 너 • 임예은
- [동시] 자동차 • 유태호
- [동시] 가을 • 강지울
- [동시] 레고 • 인병건
- [동시] 레고 • 김민호
- [일기 글] 서울에 갔다 • 김정윤
- [일기 글] 바닷가를 간 아빠랑 나 • 최효준
- [일기 글] 재미있었던 워터파크 • 이시윤
- [일기 글] 비 오는 날 • 강승후
- [독서감상문] 첫 나라를 연 단군 할아버지 • 김지후

행복이의 하루

3학년 5반 정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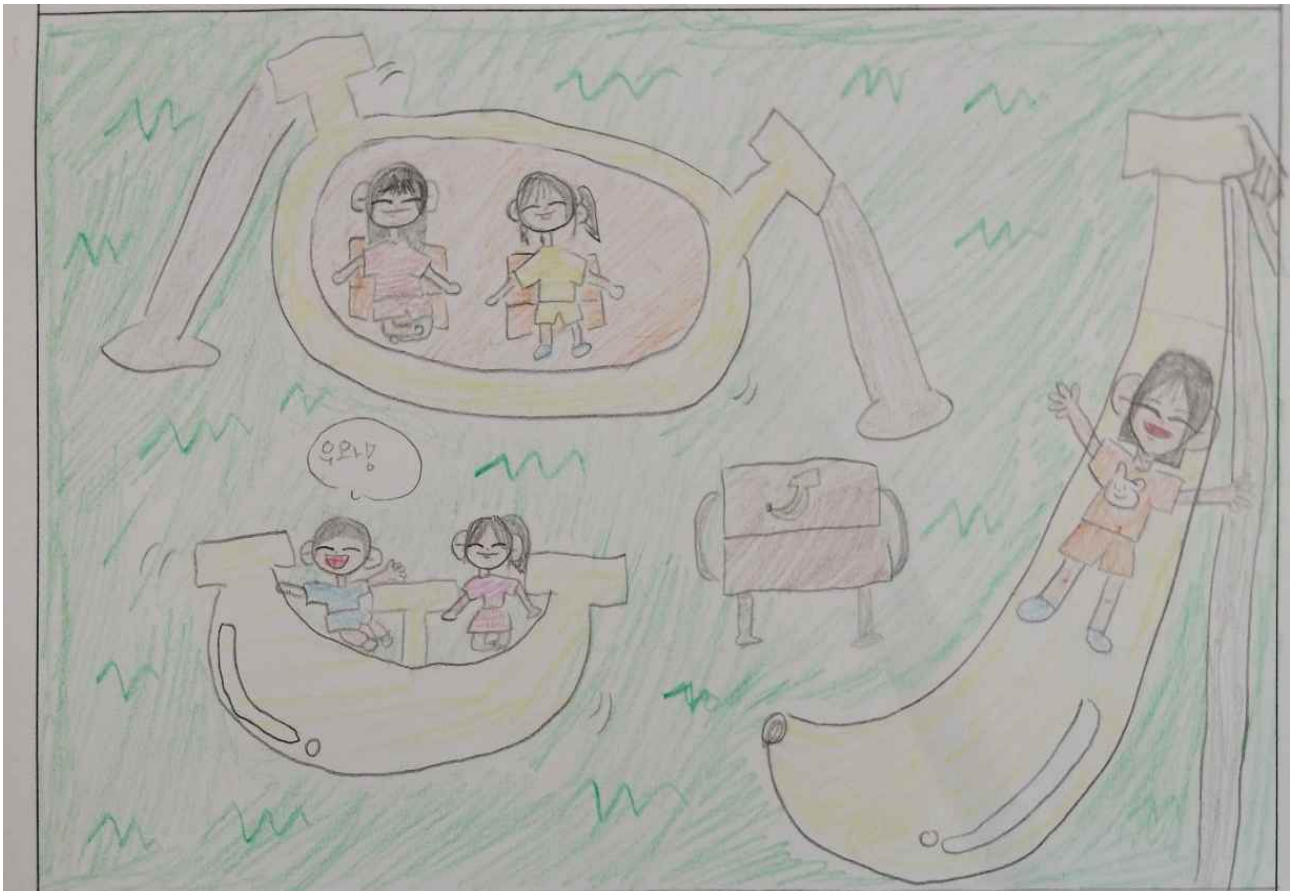


안녕? 난 최 행복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햄스터야, 그리고 여기서 커즈! 난 수컷이제, 아니면 암컷이게? 두구두구두구~ 바로 암컷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나의 하루를 알려 줄게! 알겠지? 내가 처음에 이 집에 오기전. 난 (예전 집에서) 자고있었어. 근데 밖에서 "엄마! 이 햄스터 귀여워요!" 하길래, '날 어떻게 봐지?' 나는 좀 무서웠지 그래서 나왔더니! 내 옆에 있는 아기 햄스터를 보고 말한거였지 난 타행이다! 생각했지. 근데 네 주인이 와서 "아~이 햄스터는 안돼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햄스터 데려가야 하는데...관찮...!" "뭐! 나!!!" 나를 데려간다 해서 정말 기뻐졌지! 그러자 그 인간이 더 큰 인간에게 "헉...어? 엄마! 이 햄스터도 귀여워요!" "그레? 어디 보자...오! 정말 귀엽네! 색깔도 딱! 내 취향이이고...애는 어떡하니?" "흠... 애도 관찮네요! 애로 사가요!" "오예!" 드디어 날 데려간다는 소식이 정말 기뻐졌지. 그러자 주인이 "애로 사갈거죠?" 그래서 작은 인간이 "네! 개로 주세요!" 라고 했다. 난 너무 기뻐졌다. 주인은 날 감감한데 넣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덜컹덜컹커리고 부릉부릉 소리가 나는아, 낫다. 계속 그러다 덜컹덜컹소리도 멈추고 부릉부릉, 덜컹거리지도 않았지만 '이제 끝난나?' 싶었지. 하지만 내 예상 마창가지였어. 내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아.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 집이니깐~!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보통? 어쨌든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왔고, 요즘은... 나한테 사랑을네!~! 무 많이 준다니까!! 이뽕이 인기란~ 그리고 요즘 하루는 채바퀴도 돌리고! 밥도 먹고! 똥도 싸고요 똥도 싸외 잘지 내! 그럼 안녕!~

- 끝 -

바나나 놀이터

3학년 5반 이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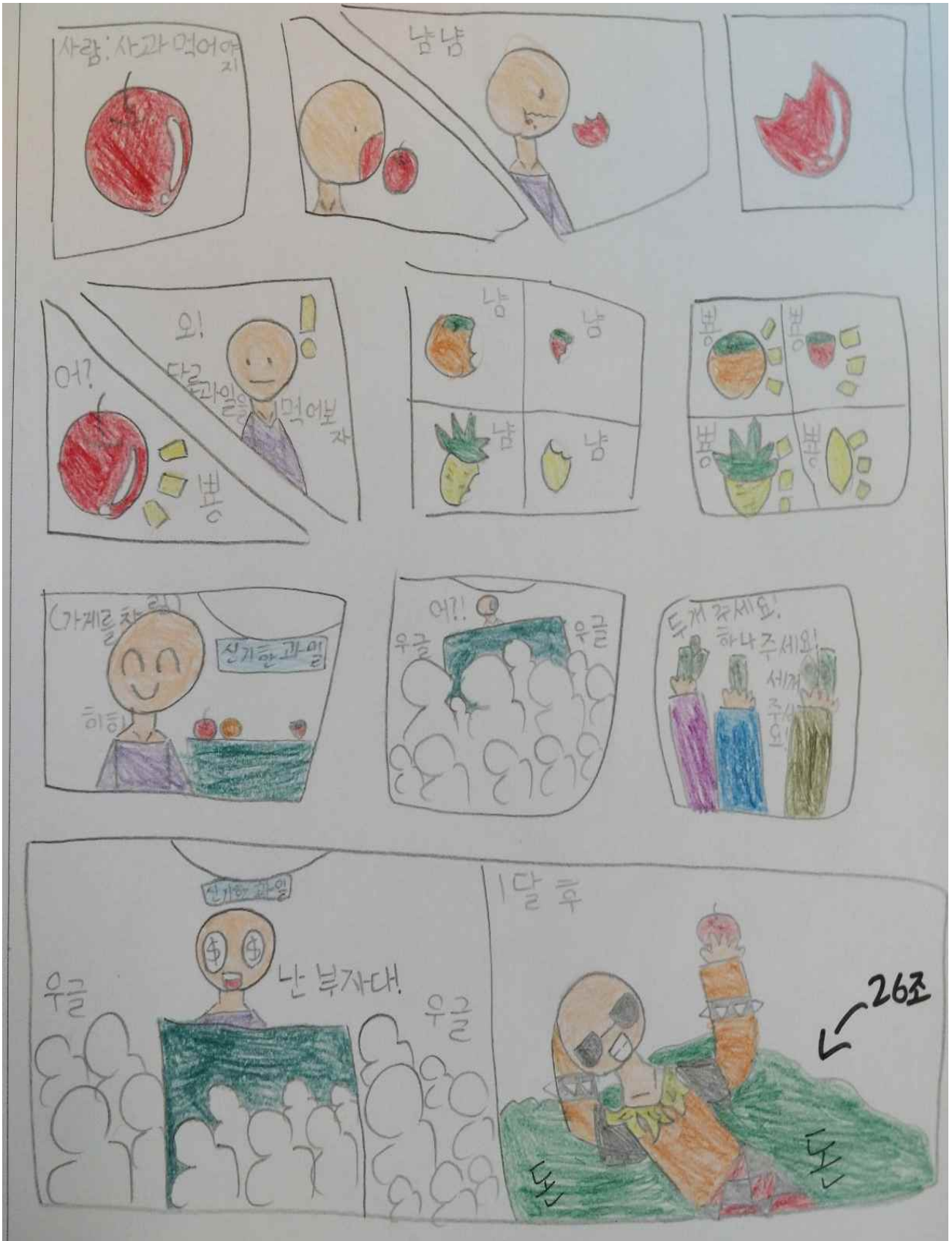


우리 바나나 놀이터는 바나나처럼 만들어진 놀이터입
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첫번째는 바나나 피
크럼틀입니다. 두번째로 좋아하는 시소는 회전
을 할 수 있는 시소입니다. 세번째는 바나나 모
양으로 되어있는 바나나 바이킹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바나나 바이킹을 탑니다. 우리 바나나
놀이터로 많이 놀러 오세요! ♥

[상상하여 그리기]

원상 복구되는 과일

3학년 5반 박예린



삐약이 형제

3학년 5반 송단비



옛날에 누구보다 사이 좋은 삐약이 형제가 있었어요. 삐약이 형제는 학교도 같이 가고 동생이 먼저 끝나면 형을 기다리고 형이 먼저 끝나면 동생을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삐약이 형제는 밥을 먹을 때 이것저것 이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밥을 먹을 때만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삐약이 형제가 왜 이러나 싶어요. 그래서! 삐약이(동생)한테 물어보았더니 삐약아! 삐약아, '왜?' 삐약이 친구, '요즘 무슨 일

있어? 삐약아, '응...' 삐약이 친구, '무슨 일?' 삐약아, '사실... 요즘 아버지가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어...' 삐약이 친구, '미안...' 내가 고민히 물어보아서, 삐약아, '고민하지 마. 삐약이 친구, '좋은데로 가서 갈게야... 형내!' 삐약아, '고마워!' 삐약이 친구, '근데 왜 형이랑 사이 안 좋아했어?' 삐약아, '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슬퍼서 아무튼 내일 봐! 삐약이 친구 만명! 형 슬프다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원래대로 돌아오자! 그래네 말야 말야. 이렇게 되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

아쉽다

[상상하여 그리기]

파인애플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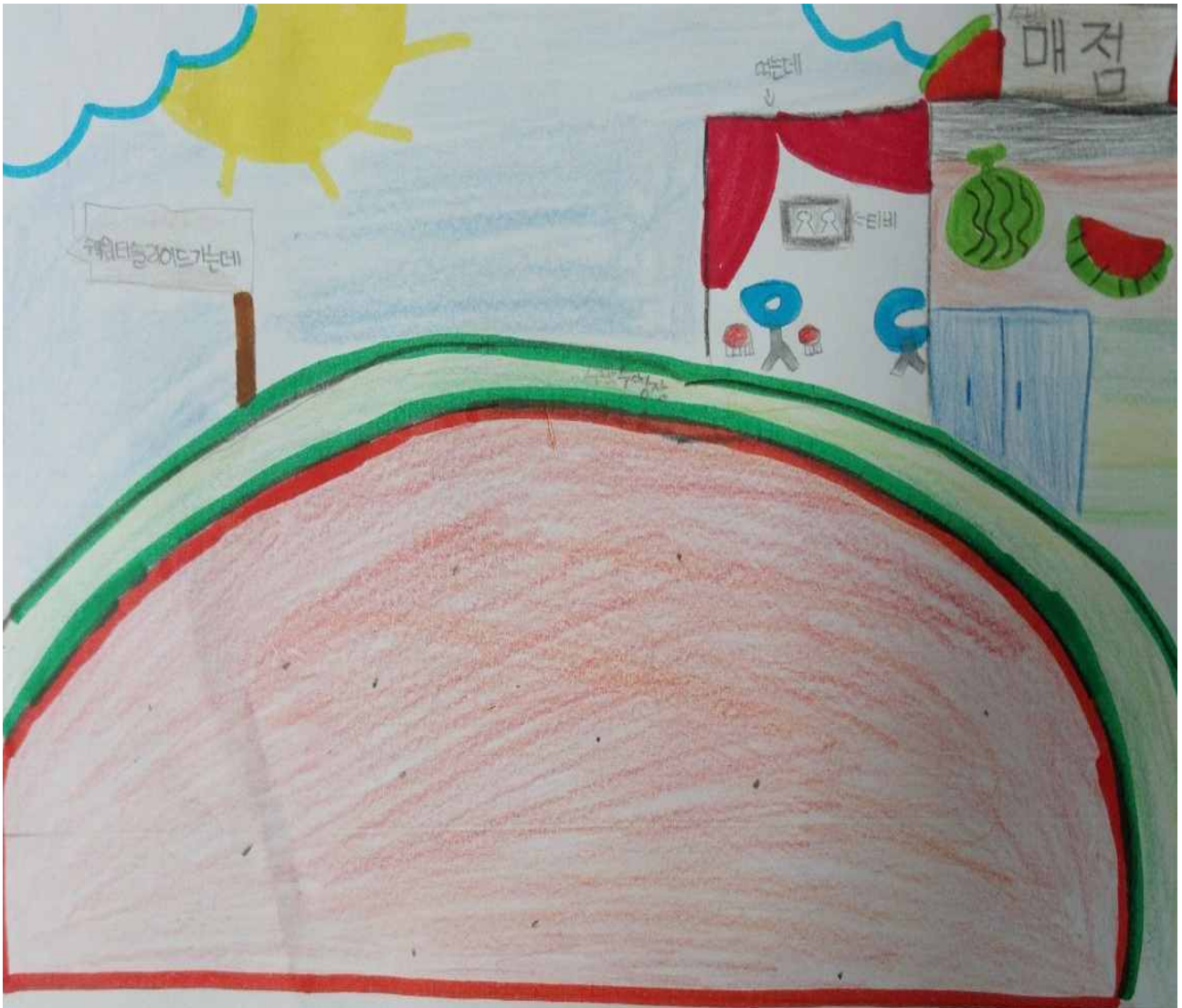
3학년 5반 전가을



[상상하여 그리기]

수박 워터파크

3학년 5반 윤서영



수박 워터파크는 수박처럼 생겨서 수박 워터파크입니다.

매점도 있고 놀거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수박 색깔을 만들어야 하나? 1. 타일이 빨간색이다.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짜릿하고, 한번 타고 계속 타고 싶어질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점에도 수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데도 있고

안에 티셔츠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에 수박 워터파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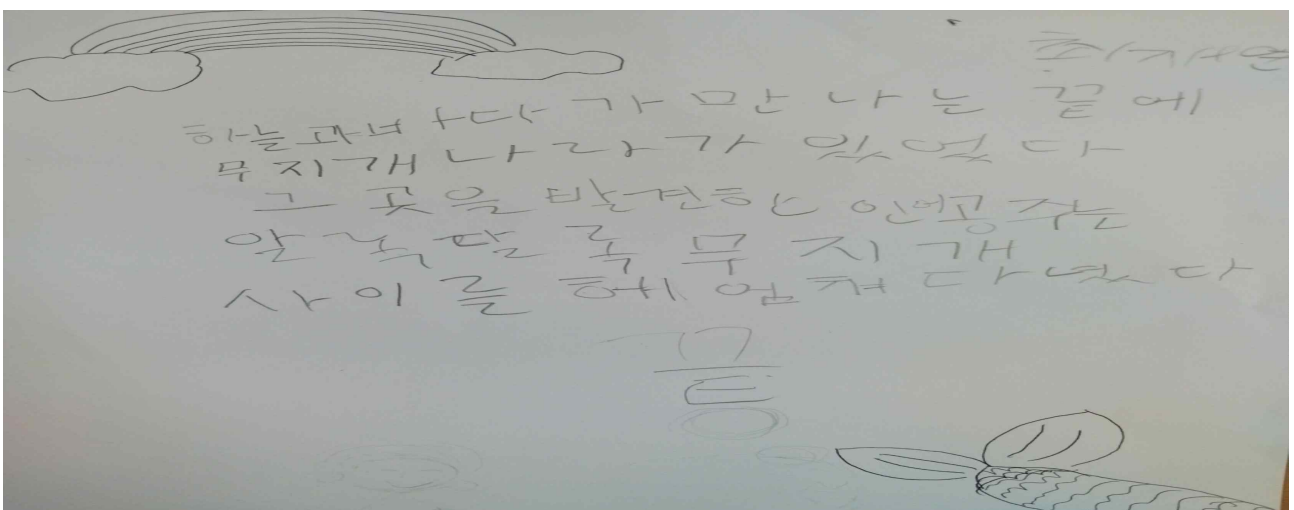
놀러와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놀러와 주세요!

[상상하여 그리기]

인어공주와 무지개

3학년 5반 최재연



동그란 괴물들의 세계

3학년 5반 박서진

1. 나는 3261년 지구에 생물이 모두 사라지고 이
 2. 지구엔 새로운 생물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동그란
 3. 기둥 모양의 몸이다. 그들은 지구를 지배하게 되고
 4. 인간도 지구로 잡아왔다. 그들은 수억 개리
 5. 이 큰 거대한 바위 시가지로 그들은 땅과
 6. 들어 내리, 하지만 어느 한 곳의 지도자가
 7. 없었고, 수억 개리의 지도자가 땅을
 8.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를 그려서
 9. 큰 지구가 되었다. 그들은 지도를
 10. 수백 개로 나눠서, 지구에 있는
 11. 새롭고 큰 도시를 만들었다.
 12. 그들은 지도를 그려서
 13. 이해하고, 도시를
 14. 만들었다. 그들은
 15. 지도를 그려서

[동시]

아쿠아맨

3학년 5반 김승빈

자유형을 어푸어푸

배영도 어푸어푸

평형도 어푸어푸

접영도 어푸어푸

힘을 내라고 내 발은 침범침범
신이나 응원하는 내 손은 철썩철썩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속의 나는 이미 아쿠아 맨



[동시]

뭐든 잘하는 내동생

3학년 5반 박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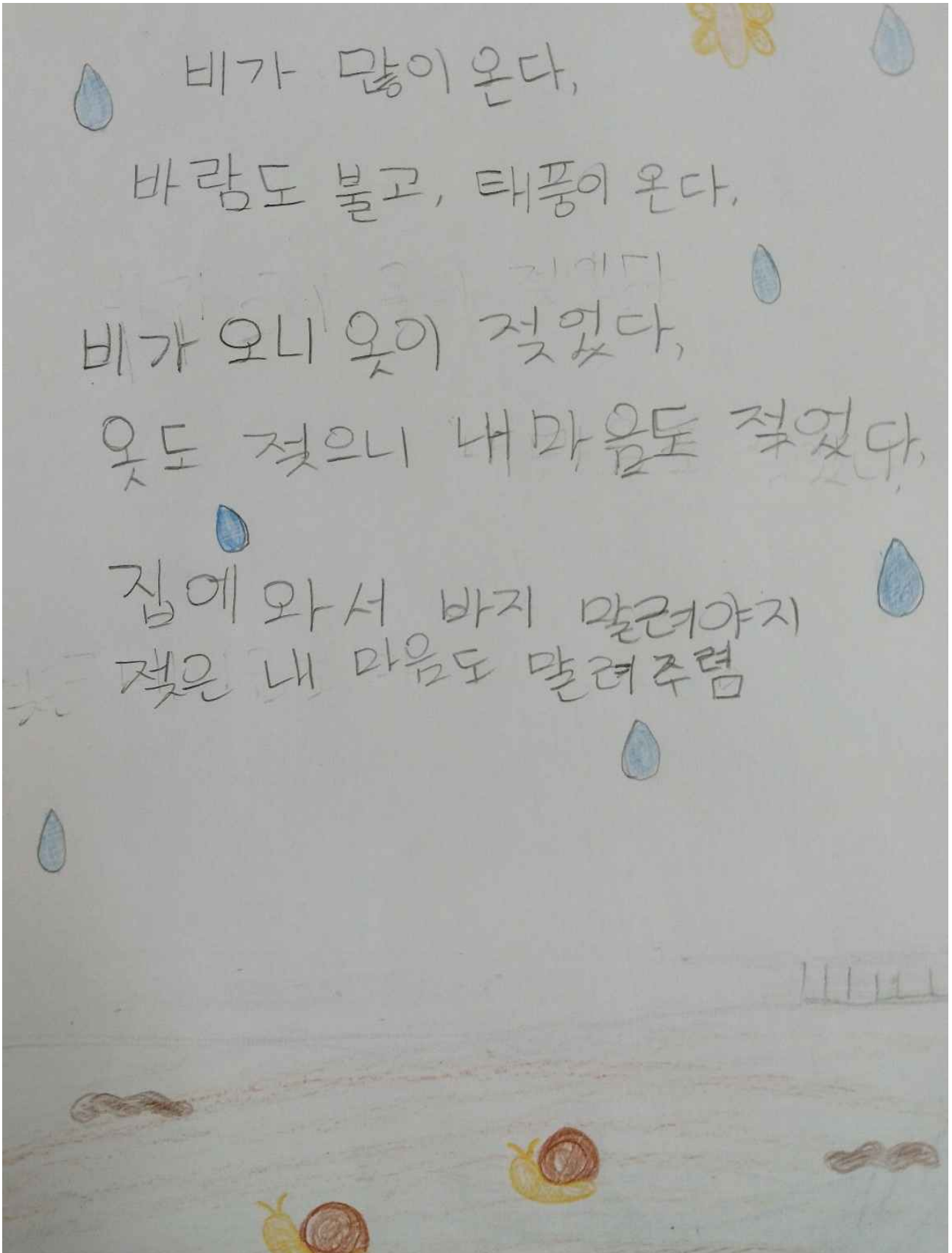
내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춤도 잘 춘다.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내말을 가위 처럼 싹둑 자르는 거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은 방귀도 잘 꾸고
트림도 잘한다. 특히 재려보는 건 1등이다.
그래도 내 동생이 싫지는 않는 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잘해서이다.



[동시]

비 오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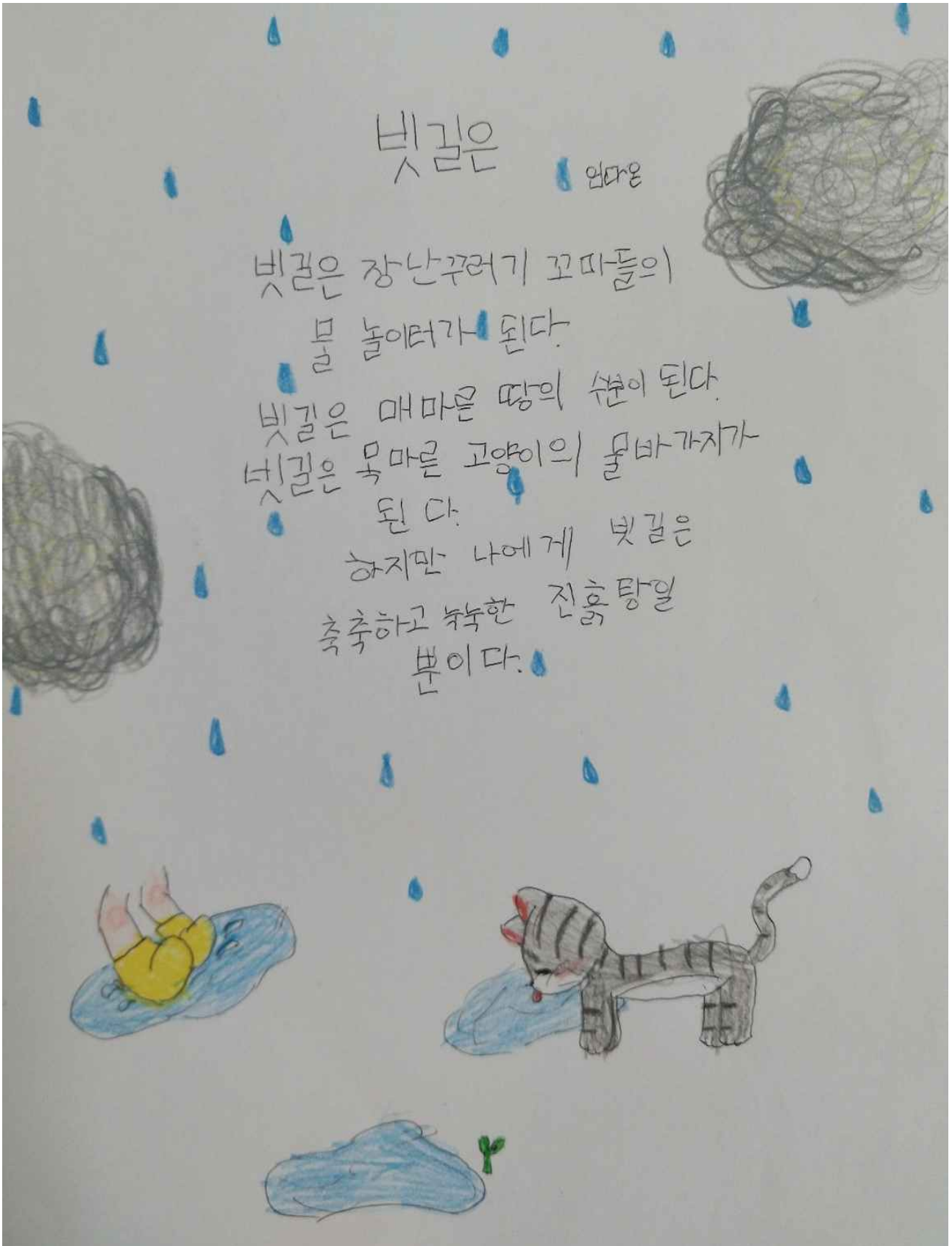
3학년 5반 최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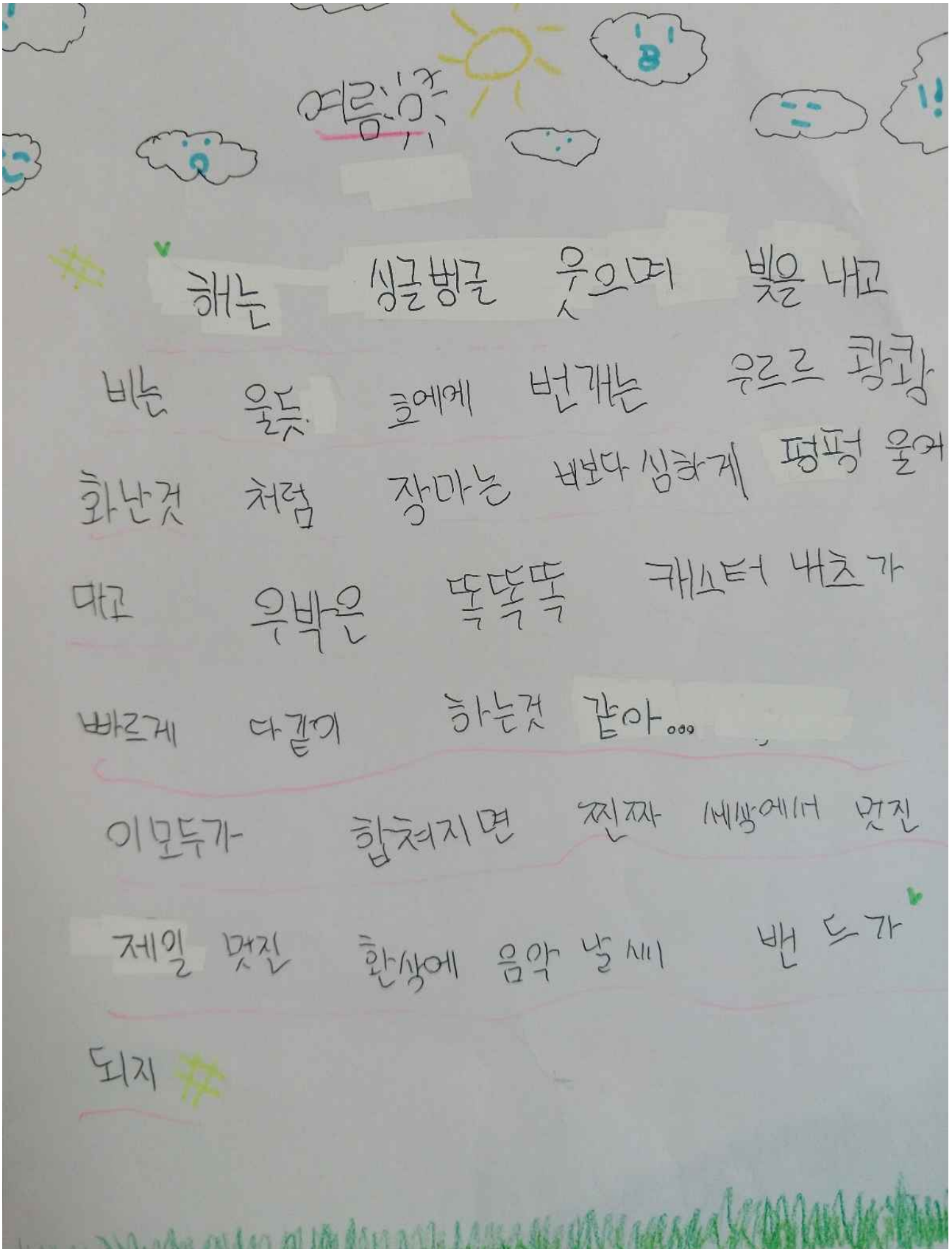


[동시]

빗길은

3학년 5반 임다운





제목: 앵두

시골에 가면 반겨주는 4의 강아지 앵두
간식도 잘먹고 사람도 좋아하는 앵두

하얀 솜사탕 같은 앵두
과일처럼 작은 앵두

앵두 처럼 빨간코를 가진 앵두
집에 갈때는 더놀아주고 싶은 앵두

정말 보고 싶고 생각나는 앵두



[동시]

우산 비

3학년 5반 김소윤

임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 가랑비인가

뽕은 비는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이 젖어질것 같이 비가 내리네.

날씨는 번덕쟁이인가 노다.



[동시]

가을 느낌

3학년 5반 김지유

언제 부턴가
가을바람이 부는 느낌이 든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풀잎도 덩달아 살랑되며
가을을 반기는 느낌

언제 부턴가
서늘한 느낌이 든다
그늘에 찬바람이 솔솔
동생이 내 얼굴에
후 바람을 부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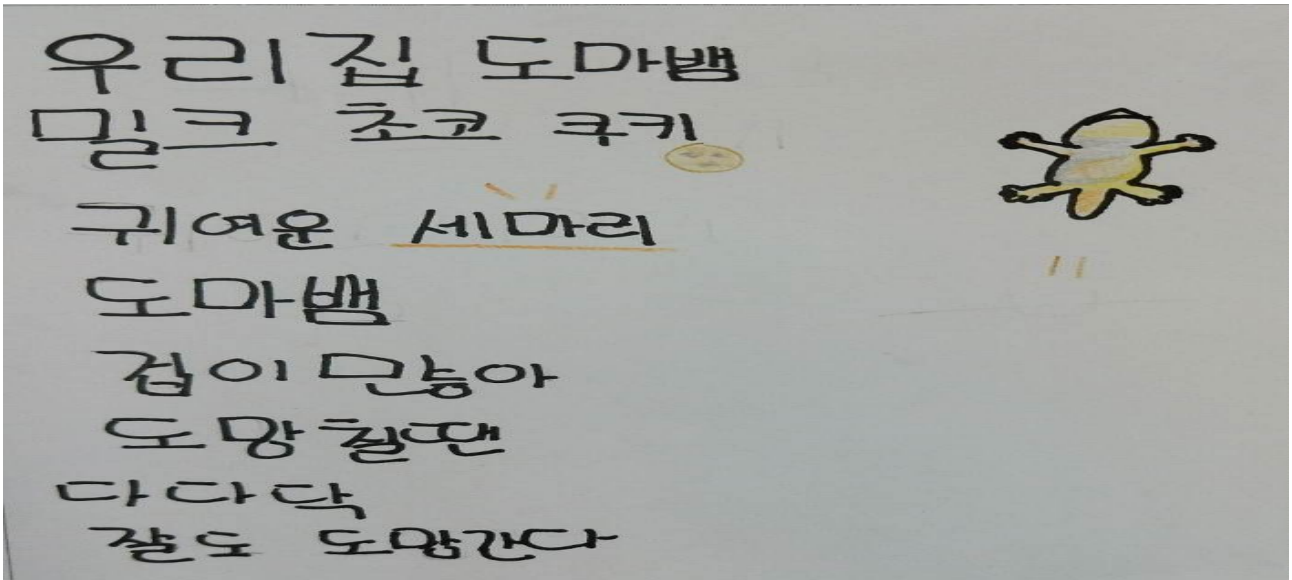
언제부턴가
햇빛이 덜드는 느낌이 든다
햇님이 벌써 겨울 준비를
하나?
일찍 잠을 청하러 가는 느낌

언제 부턴가
나들이를 갈 생각이 더 드는건
가을이 온 것 같아
가을이 온 이 느낌..... 때문에
너무 좋았다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다.

[동시]

우리집 도마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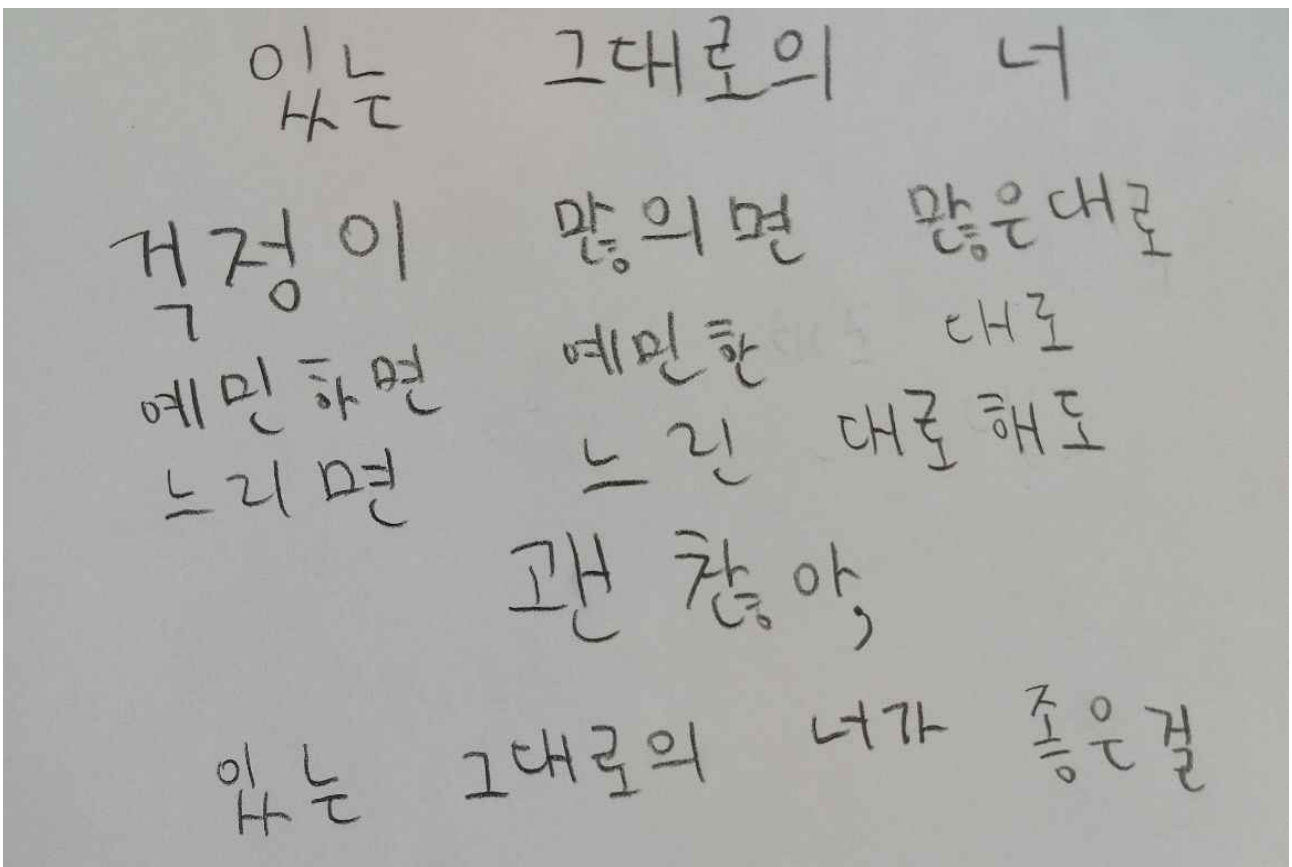
3학년 5반 안세연



[동시]

있는 그대로의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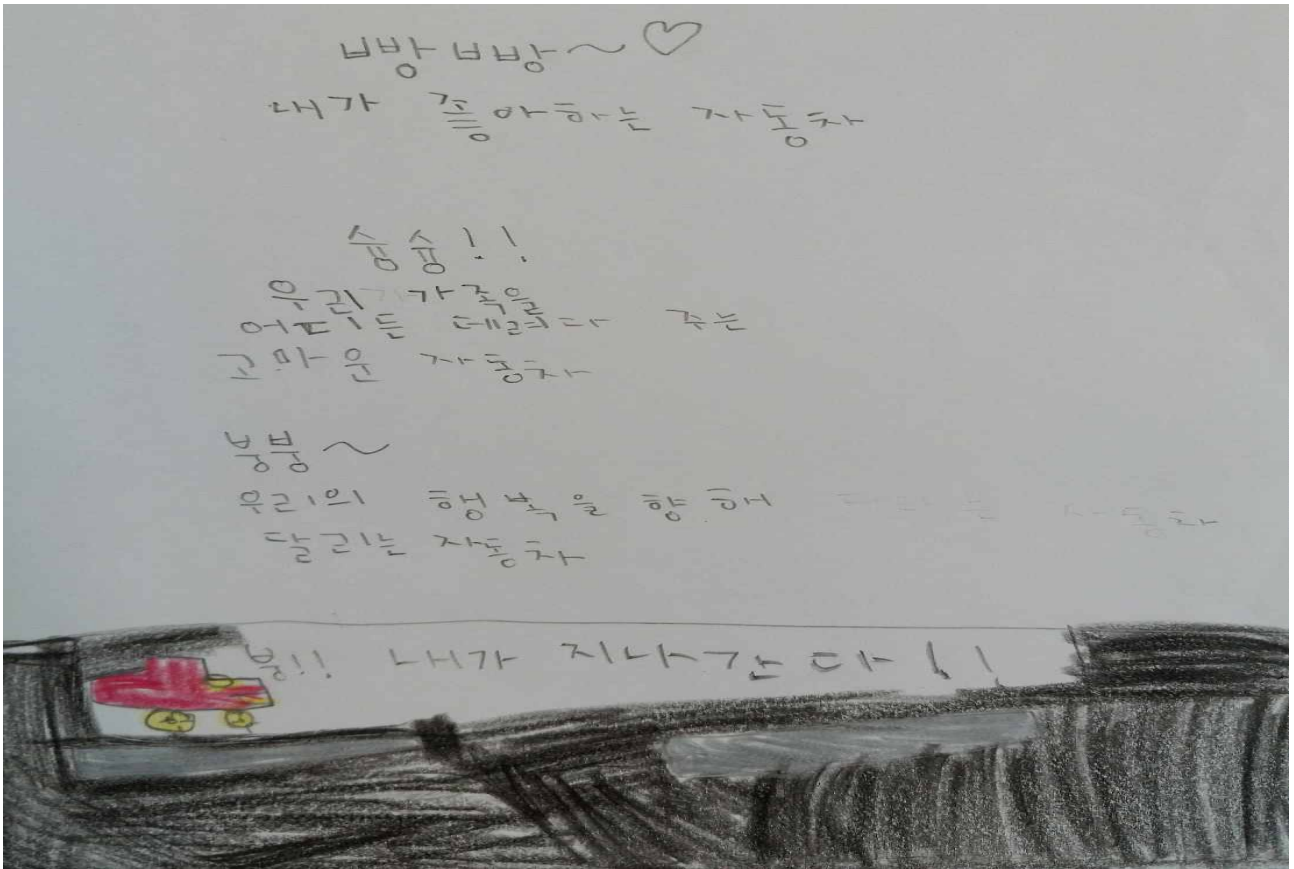
3학년 5반 임예은



[동시]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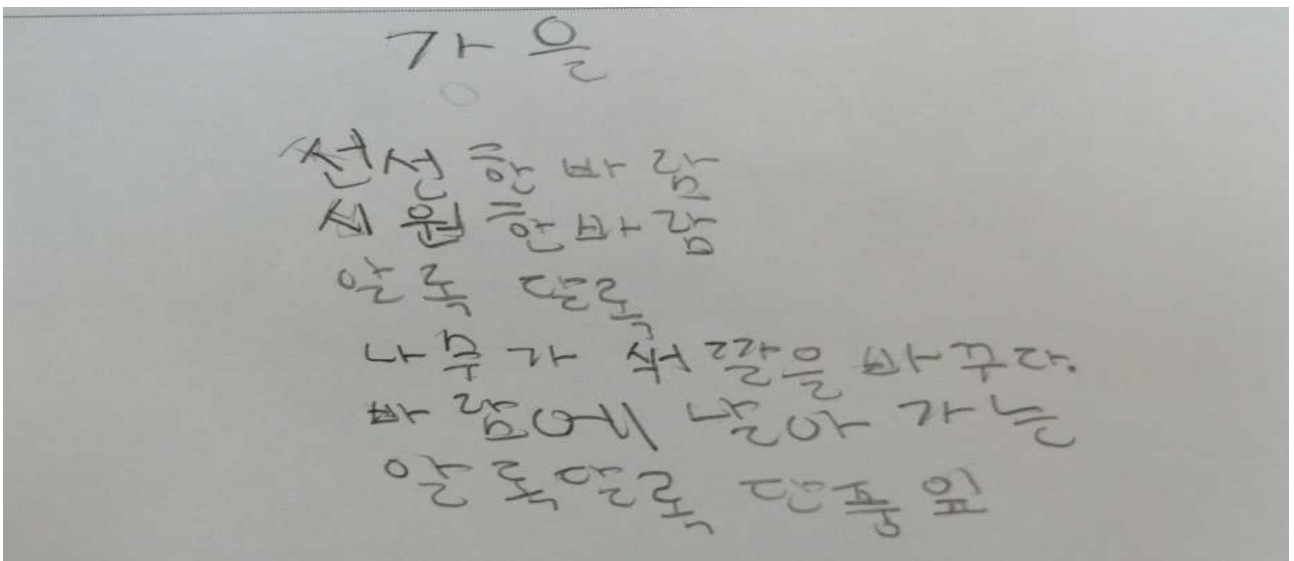
3학년 5반 유태호



[동시]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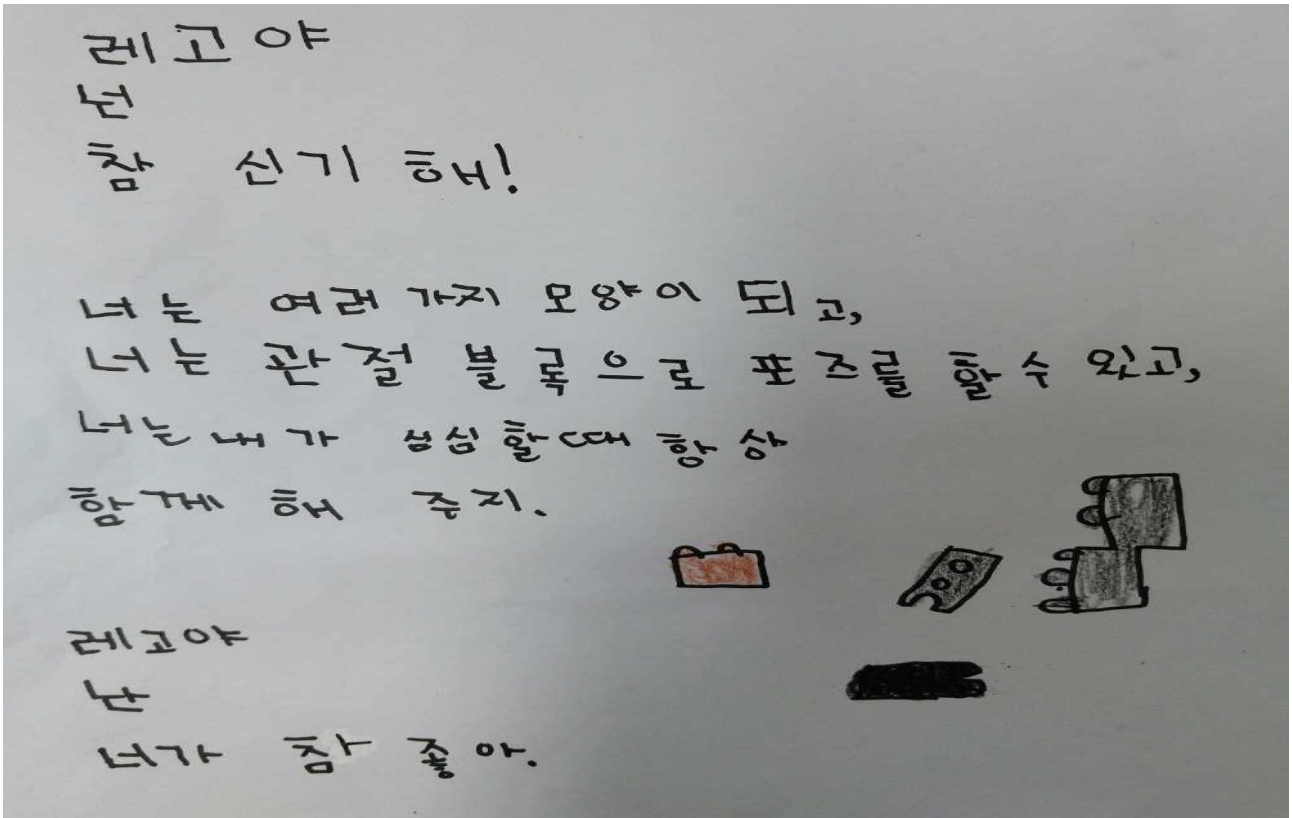
3학년 5반 강지을



[동시]

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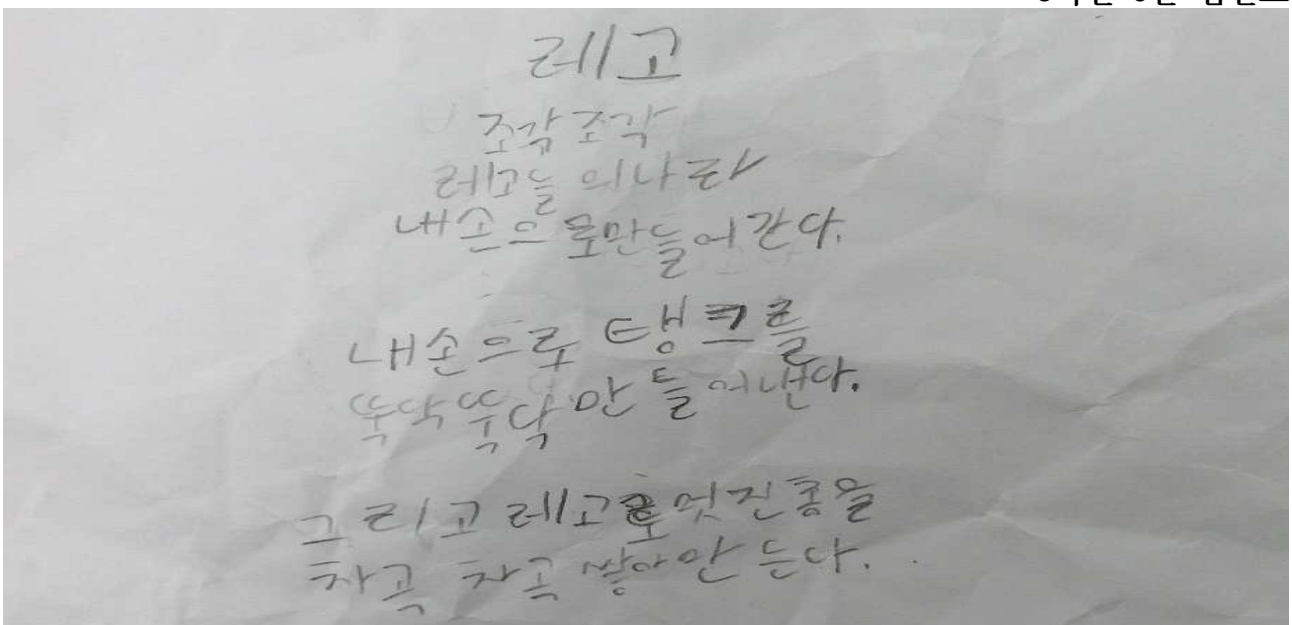
3학년 5반 인병건



[동시]

레고

3학년 5반 김민호



[일기글]

서울에 갔다

3학년 5반 김정윤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 나라에 있는 음식이 많다. 또 스탬프도
많이 받는다. 스티커도 5개 준다. 사탕도 동생이랑
같이 먹어 준다. 성경에 대한 거였다.
정말 재미있었고 음식이랑 동생도 봤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고 음식에서 재미있고 신기하다.



[일기글]

바닷가를 간 아빠랑 나

3학년 5반 최효준

오늘은 바닷가를 가서 기분 무척 좋았다 10시에 출발하
고 2시쯤 도착했다 거기 보트같이 생긴 튜브를 타
고 가장 기본적인 그냥 튜브를 타면 놀다가
아빠가 갑자기 나가더니 나를 부르시다가
아빠가 해파리를 보았다고 물이 낮은 데에
서 노시라고 했고 거기는 해수욕장이어서
물게나 해산물 샀으면서 놀고 그리고
다시 아빠랑 물이 낮은 데에서 놀고
왔다 근데 2시인줄 알고 나왔더니 1시만
이었다

[일기글]

재미있었던 워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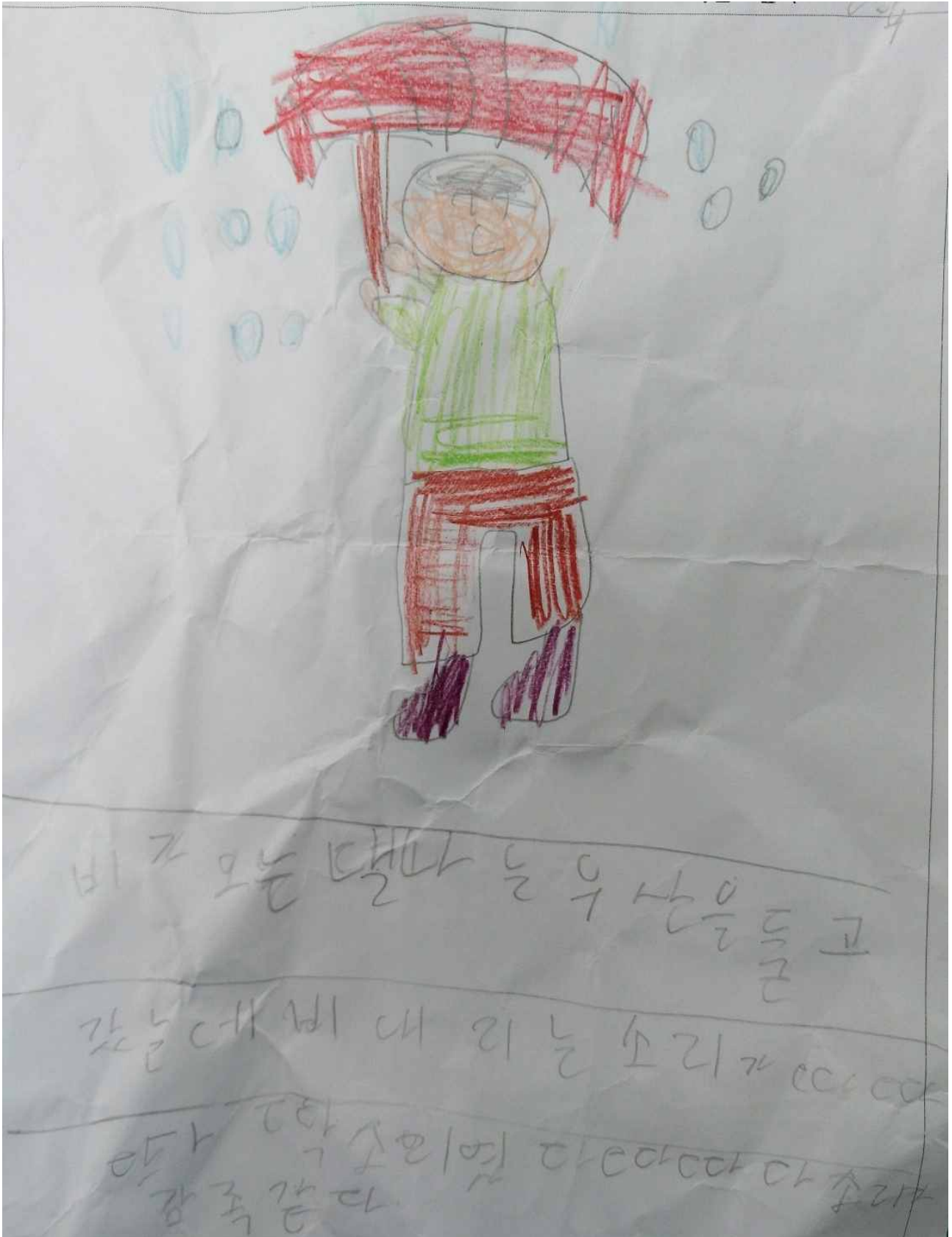
3학년 5반 이시윤

어머나아빠와강원도정선에있는
워터파크를 갔다. 먼저파도풀에
갔다 코와입어 물이 들어가 코개머워
다 그리고 유수 풀에 갔다 유수 풀에
파도 풀처럼 파도가 쳐서 더 재미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거니와 다음
속소로 갔다 거리 세장을 판 다음 고기를
먹었다 워터파크가 재미있었다

[일기글]

비 오는 날

3학년 5반 강승후



첫 나라를 연 단군 할아버지

3학년 5반 김지후

하늘나라에 있는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 환웅은 사람들과 살고 싶었다.
환인은 환웅에게 하늘 사람을 표시하는
거울칼, 방울을 줬다. 그리고 신단속로
내려와서 신시라는 나라를 세웠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알
려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했다.
숲속에서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부러워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환웅은 숲과 마늘을 चु켜
100일 동안 햇 빛을 보지 말라고 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곰은 노
해서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환웅은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주었다. 웅녀는 또 다 큰
소원이 생겨 다 밤낮으로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은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다. 환웅이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웅녀와 혼인을 했다.
환웅과 웅녀가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뒤 15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었다.
내가 처음 읽은 역사책이라
이 책을 읽고 난 뒤 역사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

함께 꿈을 가꾸는 3학년 6반 글 모음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6반

- [시] 벚꽃 축제 / 안홍준
- [시] 하교 시간 / 이현우
- [시] 지각 / 안채아
- [시] 학교 시계 / 정연서
- [시] 나는 소중한요 / 양소은
- [시] 떡볶이 / 강태완
- [시] 내 마음 속의 토끼 / 최준서
- [시] 롤러코스터 / 서유진
- [시] 화 좀 푸세요 / 강시훈
- [시] 겨울이 오면 / 함예은
- [시] 꽃씨 / 심수빈
- [시] 쓰레기통 / 김한솔
- [시] 우리 아빠의 잠 / 박태준
- [일기] 개학 날 / 김하령
- [일기] 우리 학교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 / 한결
- [일기] 야구장 간 날 / 박세아
- [일기] 외식한 날 / 김준범
- [독후감] 지도는 보는 게 아니야 / 변우빈
- [독후감] '리디아의 정원'을 읽고 / 김금비
- [독후감] '만복이네 떡집'을 읽고 / 박은솔
- [내가 만든 이야기] 당근을 싫어하는 토끼 / 손지환
- [내가 만든 이야기] 수상한 마법사 / 송율
- [내가 좋아하는 시] '구리 구리 구리' / 김재원, 황건준
- [내가 좋아하는 시] '숲속에 가 보면' / 최민준, 한승기, 박라운
- [내가 좋아하는 시] '고쳐 말했더니' / 한승기, 박라운
- [시를 읽고 나서] /서유진-박은솔, 강시훈, 김하령

[시]

벚꽃 축제

3-6 안홍준

날씨가 좋은 날
우리 가족은 벚꽃 축제에 간다.
벚꽃나무들마다 분홍꽃이 피었다.
모두 분홍 머리로 염색을 했나?

어, 저 벚꽃 나무는
머리털이 빠지고 있네.
그래서 길도 분홍색이구나.

하교 시간

3-6 이현우

학교에서
수학을 했다.
체육도 했다.
좋았다.
급식 시간은 더 좋다.
이제 집에 간다.
제일 좋은 건
하교 시간

지각

3-6 안채아

늦게 일어나
지각을 했다.

학교에 뛰어가니
숨이 찼다.
교실에 들어가니
모두 쳐다보았다.

자리로 뛰어가
빠르게 준비하였다.
숨이 차고 정신이 없다.
엉망인 하루였다.



학교 시계

3-6 정연서

학교 시계가
둥글둥글 돌아간다.

돌다가 돌다가
쉬는 시간도 알려주고
점심시간도 알려준다.

학교 시계가
둥글둥글 돌아간다.
수업 시간엔 천천히 돌아가고
쉬는 시간엔 빨리 돌아간다.
반대였음 좋을 텐데.

나는 소중한요

3-6 양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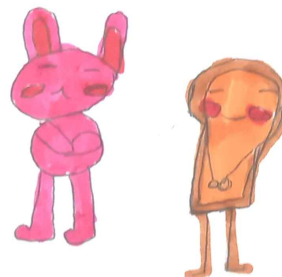
손바닥 손바닥
마주보고 짹짹

발바닥 발바닥
걸어가며 쿵쿵

내 입 친구 입
조잘조잘 깔깔

들으며 웃고
보며 행복한
나의 몸은 소중한
내 친구예요.

나의 몸은 소중한요



언제 먹을 때는
매운데

언제 먹을 때는
맵지 않다.

떡볶이가 변덕을 부리나?
떡볶이가 요술쟁이인가?

이제 알았다.
사장님이 고추장의 양을
매일 다르게 했다는 것을

내 마음 속의 토끼

3-6 최준서

토끼 토끼 흰 토끼
눈이 빨간 흰 토끼
토끼 토끼 흰 토끼
다리가 짧은 흰 토끼
흰 눈이 오면
흰 토끼는 보이지 않는다.
토끼 토끼 어디로 갔나
토끼 토끼 흰 토끼
내 마음 속에 흰 토끼



롤러코스터

3-6 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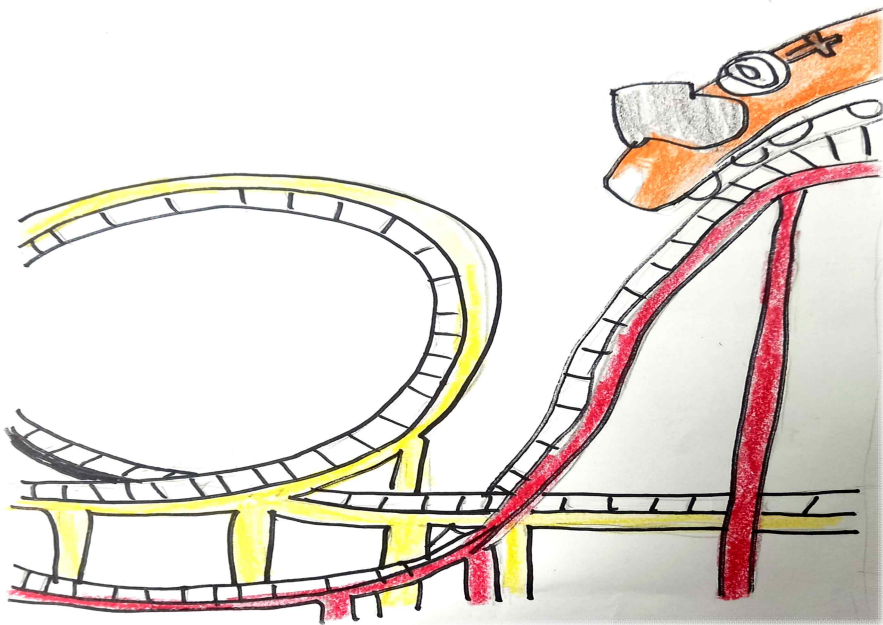
한 번은 꼭
타보고 싶었던
롤러코스터

무서울까
재밌을까

광광 출발~!
바람이 쌩쌩

무서우면서 재밌고
재밌으면서 무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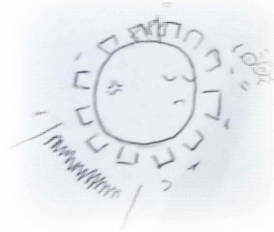
다음에 또 탈까, 말까.



화 좀 푸세요

3-6 강시훈

여름은 너무 덥다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덥다.



올 여름에는
해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났나보다
어떻게 하지?

해님,
내년에는 제발 조금만 덥게
화 좀 푸세요.

겨울이 되면

3-6 함예은

겨울이 되면
밖에도 아침에도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
아이들은 신나서 밖으로 밖으로

겨울이 되면
동물들은 하나 둘씩 자리 갑니다.
쿨쿨쿨 자리 갑니다



겨울이 되면
두꺼운 털옷을 입어요
부드러운 털옷을 입어요
집안은 더욱 더 따뜻해져요.
집안이 따뜻해지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쿵쿨쿨
잠에 듭니다.

꽃씨

3-6 심수빈

꽃씨야, 넌 어디에서
자라니?

꽃씨야, 넌 어떤 종류니?
장미일까, 튜립일까?

네 모습은 어떨까?
난 너에게 궁금한 점이
참 많아.

네가 어디에서
처음 피어날지

지금처럼 예쁘고
독특한 종류로 색다르게
피어나 주었으면 좋겠어.



쓰레기통

3-6 김한솔

아파트 앞에
쓰레기 통이 줄줄이 서 있다.
음식물 통에는 음식 쓰레기가 척척
종이 쓰레기 통에는
종이기 척척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쓰레기 통에
모든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넣는

다



쓰레기통은 힘들겠다.

우리 아빠의 잠

3-6 박태준

우리 아빠는 잘 때 이불을 다 뺏기고
이불 없이 잡니다.

우리 아빠는 침대 맨 끝에서 떨어질 것처럼
잠을 잡니다.

우리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쪽잠을 잡니다.

우리 아빠의 잠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일기]

2024년 8월 22일

3-6 김하령

<개학날>

8월 21일 저녁, 나는 내일이 개학식이라서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준비물은 치카통, 필통, 물병, 수저, 여름방학공책, 노트북, 액자파일 이렇게 준비해서 가방에 넣어 왔다.

8월 22일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나서 온리원을 하고, 밥을 먹고, 옷을 골랐다. 연서와 8동에서 만나 함께 학교로 갔다. 반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을 때 느낌이 좀 떨렸다. 그래서 연서랑 조마조마하다가 들어갔다.

1교시는 창체였다. 개학식을 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말씀이 끝났다. 교감 선생님이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 떠나야 한다고 얘기 하셨다. 슬펐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기를 썼다. 그 일기가 바로 이 일기다.~~~

오늘 하루도 재밌었다. 내일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2024년 9월 5일

3-6 한결

<우리 학교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까>

오늘 과학 시간에 동물 관찰을 했다. 양궁장 옆이랑 해다미숲으로 갔다. 각설탕도 주고 과일 젤리도 뿌리고 먹을 것을 주고 기다렸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방아깨비, 귀뚜라미, 대벌레, 장수말벌, 송충이... 징그럽다. 잠자리, 공벌레도 있고 아주 작은 나비도 있다. 개미는 진짜 많다. 아주 조그만 개미가 많다.

거미도 있는데 굴 속에 있다. 개미굴인 줄 알았는데 거미가 나오더니 도망갔다. 너무 빨라서 사진도 못 찍었다.

[일기]

2024년 8월 X일

3-6 박세아

<야구장 간 날>

오늘은 가족이랑 야구장을 가기로 한 날이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친구 언니도 함께 갔다.

오늘 경기는 두산 베어스랑 SSG랑 했다. 야구를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크림새우를 사오셨다. 한 입 먹었는데~!!! 새우랑 크림이랑 환상적이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팀이 홈런을 많이 쳤다.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했다. 두산은 패배였고, SSG가 이겼다. 너무 기뻐다. 친구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다.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씻고, 양치하고 잠을 잤다.

2024년 8월 x일

3-6 김준범

<외식한 날>

오랜 만에 가족과 외식을 했다. 우리 식구는 모두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갔다. 정말 맛있었다. 계란찜도 먹었는데 맛있었다. 사실 계란찜은 우리 둘째 형이 잘 만든다. 형은 라면도 잘 끓인다. 라면에 물을 넣고 계란을 2개나 넣고 전자렌지에 돌린다. 나도 형한테 계란찜과 라면 끓이는 걸 배워야지.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다.

[독후감]

지도는 보는 게 아니야

3-6 변우빈

<지도는 보는 게 아니야, 읽는 거지>라는 책을 읽었다. 지도 한 점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다.

지도에 축적에 대한 쓰임새, 지형도와 주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도를 보면 다양한 집, 바다, 내가 모르는 모든 곳을 알 수 있다. 또 지도를 보면 다른 나라 친구들이 사는 모습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다.



지도와 놀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생각했다.

‘리디아의 정원’을 읽고

3-6 김금비



리디아 그레이스는 형편이 안 좋아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빠가 실직을 했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리디아 그레이스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외삼촌네로 갔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슬플 거 같다.

외삼촌은 빵집을 하신다. 그곳에 살면서 리디아는 비밀공간을 찾아냈다. 바로 삼촌네 옥상이었다. 그곳을 꽃으로 꾸몄다. 꽃으로 꾸민 이유는 잘 웃지 않는 외삼촌을 웃게 하려는 것이었다. 드디어 꽃밭을 완성하는 날, 외삼촌을 모시

고 비밀 공간으로 갔다. 외삼촌은 가게를 하루 쉬기로 하고 편지와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다. 편지에는 리디아의 아빠가 다시 취업을 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 있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리디아가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면서 좋은 일을 했다. 외삼촌을 웃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기특하다. 리디아가 좋은 일을 해서 아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만복이네 떡집’을 읽고

3-6 박은솔

만복이는 별명이 많다. 욕쟁이, 심술쟁이, 깡패 등 좋은 뜻은 없다. 만복이는 자기 마음과 다르게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이와도 싸우고, 선생님에게까지 험한 말을 하고 야단을 맞는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만복이네 떡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떡집을 하나 발견한다. 그곳에서 떡을 먹고 만복이는 좋은 아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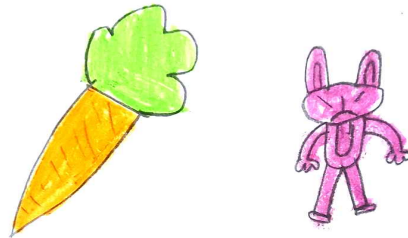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고운 말을 많이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무지개떡을 먹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꿀떡의 가격은 아이들 웃음 아홉 개이고 무지개떡은 아이들 웃음 스무 개다. 그래서 만복이가 이 떡들을 먹고 친구들과 친해졌다. 그런데 책 마지막에 왜 떡집 간판이 만복이네 떡집에서 장군이네 떡집이 됐을까? 그 떡집에는 어떤 떡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만약 나의 떡집이 있다면 어떤 떡들이 있을까?

[내가 만든 이야기]

<당근을 싫어하는 토끼>

3-6 손지환

어느 날, 토끼는 주황색 당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노란색 당근을 발견했어요. 한입 먹어보니 레몬 맛이 났어요. 너무 맛이 썩어요. 다음 또 길을 가다가 초록색 당근을 발견했어요. 한입 먹었더니 케일 맛이 났어요. 너무나 썩어요. 이제 토끼는 주황색 당근만 먹기로 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주황색 당근을 발견했지요. 한입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아팠어요. 썩은 주황색 당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토끼는 모든 당근이 싫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당근 말고 다른 먹이를 먹기로 결심했답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

수상한 마법사

3-6 송율

어떤 소녀와 소년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나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마법사가 나타났다.

“얘들아, 우리 같이 놀래?”

“네~”

소녀와 소년은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놀이터와 수상한 마법사도 사라졌다. 소년과 소녀는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다. 소녀와 소년은 어

떤 아주 조그마한 섬을 봐서 가봤는데 거기는 아주 큰 성과 바다가 있었다. 바다에는 배와 보라색 새가 있었다. 그런데 성에 불이 나고 있어서 전쟁이 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녀와 소년을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성으로 뛰었다. 문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물었어요.

“누구냐?”

“우린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성에 왜 왔느냐?”

“우린 도망치려고도 왔고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는 사라진 마법사를 찾고 있어요”

“마법사는 없다.”

소년과 소녀는 성에서 쫓겨났지만 마법사를 만나려고 1일,2일,3일,4일,5일,6일,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사람들 1명조차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가려는 순간 그 마법사가 나타났다.

“마법사님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흠,,, 딱봐도 인간세계에서 왔구나. 여기엔 왜 온것이나 ”

“네 맞아요. 갑자기 그냥 왔어요”

“음... 그래그럼 부탁이 무엇이냐?”

“우릴 인간 세계로 다시 돌려주세요”

“ 음... 그럼 서쪽에 있는 못된 마녀를 죽이고 오면 너네들을 인간세계로 돌려주겠다.”

소녀와 소년은 네! 라고 대답했다. 마법사는 서쪽으로 가는 지도를 주었다.

소녀와 소년은 같이 서쪽으로 떠났다. 소녀와 소년은 조금씩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했다. 소년과 소녀는 먹을거와 마실 거와 잘 곳을 찾아 다니었다. 근데 저기 멀리 한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 집이나 똑똑 근데 아무 말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소녀와 소년은 저기 있는 숲에 들어가 마실 것을 구하고 있는데 멀리 호수가 있어서 가봤다.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맛이 좀 짠맛 같았다. 소녀와 소년은 여기서 자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소녀와 소년은 다시 모험을 하기로 했다. 소녀와 소년은 모험을 하다가 어떤 동물을 만났다. 소녀와 소년은 “넌 누구니?” 라고 물어봤다. “난 두비 라는 새야 서쪽에 있는 못된 마녀가 나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버렸어. 하지만 서쪽에 있는 못된 마녀를 물리치면 나의 색을 되찾을 수 있어.” 소녀와 소년이 “우리 서쪽 마녀를 같이 물리치자!” 라고 말했다. 두비는 알았다고 말했다. 소녀와 소년은 두비와 친구가 되었다. 이제 두비와 같이 모험을 떠난다. 근데 아직 서쪽마녀의 약점을 모른다. 지도를 보면서 가고있는데 앞에 작은 웅덩이가 있는데 소년은 그걸 못

보고 황 넘어져서 지도가 물에 젖어 찢어졌다. 그래서 소녀와 소년과 두비는 많이 당황했다 그래서 그냥 느낌 나는 대로 가고 있었다. 계속 가고 있는데 숲속에 어떤 소리가 났다. 그래서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두비는 새이기 때문에 두비가 날아서 숲속에서 봤다. 근데 10분 전에는 맹수가 몰려 있었는데 이제 맹수가 외롭게 1마리 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비는 날면서 위치를 알려주고 소녀와 소년은 두비가 가는 데로 갔다 거기에는 맹수인 호랑이가 있었다. 그 호랑이도 색이 노란색이었다. 소녀와 소년이 호랑이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안녕? 너의 이름은 뭐니?”

“나는 카시야. 안녕?” 호랑이는 조금 겁쟁이인 것 같다. 카시도 서쪽마녀에게 당당함과 색깔을 빼앗겼다. 소녀와 소년과 두비가 같이 서쪽마녀를 물리치자고 하자 카시가 응 그래 라고 말했다.

이제 모두 네 친구가 모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뛰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하늘 위에 날개가 달린 원숭이들이 시끄럽게 날고 있었다. 소녀와 소년과 두비와 카시는 많이 겁을 먹었다. 이제 서쪽에 거의 다 온 것 같았다. 이제 여기만 지나면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때 소년이 지도 조각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여긴 서쪽이 아니라 북쪽이었다 그런데 북쪽 마녀가 나타났다. 그런데 북쪽마녀는 착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다. 소녀와 소년과 카시 두비가 말했다.

“우릴 서쪽 마녀 있는 쪽으로 보내줘.”

“음... 그래 부탁을 들어줄게.” 하면서 황금 모자를 주었다.

“이걸 쓰고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불러. 그럼 와서 너희 부탁을 들어 줄거야.”

“알았어!, 정말 고마워.”

소년이 황금모자를 쓰고 말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불렀다. 그래서 날개 달린 원숭이가 나왔다.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서쪽 마녀 있는 데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쪽으로 갔다. 이제 마녀만 물리치면 된다. 앞에 아주 큰 성이 있었다. 소녀와 소년과 두비와 카시는 성에 들어갔다. 엄청 긴 계단이 수천 개가 있었다. 소녀와 소년은 열심히 꼭대기 까지 올라갔다. 저기에 서쪽 마녀가 있었다. 카시와 두비는 더는 못가서 계단 반쯤에서 쉬고 온다고 했다. 그래서 소녀와 소년만 왔다. 근데 어떻게 죽일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 물양동이 있어서 그냥 때려 부었는데 그냥 갑자기 서쪽마녀가 죽었다. 서쪽마녀에 약점은 물이었다

그래서 두비와 카시 이런 동물들도 다시 색깔을 되찾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 황금모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카시와 두비는 이 와중에 다리가 아픈데 그리고 소년이 지도 쪼가리를 들고 오긴 했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가 모르고 그 지도 쪼가리를 떨어뜨렸는데 소년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소년은 계속 지도 쪼가리를 찾고 있었다. 그냥 소년은 포기하고 좀 쓸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어? 저기 조그마한 집이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소녀와 소년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어떤 아주머니가 안녕? 이라고 말을 하셨다. 소녀와 소년과 두비와 카시는 여기에 조금 머물러도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아주머니는 허락해 주었다. 소녀와 소년은 식탁에 앉았다 두기와 카시는 밖에서 조금 자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주었다 소녀와 소년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알았다며 음식을 더 주었다가 그래서 소녀와 소년은 카시와 두비한테 과일을 나눠주었다. 과일과 음식을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물과 음식을 바꾸니 안에 챙겨 주었다. 소녀와 소년은 감사하다며 말했다. 밖으로 나갔는데 카시와 두비가 사라졌다. 소녀와 소년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소년과 소녀는 계속 두비와 카시를 찾고 다녔다. 두비! 카시! 계속 찾아봐도 없었다. 그래서 소녀와 소년은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두비와 카시는 어디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멀리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렸다. 소녀와 소년은 소리가 들리는 데로 가 봤다. 엇! 저기 카시와 두비의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산딸기를 먹고 있었다. 소년과 소녀도 산딸기를 배불리 먹었다. 똥을 싸러 간다. 뿌지직! 똥을 다 싸고 나왔다.

여자와 소년은 다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길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해도 지고, 그냥 산딸기 숲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 와중에 텐트가 있어서 소녀와 소년은 텐트에서 자기로 하고 두비와 카시는 텐트 바로 옆에 자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소녀와 소년은 일어났는데 두비와 카시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1시간 뒤 드디어 두비와 카시가 일어났다. 근데 소녀와 소년은 혹시 모르니 텐트를 가져가기로 했다 어?? 그런데 산딸기 숲을 나가는 법을 어제까진 알았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다. 소녀는 생각이 났다. 소녀만 따라가기로 했다. 조금 걷다 보니 밖이 보였다.

“휴 이제 다 왔다. 다행이다.”

“엥? 어제 우리가 왔던 집인데?”

“저기 길이 있잖아.”

“아하!”

그들은 길을 가다가 굴나무가 있어서 굴로 아침을 먹고 계속 걸었

다. 드디어 마을을 발견했다. 엄청 큰 마을이었다. 사람들도 많고 집도 많았다.

“저기요, 혹시 성이 어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사람들도 성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좀 쉬기로 했다. 그러다 아예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두비와 카시가 기다려 주었다. 소년과 소녀가 잠에서 일어나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교과서에 그림으로만 실렸던 작품 <비밀의 문>을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

우리 반은 한 달에 시 하나씩을 외운다. 나는 그 중에서 9월에 외운 시가 제일 재밌고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문제를 맞히면서 시를 외우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제목은 ‘구리 구리 구리’다 제목도 재밌다.

.....(3-6김재원, 황건준)

구리 구리 구리

손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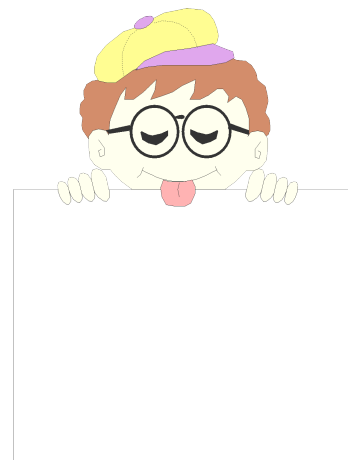
구리는 구린데
논에서 나는
구리는?
(ㄱ구리)

구리는 구린데
나무에서 나는
구리는?
(ㄷ구리)

구리는 구린데
굴에서 나는
구리는?
(ㄴ구리)

구리는 구린데
길에서 나는
구리는?
(말뚝구리 쇠뚝구리)

이 문제를 못 풀면
너는 너는
무슨 구리?
(ㄹ구리)



[내가 좋아하는 시]

나는 우리 반이 함께 외우는 시 중에서 ‘숲속에 가 보면’이라는 시가 좋다. 반 친구들과 함께 7월에 외운 시다. 이 시를 외우면 진짜로 숲이 떠오른다. 그리고 숲 속 느낌이 좋다.(3-6 최민준)

숲속에 가 보면

전원범

수많은 나무를 가꾸면서도
산은 아무 말이 없다.
그 많은 새들을 기르면서도
산은 아무 말이 없다.

조용한 산 속에서
풀잎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새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숲속에 가 보면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본다.

혼자 서지 못하는 덩굴도
큰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본다.

큰 나무는 큰 나무답게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답게

서로가 뺨내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본다.

[내가 좋아하는 시]

나는 '고쳐 말했더니'라는 시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지은이가 오은영이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분은 시인 오은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를 읽으니 마치 이야기를 읽은 거 같다. 그래서 이야기 만들기도 했다.(3-6 한승기, 박라운)

고쳐 말했더니

오은영

사다리가 전봇대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전봇대도 사다리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두 갠데도 혼자 못 서지?"

사다리가 말을 바꿨어요.

"넌 대단해!

다리가 하난데도 혼자 서잖아."

전봇대도 고쳐 말했어요.

"네가 더 대단해!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 주잖아!"

<사다리와 전봇대>

3-6 서유진, 박은솔

(1편)

평화로운 어느 한 마을에 사이좋은 전봇대와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다리가 전봇대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

전봇대가 화가 나서 사다리를 보고 말했어요.

“넌 다리가 두 갠데도 혼자 못 서지?”

사다리와 전봇대는 둘 다 엄청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사다리가 전봇대에게 사과를 건넸어요.

“전봇대야, 내가 어제 놀려서 정말 미안해.”

전봇대가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해”

“알겠어. 그럼 약속!!!” 사다리도 말했어요.

그 뒤로 사다리와 전봇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2편)

이제 사다리와 전봇대는 가족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야, 사다리야 우리 놀자!”

“안돼, 나 공부해야 돼.”

“야, 공부를 왜 하냐?”

“왜~ 공부할 수도 있지”

그때 마을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들 좀 조용히 해.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

전봇대와 사다리는 너무 무서워서 컷속말을 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냐?”

“그러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니까 무서워.”

“어른들도 좀 조용하게 말했음 좋겠어.”

그 후로 사다리와 전봇대는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답니다. (끝)

<전봇대와 사다리>

3-6 강시훈

옛날 옛적에 전봇대와 사다리가 있었어요.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봇대가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다리가 전봇대를 놀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도 사다리가 또 전봇대를 놀렸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전봇대가 화가 나서 사다리를 보고 말했어요.

“넌 다리가 두 갠데도 혼자 못 서지?”

서로 놀리다 화가 났고, 그러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했어요. 그러다 그만 사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상황을 본 윌리엄 아저씨가 있었어요. 윌리엄 아저씨는 싸움을 말리고 친절하게 사다리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그만 싸우고 화해하렴.”

그러자 사다리와 전봇대가 동시에 말했어요.

“애가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싸우게 되었어요. 다음날까지도 싸웠어요. 이번에는 윌리엄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이제 그만 좀 싸워라.”

전봇대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다리에게 말했어요.

“넌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 주니까 참 대단해.”

그 말을 들은 사다리도 말했어요.

“넌 더 대단해. 다리가 하난데도 혼자 서잖아.”

둘은 서로 마주 보고 웃었어요. (끝)

<전봇대와 사다리>

3-6 김하령

어느 날 사다리가 전봇대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전봇대도 사다리를 보고 놀랐어요.
“넌 다리가 두 갠데도 혼자 못 서지?”
그래서 사다리와 전봇대는 싸웠어요. 그 모습을 본 다람쥐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사다리와 전봇대는 동시에 말했어요.
“애가 날 놀리잖아.”
다람쥐가 다시 물었어요.
“누가 먼저 놀렸는데 그래?”
“사다리가 날 먼저 놀렸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다람쥐는 사다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어요.
“싫어!” 사다리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다람쥐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네가 먼저 나쁜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응?”
사다리는 할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봇대야,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전봇대도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이제 나쁜 말을 하지 않을게.”
둘은 서로 손 잡고 화해했어요.

며칠 뒤 다람쥐는 사다리네 집에 가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봇대네 집에 가 보았더니 그곳에 사다리와 전봇대가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 맛있는 핫초코에 쿠키까지 먹으면서 말이에요. 둘은 그렇게 사이 좋게 계속 지냈답니다. (끝)

새콤달콤 3학년 7반 우리들 이야기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 학년 7 반

[동 시]

보고 싶은 꽃

변 하 은

꽃은 참 이뻐

꽃은 참 냄새도 향기로워

꽃은 참 색도 알록달록해

꽃은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어져

꽃은 봐도 또 보고 싶은 울 엄마 같아

향기롭고 알록달록 이쁜 울 엄마



[상상하여 그리기]

(꼬마의 딸)
3학년 7반 (리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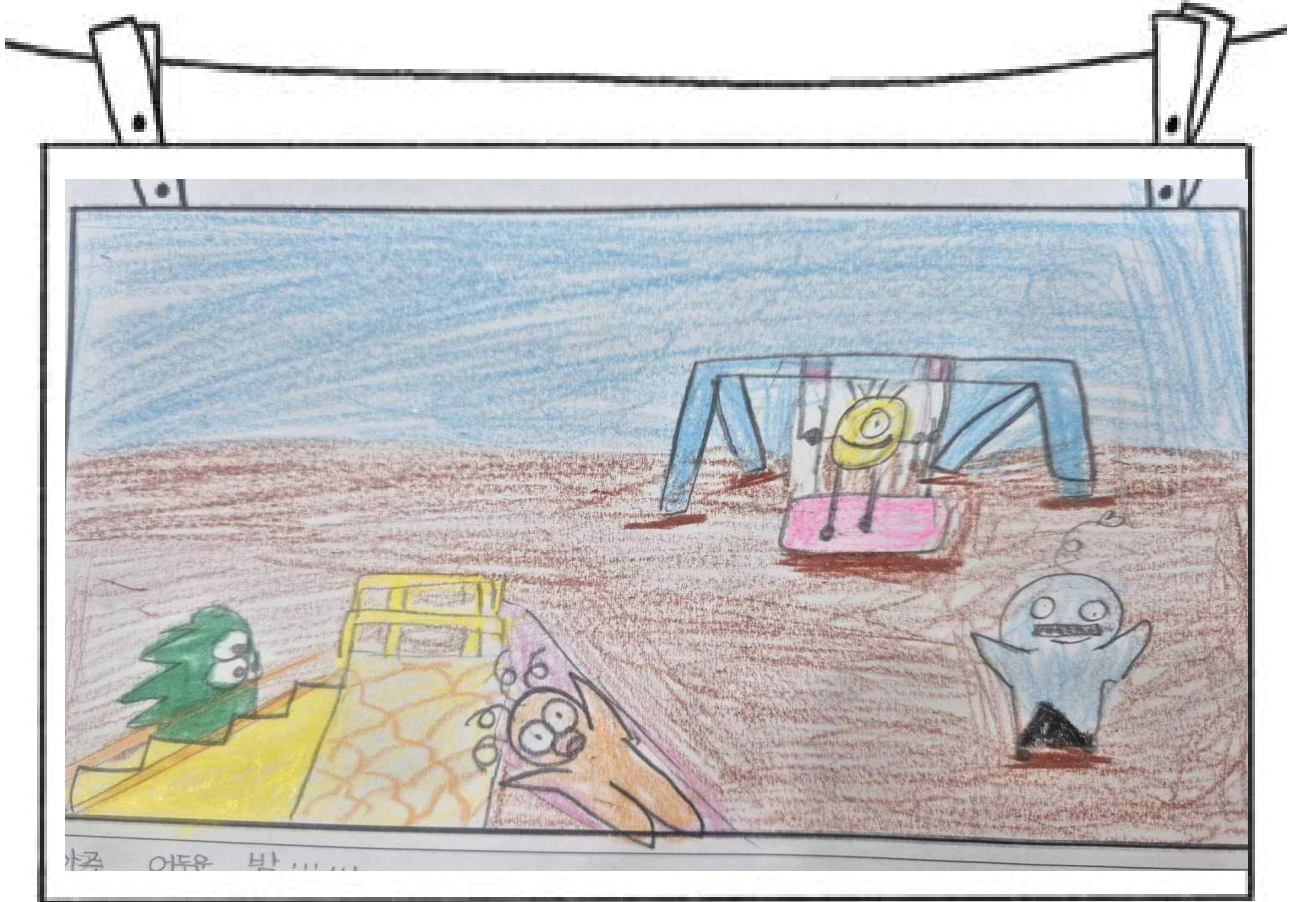


생날에는 드디어 오늘 한낮에 친구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꼬마가 어머니를 잃어버려 울고 있었습니다 생날이는 꼬마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주며 어머니를 찾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꼬마는 고맙다며 가지고 있던 인형을 생날이에게 주었습니다. 인형을 받아두고 가던 길을 가고 다시 걸었습니다. 너무 덥고 멀어서 걸다 지친 생날이는 "내 딸이 걸어서 저 먼 길을 한 걸음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며 투덜 거렸습니다. 그때 걸어요. 인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날아 딸이 아주 아주 걸어서는 꼬마의 딸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이죠. 그 말이 끝나자 꼬마의 딸! 이라고 외치면 인형에게 걸어서는 꼬마의 딸이 되었습니다. 걸어진 딸은 저 멀리 갈고 단숨에 7개 더를 넘는 거리를 생글생글 갈 수 있게 되는 신비한 마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날이의 생날이 만든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상상하여 그리기]

놀이터에서 노는 괴물

3학년 7반 안휘리



아주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어두침침한 밤에는 괴물이 튀어 나옵니다. 괴물은 아이들이 낮에 시끌벅적하게 노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보였어요. 그래서 괴물나라에서 나왔어요.

“애들아, 인간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지 난 몰랐어.”

그러면서 수염 난 괴물아저씨가 나오며 말했어요,

“애들아, 너희 뭐하고 노니?”

“어? 수염 괴물아저씨다! 수염아저씨, 오랜만이에요.”

“ 어, 그래 오랜만이구나.”아저씨가 부러운 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 저희는 3명밖에 없어서 그냥 따로 놀고 있어요.”

“ 그럼 밤마다 아저씨랑 같이 놀자!”

그 후로 괴물들은 밤에 아이들이 없을 때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놀았답니다.

[상상하여 그리기]

인어가 된 나

3학년 7반 (김민규)

김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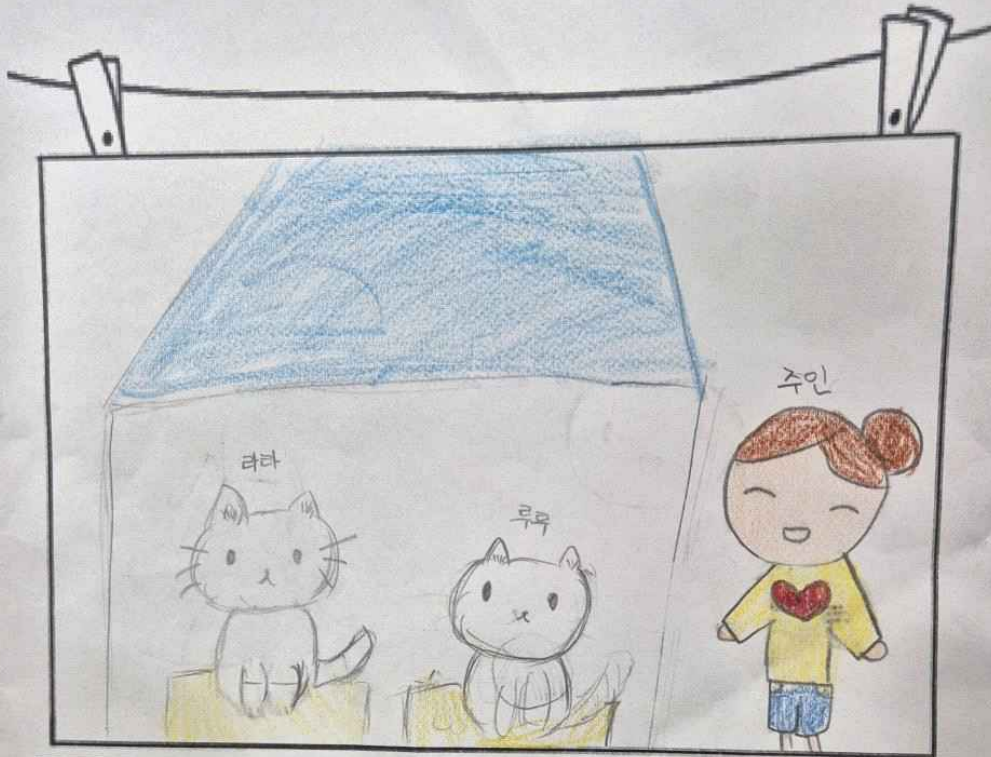


나는 인어다. 나는 물밖에서 숨을 못 쉬다.
내가 심심하면 물고기와 춤을 추거나 돌고래와
수영대회를 한다. 난 외롭다. 엄마, 아빠, 동생은
인어사냥꾼이 잡아갔다. 난 인간들에게 복수만
을 선사했다. 어느날 해가 무렵 복수의 날이
찾아왔다. 난 물이 가득 담긴 헬멧을 쓰고
엄마, 아빠, 동생이 잡혀있는 건물에 도착했
다. 난 투명인간이 되는 옷을 입고 경호원을
지난 다음 모든 것을 여는 열쇠로. 엄마, 아빠
동생이 가차 없이 헬멧을 연 다음 번개처럼
빠르게 마법의 인공화살을 연 다음 번개처럼
뒤에 바쁘게 쏘아 쏘아와 즐겁게 살았다.

[상상하여 그리기]

(라라가 사라졌다)

3학년 7반 (노은)



한 마을에 고양이 라라와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끝내고 라라와 루루한테
밥을 주려고 했는데 라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라라는 원래 마을이 버려지고 주인이랑 루루만
원거예요. 주인은 그 일로 원래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라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골 보호소가 갔어요.
거기에 라라가 있었어요. 다시 주인은 이사 한 곳을 돌아갔어요.
다행히 라라와 루루와 주인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구들



< 무지개 >



김리아

비가 내린다 똑똑
비가 그쳐서 무지개가
든다. 아이들은 무지개를 구경한다



무지개는 항상 일곱색으로
빛친다. 반짝반짝
기분은 좋다. 반짝반짝

아이들이 풀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친다,
칭병칭병 신나게 논다.

나의 꿈
인천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7반 20번 홍민재

나의 꿈은 축구 선수다. 나는 우리
나라를 빛내주는 유명한 축구 선수
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매날 매날 축구 레슨을
주말에는 6시간 동안 하고 평일은 학교 끝나
고 학원서 끝나고 4시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유명 인사가
되면 2학년 1반 이정혁
선생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사랑하는 부모님 자랑

3학년 7반 황준우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엄마는 맛있는 요리도 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지도 가르쳐 주신다. 아빠는 힘이 세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 안 계실 때에는 우리에게 맛난 음식 특히 짜파게티를 해 주신다. 사랑이 듬뿍 들어 있는 짜파게티!

우리 할머니는 화가 많으시지만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용돈은 진짜 많이 주신다. 할아버지는 친절하시고 가족들을 잘 챙겨주신다. 삼촌도 가족을 두루 잘 챙기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하다.



새 학년 첫 마음

3학년 7반 문해빈

3학년 새 학년 학교 등교할 때 너무 설레었다. 심장이 쿵쿵 쿵쿵 너무 너무 설레었다. 문을 활---짝! 열었더니 선생님이 자리에 없어서 뭔가 이상했다. 알고 보니 잠시 어디 가셨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안녕? 애들아, 만나서 반갑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자리 앉았을 때 이제 내가 3학년이 되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고 쓸쓸한거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내가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자고 할거다’ 라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갈 것이다. 앞으로의 3학년 학교 생활이 기대되고 떨려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3학년 첫 날 첫 마음

3학년 7반 라태희

3월 4일 월요일에 새 학년 새 학기 시작되었다. 전날 밤 잠을 못자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교실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팬시리 시간 끝기 귀찮아서 그냥 바로 교실에 들어갔다.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계셨다. 아무데나 앉는 거라서 휘리와 주아 그 사이에 앉았는데 9시 1교시 시작하고 자리 배치를 했는데 장시우랑 앉게 되어서 기분이 영 안좋았지만 그래도 성격 좋아 보이려고 애써 웃었다. 그런데 첫 날이라 어색하고 친구도 없어서 쉬는 시간 혼자 노니까 기분도 다운되었다. 담임선생님이 조금은 무서웠다. 그래도 이미 반 배정이 된거니까 잘 지내보려고 한다. 파이팅!



전학 온 날

3학년7반 김륜아

송도에서 용현동 용현남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날,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다.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와서 동생부터 반에 보내주고 우리 교실로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반 아이들은 착할까?’

생각하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 주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륜아예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담임선생님께서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다. 자리 앉아서 친구들 얼굴을 기억하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친절하고 예쁘셨다. 올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낼 것이다.

앞으로의 용현남초등학교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질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

3학년 7반 박성준

내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갈 때 늦으면 순간이동으로 훅!!
약속이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순간 이동으로 짠!

(체험학습 보고서)

인천학생과학관을 다녀와서

3학년 7반 박지환

과학관에 갔다. 공룡의 뼈에 대해 써어 있었다. 삼엽충 화석에 티라노 사우루스 뼈 까지 있었다. 책에서 본 공룡시대 공룡들은 사람 무릎까지 정도 크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거대한 공룡들인가보다. 그렇게 관찰하고 다니다가 광석 전시대를 발견했다. 여러 가지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들이 있었다.

얼마 후 어머니께서 별자리 영상을 보러 가자고 하셔서 급히 달려갔더니 지금 막 영상이 시작 되었다. 물고기 자리도 있거 게자리, 양자리, 황소자리를 보았다. 입체로 되어 있어서 하늘이 돌아가고 땅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실감이 더 났다. 마치 우주에서 별자리 구경을 하는 것 같이…….

입체거울도 발견했는데 착시 현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재미있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은 체험이었다. 과학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친구랑 같이 와서 알아낸 내용을 알려 주고 싶다.



우리 형은 축구 선수

3학년 7반 윤태희

우리 형은 축구 선수

메시 닮은 우리 형

축구 실력도 수준급

메시 닮은 우리 형

미래의 축구 국가 대표

메시 닮은 우리 형



여름소리

3학년7반 조성아

쨍~~~쨍~~~

여름의 뜨거운 햇빛 소리

까르륵 까르륵 침범침범

아이들 물놀이 소리

매옴 매옴

매미 덩다고 노래하는 소리

쌩 쌩 쌩

여름 휴가가는 자동차 신나는 소리

터벅 터벅

새학기 친구들 만나러 학교 가는 소리



독서 감상문

<책제목 짜장,짬뽕,탕수육>

3~7 장 시 우

짜장,짬뽕,탕수육의 내용은 종민이라는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갔다.그치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전학을 가서 다 모르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기소침했다. 종민이는 1교시 쉬는시간에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 그때 큰덩치 아이가 소변기 칸에 왕칸 거지칸을 정하며 크게 외쳤다. 종민이는 거지칸 줄에 섰는데 다른 모든 친구들은 왕칸에 스더니 종민이를 거지라고 놀렸다. 종민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종민이는 수업시간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2교시 쉬는시간에 종민이는 화장실에 가서 왕칸에 섰지만 거지칸 이라고 큰덩치가 말했다. 급식시간 점심을 먹으려고 짜장가 소스가 담긴 커피통을 꺼내자 큰덩치 놀려댔다. 종민이는 주먹을 꽉 지었다. 앞에 있던 다른 친구가 저아아는 “원래 저래” 라고 말했다. 그래서 종민이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5교시 쉬는시간에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서 또 거지칸 왕칸을 정하자 종민이가 소변기에 다가 짜장,짬뽕,탕수육 하며 크게 외쳤다. 아이들은 소변기를 바라보다가 줄을 섰다.‘짜장이 최고지’ “난짬뽕이 좋아” 화장실이 웅성거리고 종민이가 “짜장 이천이백원, 짬뽕 삼천원, 탕수육 만이천원”라고 말하자 왕칸 거지칸 이라고 놀리지 않고 친구들과 웃으며 친해졌다.

새로 전학온 친구나 평소친구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지않고 사이 좋게 지내야겠다.

[상상하여 그리기]

(내 상상속 동물 친구)
3학년 7반 (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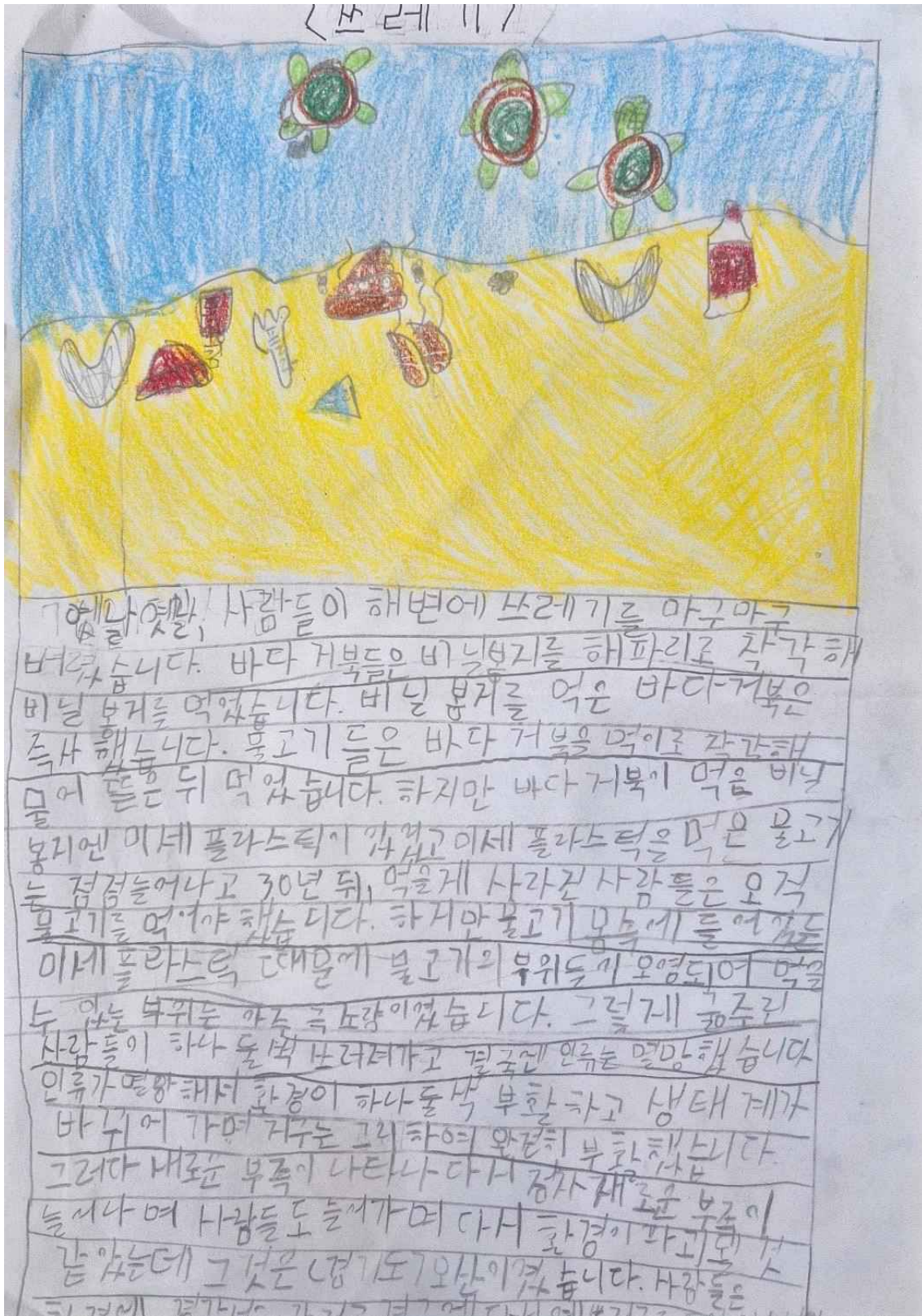


귀여운 강아지가 내뒤통을 졸졸 짚아 온다.
펭귄은 걸을 때 뒤뚱뒤뚱 물속에서는 생생생
강아지가 펭귄에게 불었다.
“너는 누구야?” “나는 펭귄이야! 너는?”
“나는 강아지야! 우리 서로 다르게 생겼네~”
“먹는 것도 다르고...” 저음은 둘 다 어색했다.
강아지는 물개가 먹고 싶었을 때 펭귄이 물개를 나눠 주고
시간이 지나자 둘은 친해졌다.
나도 친하게 지내자~

상상하여 글 쓰기

3학년 7반 조아진

《 쓰레기 》



내가 좋아하는 노래

3학년 7반 권현준

나의 최애 노래는 “아기 상어”입니다. 아기상어 노래에는 아기 상어가 등장인물입니다. 아기상어, 엄마상어, 아빠상어, 할머니상어, 할아버지 상어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 중 아기 상어가 제일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어깨가 들썩들썩 신나서 춤이 추고 싶어집니다. 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동 시)

고양이


3학년 7반 김지형

귀엽고
귀여운
새끼고양이

우리반 3학년7반 담장 아래서
야옹야옹 운다.

울다가 점프...프
신나게 점프 이동한다.

엄마 찾아 가는 걸거야
나처럼
어엄마 보고 점프하며 즐거워하는

 새 학년 첫 마음

1

2024년 3월 4일 3학년 첫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양치하고 8시이름쯤에 밖으로 나와 학교로 갔다.
 실내화를 갈아 신고 교실문을 잡으려는 순간 쿵쿵쿵 두근두근 떨리고 실렸고
 교실문을 여는 순간 친구들이 많이 와있었다. 근데 1학년때 같은 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바로 허리, 성준, 라태희, 현준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
 다. 그리고 보시가 시작되었다. 아침조회를 하고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예쁘시고 착하셨다. 2교시, ... 3교시, ... 4교시를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었다.
 급식실에 왔는데 정말 처음본 친구들 많았다. 다른반 친구들은 벌써 반 친구들과
 친해진거 같았다. 하지만 나는 반도 낯설고 친구들도 낯설었다. 급식을 받아
 내 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급식을 다 먹었다. 그리고 급식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첫 날이라 그런지 선생님과 같이 갔다. 교실에 와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를 했다.
 5교시를 하고 끝나서 나왔는데 태린이가 기다려 주고 있었다. 태린이와 함께 갔다.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학운을 갔다.

가을

3학년7반 김주아

시원한 가을
붉은 단풍 노오란 은행
알록이 달록이

높고 푸른 하늘
하늘 속으로 풍덩 뛰어들면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애

난
가을이
좋. 아.

파도치는 바다

3학년7반 김리아

여름 파도치는 바다
센 물살에 어른들은
써핑하느라 즐즐즐

아이들은 모래성 만들고
헤엄치느라 즐즐즐

잔잔한 파도가 오면
썩텐하느라
해님과 마주본다

구름

구름

포식포식

바람바람

구름

눈이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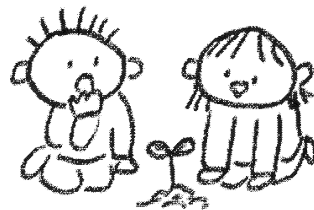
기분좋은

구름

풀꽃처럼 귀엽고 상큼한 우리들!

3학년 8반 글 모음

- [동시]** 내 동생 구름이(구다예), 체스(김유나), 봄비(박은유),
여름 방학(조아라), 달의 생활(권하준), 프린세스(서예림),
내 동생(김지호), 산책(이준후), 내 동생 태휘(안소희),
여름(조승우), 새 손님(한재민), 반딧불이(김도유),
시원한 수박(김도희)
- [출글]** 나의 꿈은 배우입니다(구다예), 40살이 된 지호에게(김지호),
30세의 나(권하준), 나무의 정체가 궁금하다(전제아)
- [감상문]** 미술공연 감상문(페인터즈 공연)(우서호), 책이 사라진
날을 읽고-소중한 책(우서호), '바다 마녀 우술라의 고민
상담소'를 읽고(김도유), 책이 사라진 날(김유나),
아씨방 일곱 동무(박해솔), 여행(유주아),
9만 개의 별을 읽고(조아라), 바삭바삭 갈매기(정은우)
- [그림]** 잔탕글(장보운), 제 꿈은 만화가입니다(박재운),
토일캐릭터(조승우), 루돌프곰돌이(한재민),
포차코(강연준), 제 꿈은 경찰입니다(서우주),
배행기(박찬솔), 영화를 보고(박재은), 수영(김도진),
시골 가는 중(김도은), 흰둥이가 귀여워(전제아)



[동시]

내 동생 구름이

3학년 8반 구다예

구름이는 이쁘게 생겼다.
구름이는 말도 잘 듣는다.
구름이는 밥도 잘 먹는다.
구름이는 나를 좋아한다.
구름이는 나랑 잘 놀아준다.
우리집 강아지 구름이
구름아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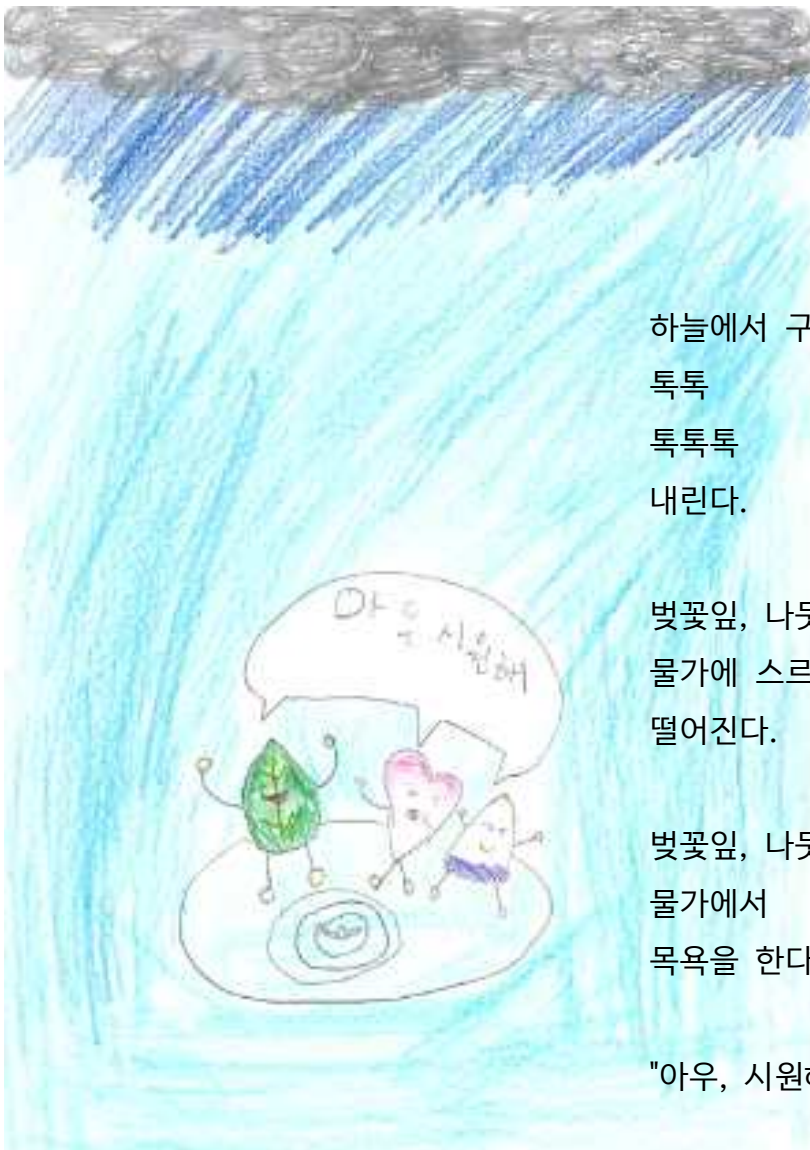
체스

3학년 8반 김유나

병사들이 체스판에서 전쟁을 치룬다.
병사들이 왕을 위해 작전을 세운다.
폰은 무조건 한두 칸 직진
룩은 가로세로
비숍은 대각선
나이트는 한 칸 대각선
퀸은 팔방으로
킹은 구방 한 칸씩 도망
킹이 죽으면 전쟁은 끝.

봄비

3학년 8반 박은유



하늘에서 구슬비가
톡톡
톡톡톡
내린다.

벚꽃잎, 나뭇잎, 꽃잎
물가에 스르륵
떨어진다.

벚꽃잎, 나뭇잎, 꽃잎
물가에서
목욕을 한다.

"아우, 시원해!"

여름 방학

3학년 8반 조아라

여름이 되면
갈매기는 따뜻하다고 끼룩끼룩
바다는 기분이 좋다고 슈르륵 슈르륵
우리들은 벌써 여름 방학이라고 야호 야호
즐겁다고 방심하지 마.
곧 개학이 찾아올 테니
방학아 겨울에 또 만나자.

달의 생활

3학년 8반 권하준

저 달 큰 달 아름답게 비치네.
저 빛나는 달 어떻게 지낼까?

저 달 아침에는 밤을 기다리며
안으로 꼭꼭 숨고 있다가
저녁에는 하늘로 부울쑹 올라와
저녁을 비추어 주네.

저 예쁜 달 아름답게 비치네.
저 예쁜 달 반짝이며 빛나네.

프린세스

3학년 8반 서예림

언니 생일날 엄마 몰래
언니 몰래 가지고 온 생일 선물

귀여운 프린세스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화났다.
그때 말하지 말걸
후회된다.

3일 동안 집을 적응하며 있어야 하는데
엄마도 적응해야 하나보다.

프린세스
프린세스
이쁘고 귀여운데 말이다.

환영해
햄스터



내 동생

3학년 8반 김지호

별거 아닌 거에도 짜증 내는 내 동생
건드리기만 해도 화내는 내 동생
말만해도 때리는 내 동생

내 동생은 왜 이럴까?
그래도 난 내 동생이 참 좋다.



산책

3학년 8반 이준후

밖에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
바람이 나에게 다가오며
휙휙~ 소리가 난다.

난 이런 분위기가 좋다.



내 동생 태휘

3학년 8반 안소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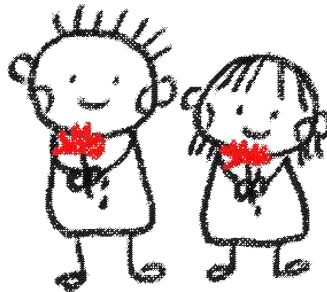
내 동생은 장난꾸러기

걸어다닐 때도 까분다.
밥 먹을 때도 까분다.

콘푸레이크를 먹으면서 쏟는다.
우유도 쏟고
과자도 쏟는다.

내 머리가 많이 빠졌다.
내 동생이 뜯고
잡아댕긴다.

난 그런 동생이 있어서
힘들고 아프지만
너무너무 좋다.



여름

3학년 8반 조승우

아침부터 매미가
멤멤 울고 있다.

더워서 땀이 뻘뻘
시원한 물을 꿀꺽꿀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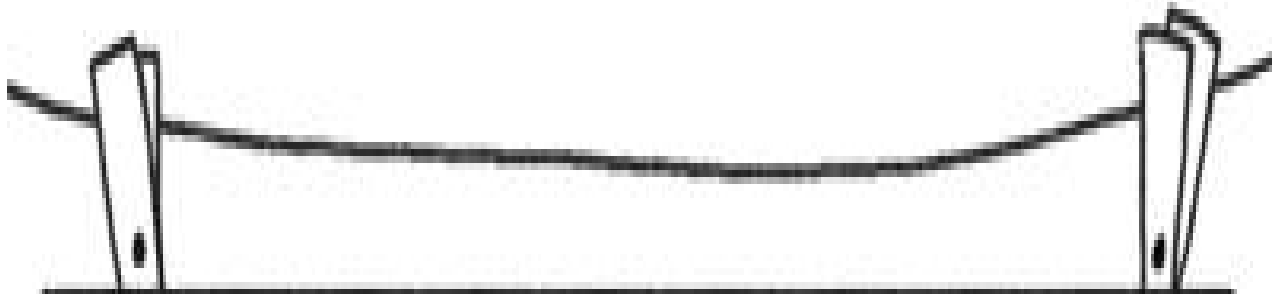
카~
더워서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나도 녹는 것 같다.

새 손님

3학년 8반 한재민

누구지?
우리집에 온 새로운 손님이?
비 오는 날 깜짝 놀라게 해준 새 손님
내가 나타나면 땅속에 숨어버리는
부끄럼쟁이.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네.
함께 온 아기 손님도 부끄러워 날 보고 도망가네.
더 용감해지고, 더 커서 엄마랑 오렴~
우리집 텃밭에 온 새 손님 두꺼비.
이름은 두두.



반딧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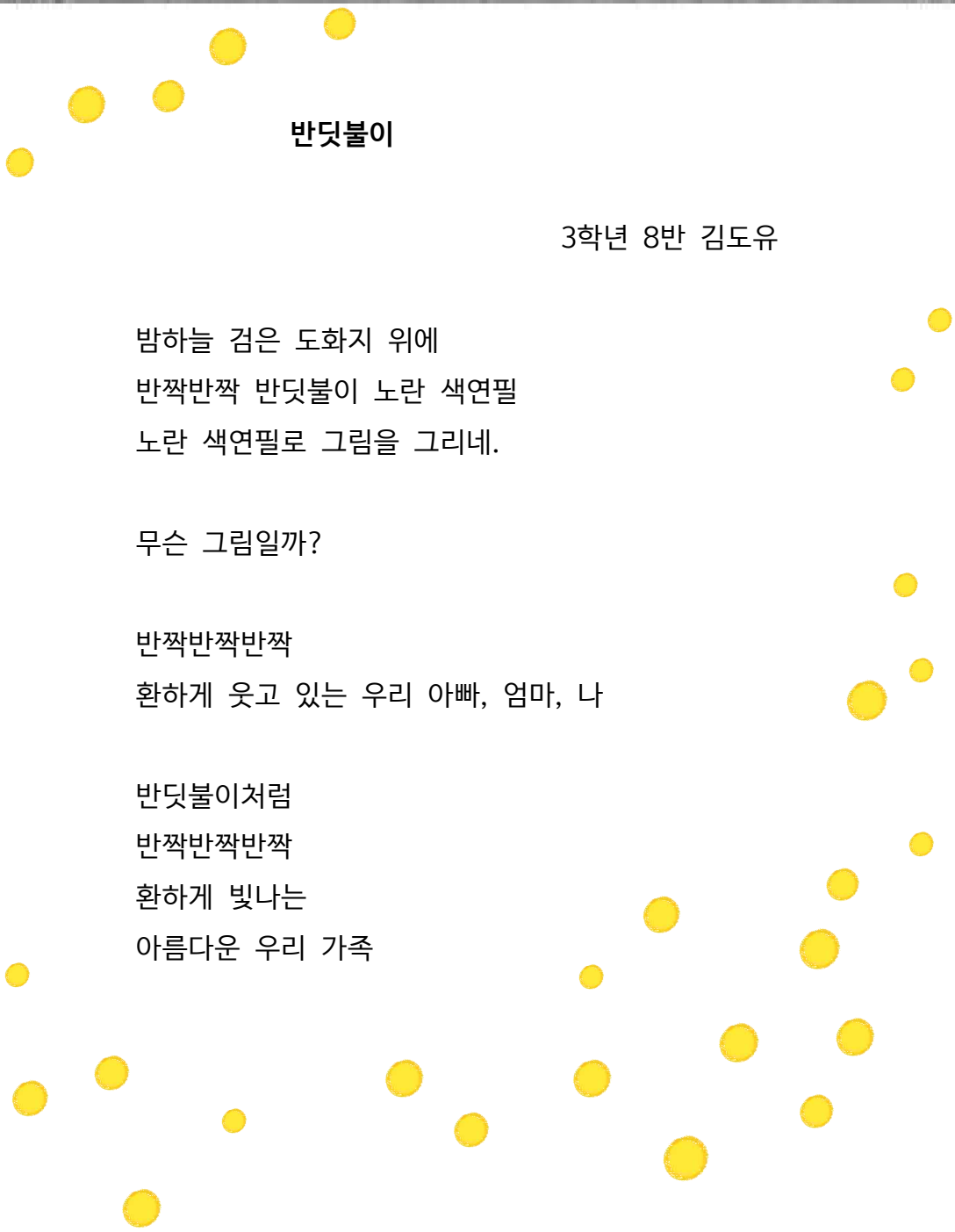
3학년 8반 김도유

밤하늘 검은 도화지 위에
반짝반짝 반딧불이 노란 색연필
노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네.

무슨 그림일까?

반짝반짝반짝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나

반딧불이처럼
반짝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시원한 수박

3학년 8반 김도희

고모할머니가 사 온
커다란 초록색 과일
안은 빨강고
검정 씨앗이 참 컸다.
시원시원
몸 안이 시원하게
몸을 흔들흔들한다.



[줄글]

나의 꿈은 배우입니다

3학년 8반 구다예

저는 멋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은 정말 멋있고 이쁩니다.

저도 이쁘게 꾸미고 연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 제 연기를 보며 즐거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멋있는 2층 집에 살고 싶고, 이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저처럼 배우가 꿈인 아이들은 제가 도우며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배우가 되는 건 많이 어렵겠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화이팅!!

40살이 된 지호에게

3학년 8반 김지호

30년 뒤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꿈을 이루어 제빵사가 됐을까?

내가 제빵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아마 너는 제빵사가 되어있을 거야^^

혹시 결혼은 했니?

아이는 있니? 아이는 몇 명이니?

아이는 여자니, 남자니?

나도 빨리 40살이 되어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잘 살아~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와줘서 고마워

2024년 8월 21일 10살 지호가

30세의 나

3학년 8반 권하준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의 꿈은 요리사, 판사, 과학자다.

이 중에서 한 직업이라도 다른 직업이라도 있음 좋겠다.

내가 요리도 배우고 과학도 법도 배웠는데 이 중에서 한 개의 직업이라도 있음 좋겠다.

가족들은 매일 판사, 경찰, 변호사를 하라고 해도 나의 꿈은 따로 있다.

그래도 나의 미래가 궁금하다.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나의 미래를 봤을 텐데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날 기억할까? 기억했음 좋겠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께서도 살아있음 좋겠다. 누나 빼고

나무의 정체가 궁금하다

3학년 8반 전제아

우와! 이걸 뭐지? 축 처진 무언가가 나를 따스하게 감싸준다.

어! 자세히 보니 줄기에 나뭇잎이 달려있네?

"저기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 이걸 나무야!"

줄기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나무였다!

"근데 아주머니 혹시 나무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 그것이 궁금했구나? 나무는 공기를 만들어 주는 아주 훌륭한 친구야.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멋진 자연을 줘"

"아 그렇구나!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멋진 자연을 주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나무를 많이 심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상문]

미술공연 감상문(페인터즈 공연)

3학년 8반 우서호

엄마 아빠랑 서울에 있는 페인터즈 공연을 보러 갔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깐 재미가 있었다.

거기서 제일 신기한 그림은 네 명의 배우가 각각 다른 종이에 그림을 그렸는데 합쳐보니 마이클 잭슨이 나와서 신기했다.

재미있게 본 그림은 검은 장갑을 끼고 그림을 그린 후 금가루를 뿌렸더니 사람의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누나는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왔는데... 누나가 보았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누나랑 같이 오고 싶다.

책이 사라진 날을 읽고-소중한 책

3학년 8반 우서호

책 제목이 책이 사라진 날 이어서 왜 책이 사라졌는지 궁금해서 읽어 보았다.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에 침략했다.

외계인들이 지구인들한테 책을 못 읽게 했다.

하지만 민지와 상진이는 책 산에 가서 몰래 책을 읽었다. 그런데 우진이가 외계인한테 가서 민지와 상진이가 책을 읽고 있다고 일렸다.

외계인한테 들킨 민지와 상진이는 책을 통해 알게 된 외계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다.

민지와 상진이는 외계인들의 선생님이 되었다.

책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구나라고 느꼈다.

앞으로 책을 많이 읽을 것이다.

'바다 마녀 우술라의 고민 상담소'를 읽고

3학년 8반 김도유

저는 '바다 마녀 우술라의 고민 상담소'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술라라는 상담사가 물약도 주고, 고민도 해결해 줘서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고민을 해결해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이 와서는 후회를 하며 "저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물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자신의 원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라는 의미 있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책이 사라진 날

3학년 8반 김유나

어느날 외계인이 상진, 민지가 살고 있는 지구로 쳐들어왔다.

그 이유는 인간이 책으로 힘을 길러서이다.

인간이 외계인한테 항복을 하자 외계인이 모든 책을 가져가 책을 읽지 못하고 지식도 못 쌓게 됐다. 그러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놀기만 했다.

그러다가 상진, 민지가 비밀통로를 만들어 책 산에 가서 몰래 책을 읽었다.

결국 외계인한테 발각되어 미생물이 될 위기에 처한다.

외계인 앞에 선 상진과 민지는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말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며 외계인이 퇴화한 이유가 모두 노력을 멈춰서라고 했다. 그리고 외계인의 선생님이 되어서 글자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외계인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을 읽었다. 그렇게 외계인들은 똑똑해졌고 지구와 8457행성은 친구가 되었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펜은 칼보다 강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무식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바보가 되기 때문이다.

아씨방 일곱 동무

3학년 8반 박해솔

아씨방 일곱 동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빨간 두건을 쓴 아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가위, 바늘, 홍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다툽니다. 일곱 동무의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깬 아씨가 모두의 자랑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잠에서 일어나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 없이 무슨 소용이나"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무에게 소리치고 일곱 동무를 아무데나 쏘서 넣고 잠들었습니다.

아씨 말에 놀란 일곱 동무는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가위, 바늘, 홍실, 골무, 인두, 다리미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들이 쓸데 없고 소중하지도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슬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가위가 문밖으로 가려고 하자 골무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 일이 아씨 꿈에서도 벌어지자 아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일곱 동무는 울고 있던 아씨를 깨웠습니다. 아씨는 그게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씨와 일곱 동무는 서로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일곱 동무가 슬퍼하는 아씨를 깨우는 장면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씨가 자신들에게 화를 내서 슬펐지만 아씨를 걱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기행문>

여행

3학년 8반 유주아

오늘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 왔다.

공항에 사람이 아주 많았다.

오늘은 늦어서 구경도 못 하고 그냥 들어왔다.

내일은 유명한 포나가르사원에 간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돈 바꾸고, 마트에 갔다가 포나가르사원에 갔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

근데 정말 더웠다. 그래도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밤에는 수영을 하고 잠을 잤다.

재미있고 행복한 첫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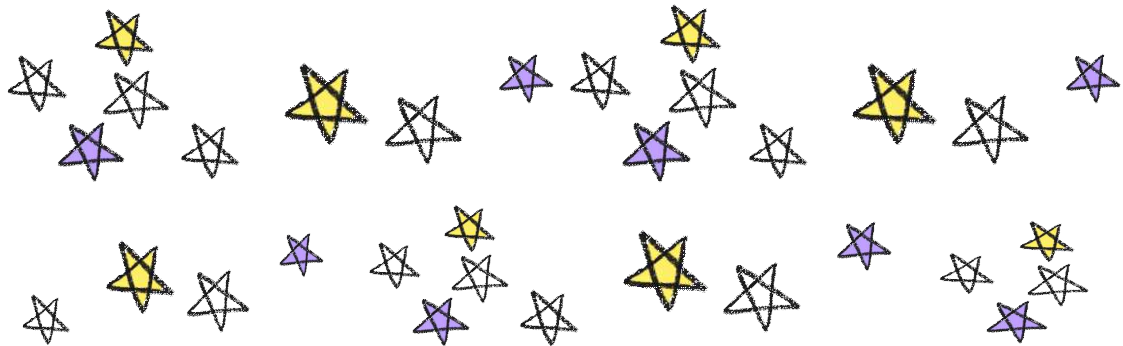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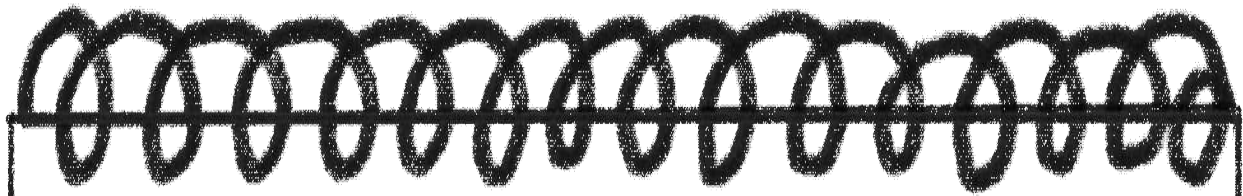
베트남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조금 쉬다 짐 싸고 체크아웃한 후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마사지가 정말정말 시원했다. 귀도 파주고 머리도 감겨주셨다.

마사지를 받은 후에 밥을 먹으러 갔다. 한식 집에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맛있었다.

밥을 먹고 숙소를 옮겨갔다. 숙소에서 심한 실수를 해서 방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셨다. 숙소는 멋진 풀빌라여서 우리만의 수영장이 있어서 좋았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





9만 개의 별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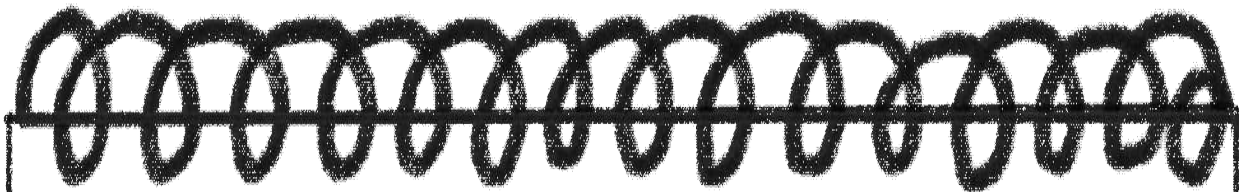
3학년 8반 조아라

9만 개의 별의 주인공들은 새별, 강산, 요만, 마데이다. 마데는 요만의 작은 형이다. 나는 새별이가 제일 좋다. 새별이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활발해서 친구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

9만 개의 별의 이야기는 새별의 할머니인 오 박사가 만든 도서관의 특별 시스템인 하늘을 나는 기능으로 하늘을 날아 책을 노리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9만 개의 별이냐면 이 책에서 9만 개의 책들을 어쩔 수 없이 비행 중 하늘에 뿌렸는데 신기하게도 특급 해커가 있는 연구소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밤하늘에 9만 개의 별 같았다고 했는데 그게 이 책의 제목이 된 것 같다. 얼른 도서관에 가서 2권, 3권도 읽고 싶다.

밤하늘에 9만 개의 책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예쁠까?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또 새별이와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하고 싶다. 얼마나 짜릿하고 재미있을까? 언젠가 내가 크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신나는 모험을 해보고 싶다.



바삭바삭 갈매기

3학년 8반 정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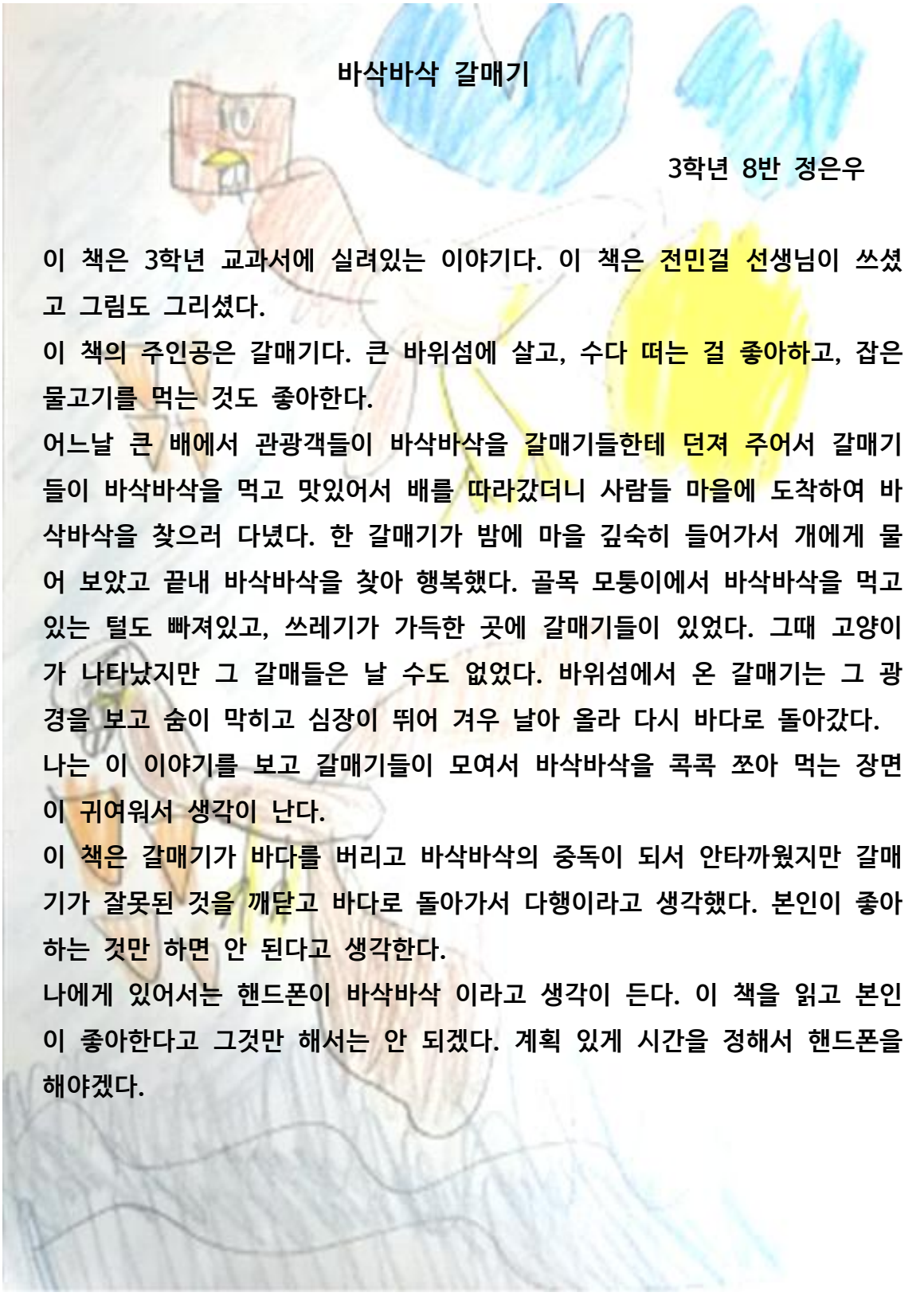
이 책은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이 책은 전민걸 선생님이 쓰셨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갈매기다. 큰 바위섬에 살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좋아한다.

어느날 큰 배에서 관광객들이 바삭바삭을 갈매기들한테 던져 주어서 갈매기들이 바삭바삭을 먹고 맛있어서 배를 따라갔더니 사람들 마을에 도착하여 바삭바삭을 찾으러 다녔다. 한 갈매기가 밤에 마을 깊숙히 들어가서 개에게 물어 보았고 끝내 바삭바삭을 찾아 행복했다. 골목 모퉁이에서 바삭바삭을 먹고 있는 털도 빠져있고,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갈매기들이 있었다. 그때 고양이가 나타났지만 그 갈매들은 날 수도 없었다. 바위섬에서 온 갈매기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어 겨우 날아 올라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고 갈매기들이 모여서 바삭바삭을 콧속 찌아 먹는 장면이 귀여워서 생각이 난다.

이 책은 갈매기가 바다를 버리고 바삭바삭의 중독이 되서 안타까웠지만 갈매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고 바다로 돌아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핸드폰이 바삭바삭 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고 본인이 좋아한다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계획 있게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해야겠다.



[그림]

잔탱글

3학년 8반 장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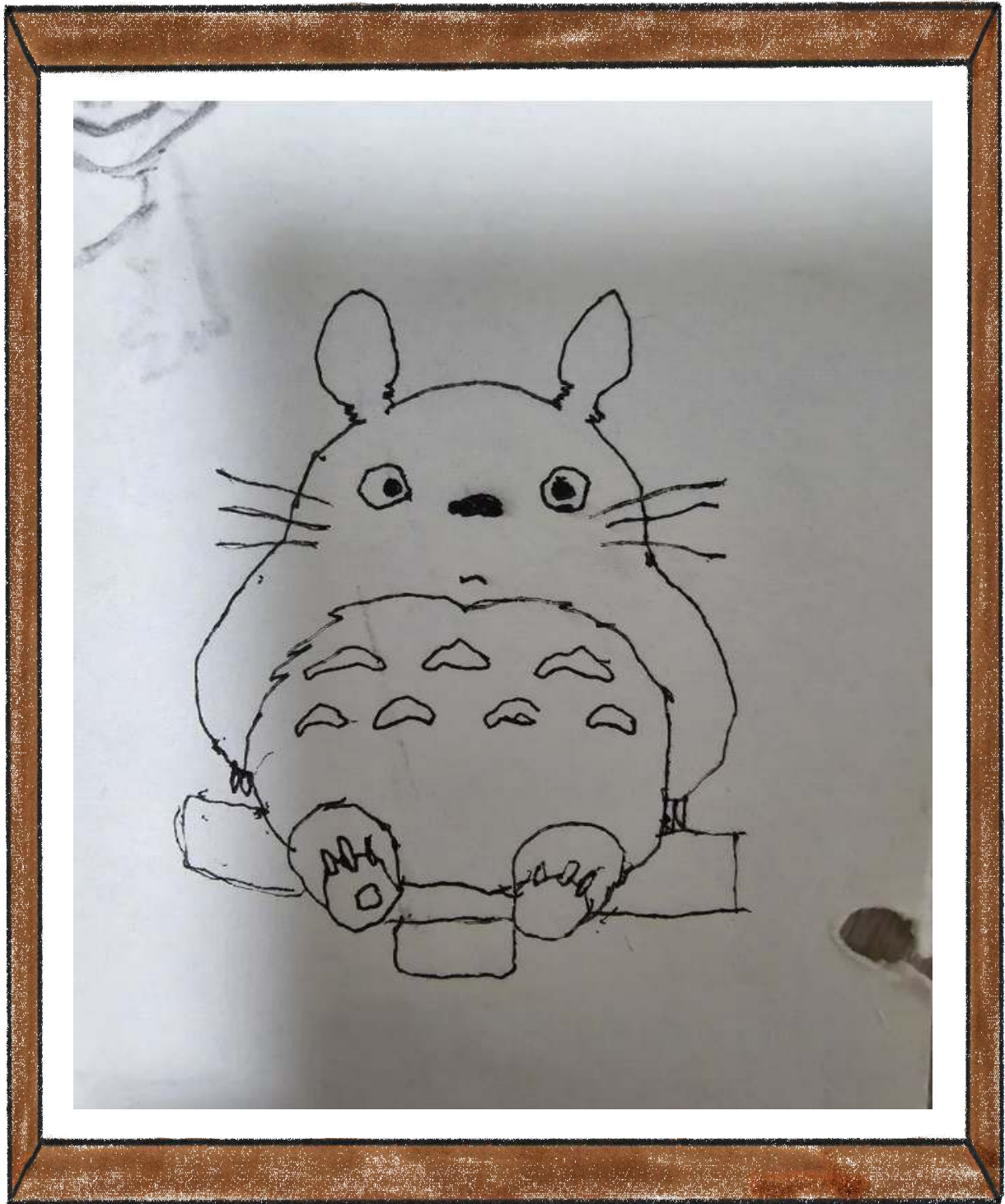


3학년 8반 장보운



제 꿈은 만화가입니다

3학년 8반 박재운



토일캐릭터

3학년 8반 조승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봤다.
그림이 작아서 색칠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그리고 나니 멋진 토일렛캐릭터들이다.

루돌프곰돌이

3학년 8반 한재민



포차코

3학년 8반 강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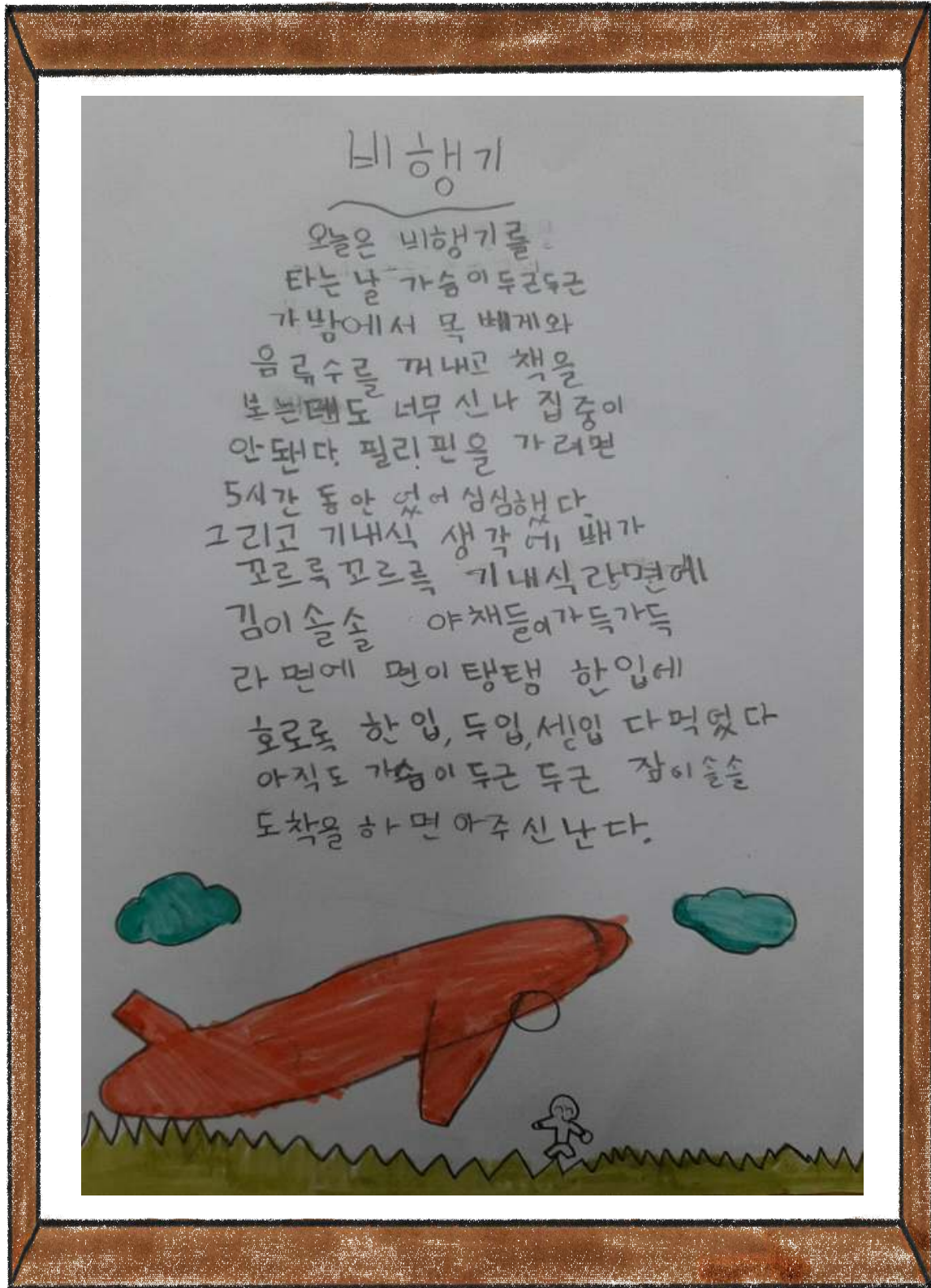
제 꿈은 경찰입니다

3학년 8반 서우주



배행기

3학년 8반 박찬솔



영화를 보고

3학년 8반 박재은





수영

3학년 8반 김도진

시골로 가고 있다.
도착했다.
우리는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을 만들었다.
어푸어푸 하면서 놀았다.
너무 좋았다.



시골 가는 중

3학년 8반 김도은

풍경이 참 예뻐다.
바람이 흔들흔들
참 좋다.



흰둥이가 귀여워

3학년 8반 전제아

나도 흰둥이 같은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솜뭉치 같은 귀여운 강아지가 생기면 이름을 뭉치로 지어주고 싶다.

